### 화학주식호

1의모등43(미윤발당16· 7종) 7842 성임동 45-25 TEL. 73



### 한 주거환경

건축용 단열재 청색 ,방습효과가 뛰어나 [할을 합니다. 가 없는 위생적인 단

급스치로폴로 아늑한

### 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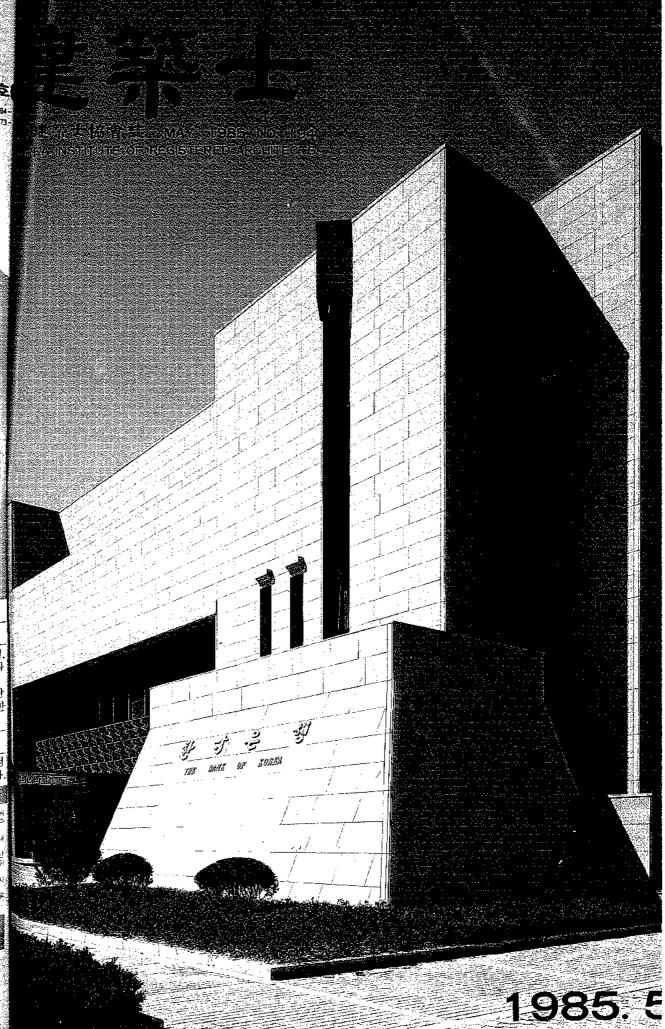
고폴에는 정부가 인정 조시가 되어 있음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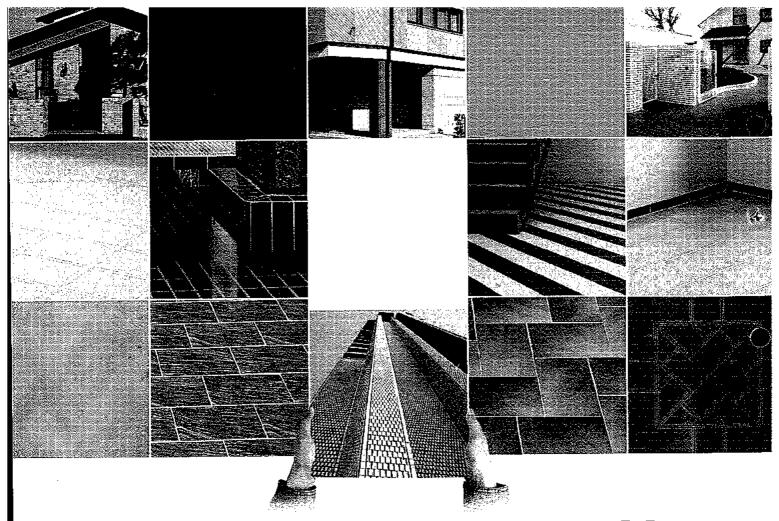
- 겨울에는 살내보온 증가가 이 있나므로 난 방비를 정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여름에는 알지난 한과로 살려 온다른 병호수 있을 내다.
   의부 소음을 통제하는 뛰어날 이름성으로 마득한 살되다.
   알말을 수 있을니다.
   알말과 잘인이 용이하므로 사용이 간편됩니다.
   우수한 원료로 재즈되므로 유해보소가 없어 안설됩니다.



经运输通过通知

2-5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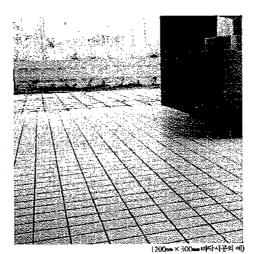


# 공간 건축에 66삼영점보타일 99을!

**삼영점보타일**은 종전의 수입 에만 의존해오던 대형타일을 국내최초로 삼영요업에서 개 발시판하여 우수한 대형단일 의 새시대를 열게되었습니다.

자기질타일로서 내마모성이 강하고 우수한 내한성으로 겨울에도 얼어터질 염려가 없읍 니다.

경제성 특수설비와 새로운 원료개발로 인 한 위가절감으로 수입대형타일보다 월등 저 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장식성 세계적인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 택되어진 다양한 칼라와 디자인은 건축물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연출해줍니다. 특히, 대리석의 대체효과가 높은 품위 있는 치장재입니다.

시공성 첨단기술개발 및 컴퓨터에 의한 생 산 품질관리로 규격이 균일하므로 정확한 사공을 할 수 있읍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P·C공법이 용이 합니다.

200mm×200mm, 200mm×300mm, 300mm×300mm, 300mm×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 ├영요업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대표전화 757 - 2295~ 6 부산사무소: 대표전화 44 - 6575·6391 장: 경남김해군진영읍하계리

전화(경남진영)5-2017·3792

- 동우상사/266-2567
- 동영타일상사/275-4487
- 우일타일상사/266-5587
- 영남타일상사/265-1455
- ●유익타일상사/269-7242
- 헤세통상(주)/446-3006

저국 각도시벽로 대리적이 있음니다

▲ 유리나스토(주) /562-8565

#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5月 15日 発行

1985,5 NO. 194

### 目次

發行人= 吳雄錫 編 輯 = 出版事業部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縣

委 员 姜哲求

委 員 金琪硝

委員 徐千植

委 員 金基雄

委 員 呂鴻九

#### 希 行一大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端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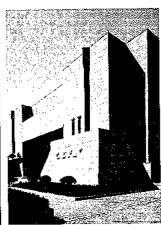
電 話率 서울(02)交 581 - 5711(代) 5712, 5713, 5714

登録番號: 第2-125) 登録日字=1967年3月23日 U. D. C. 69/721054-2): 0612 (519) 印刷人=全允珪 (洗文稿版社/712-2329)

### 建築士憲章

- 工業計2 进程的課 養職人公主人 创意力量 最終的司 主義文化 修建司 이미리 한국,
- 或祭士七 國民斗 快速管 主活空間斗 環境斗 改善者 기타여 或祭士業務者 海黄川 进行也中。
- 建築士之 技術股份 建等物件 数的 向上者 利朴州 。单門人之至州斗 被命者 斗砂斗。
- 一. 建苯七二 友定科 信長者 비廿三星 含黄 稻里饲料 铅矾料料 名铁林 品位务 保存部件
- 建築士艺 於持年 自員心意 外引工 衛起投資 於外引 引引 國際中 社會司 社會的公司 外往於中。

#### 大蜂建築士協會



표지설명 : 한국은행청주지점 설계 : 김기웅

#### 회원작품

- •한국은행 청주지점 김기웅 / 삼정건축설계연구소
- ●**도로교통안전협회 회관** 김인철 / 엄·이건축연구소
- **동철빌딩** 김석철 / 김석철건축연구소
-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관 안일성 / 극동설계연구소
- ◆**부산삼일교회** 김정식 / (주)정림건축

반	류	번	ሎ	建	築	士	誌
도	서	번	ġ	통권	<u> </u> 제/	PF	<u>ই</u>
7	입Ķ	1월	일	19	•	., i	Y!
Ε	내한	건:	축人	·I협호	4 제	7	

### 7

#### 회원 PLAZA

- 19 협회소식
- 22 지부순례 ⑤ / 경기도지부
- 26 일하며 생각하며 / 김영석 · 김자호
- 38 ◆ 이렇게 생각한다 / 안병욱·최동희
- 21 정화칼럼 · 배지유감 / 김태만

#### 연구논문

- 28 전시공간의 연출 / 한도룡
- 34● OFFICE LANDSCAPE / 윤오석
- 52 인테리어 디자인 · 직물장식 / 조성렬
- **56** 외부환경설계 · 주차장 / 최기수
- ▼60 ◆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유향산
  - ●특집 · 건축평론
  - 40 상공회의소 논고 / 허범팔
  - 44 「표면」에 대한 두가지 의식 / 김광현
  - 48 ◆도시건축의 맥락성과 표징성의 3 가지 실증 / 박길용

#### 자료 - 기타

- 33 건축계뉴스
- 51 회원동정
- 65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66 태양열이용 급탕보급 설계도
- 77 신입회원소개
- 78 건축허가면적 변동추세

### 片 片 想

李 水 熙 본지 편찬위원장 희림건축연구소 대표

어느 계획작품의 투시도나 모형을 보고 판단하는 시각의 기준에 있어, 건축을 하는 사람과 하지않는 사람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말한다면 전지는 그 계획 안이 완성(준공) 되었을때의 「스케일」과 환경 요소로서의 장소성을 연계하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고, 후자는 하나의 그림이나 조각품을 보듯 정교한 표현 기법이나 조화된 색상에만 매료되어, 양・불량을 판단할 뿐이지, 몇십 몇백배로 확대 되었을 때의 「스케일」 감각에 아주 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건축을 하는 사람 즉, 우리는 설계 작업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 발전 혹은 비교 검토의 실험적 「스테이지」로써 투시도를 「스캣치」하고 모형도 만들어보기도 하는가하면, 한편으로는 최종으로 정리된 안을 비건축인에게 가장 손업게 설득할 수 있는 방편으로 즐겨 그런 작업들을 행하고 있다.

항상 불만스럽고 거복스런 체험이지만 어느 계획안을 결정 혹은 선택할 때 관 계 전문인의 집약된 의견보다 최고 경영 자의 순간적 판단이 우위에 있는것이 우 리의 현실이다. 적어도, 건축이란 작업 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의 가 부가 없이 는 어느 한단계도 진행할 수 없는 사회 적 통념이 팽배 하는한 선진사회로의 길 은 멀기만하다. 어느 기관이든 최고 책 임자의 자리는 교체되기 마련이지만, 한 번 세워진 집은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그 기관, 그 기업의 전용물이 아 니라,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

투시도를 보고 실지 세워질 집의 「불름」과 주변 환경을 머리속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도시의 색상이 결정되어 버리는 숱한 고난속에 우리는 엉거주춤하게 서있다. 부존자원이 전무하고 좁다좁은 땅덩이 속에 사는

우리의 유일한 회망은 인력 뿐이리라. 인력개발내지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식이 전문성을 압도 해버린다면 참으로 비생산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기능은 복잡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 골고루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도 깊이 모른다는 것과 일맥을 같이 하리라. 전문 직능인의 목소리가고고히 메아리치고, 관심깊게 청취하는 최고경영자의 이랑이 극히 자연스런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는 선진사회속에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우리주변에는 많은 특정분야의 심의 혹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위원 구성은 고도의 두뇌인력인데, 과연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가, 행정 절차상의 편익을 위하여, 정책 결정의 책임에 대한방패 기구로서 운용되고 있는 예는 없는지, 전문 분야의 자문기구가 존치 한다는 것은 전문두뇌의 집약된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입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인데, 얼마만큼 연구 분석할 시간을 갖고 당면「테마」에 임할 수 있는냐 하는환경 조성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생가이 든다.

선진제국에 비해 우리의 건축인구는 비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밀도 높게 산학이 협동되고 관이 그 촉매 역할을 한다면 국제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고취될텐데,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지않나 한다. 관주도의 획일성, 학계의 자아 과잉보호, 현업계의 좁은 아랑 때문에 보이지 않은 불협화음이 연속되고,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위축되고 있다고 본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령도 개정되어야 함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급변하는 사회적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다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라라.

김리업무가 설계의 연장작업이라는 근원 적인 원칙을 소외 해버리는 사고는 아이 를 낳은 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은 고아원 에 맡기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설계 사무소의 상호를 반드시 지정한 돌림자 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주도의 획일통제 에 대해 고소를 금할 수가 없다. 자유분 방 속에서 선의의 경쟁결과로 이루어지 는 창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가 아 니겠는가.

건축사 3인 이상이 뜻하는 것 또한 건축설계 작업의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합당한 논리를 찾을 수가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빈데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 다 태워버리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정부가 정한 설계보수요율이 엄연히 있는데도 또 다른 정부의 일각에서는 해 마다 예산집행지침이라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설계수가의 요율은 난도질 당하여 시행되고 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인지 쉽게 납득이 안간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좋은 시설을 해놓고 섭씨 28°C 이상의 기온이 되어야 그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애초부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광범위의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계획을 입안하는 것 과는 전연 의미가 틀린다. 먹어야될 것 먹지않고 버티는 것만이 결코 근검절약이 아니다

같은 용도 유사규모의 금융기관 점포를 신축하는데, A은행의 경우와 B은행의 경우에 있어 투자비의 단위 단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다설계니, 과다지출이니 하여 힐책하는 감사방법 또한 전축문화 창달 내지 기술발전에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된다. 건물과 건축을 구분 못하는 획일적이고 안이한 시각이 그 원인이리라 \*



 $- \left[ \chi_{2} \righ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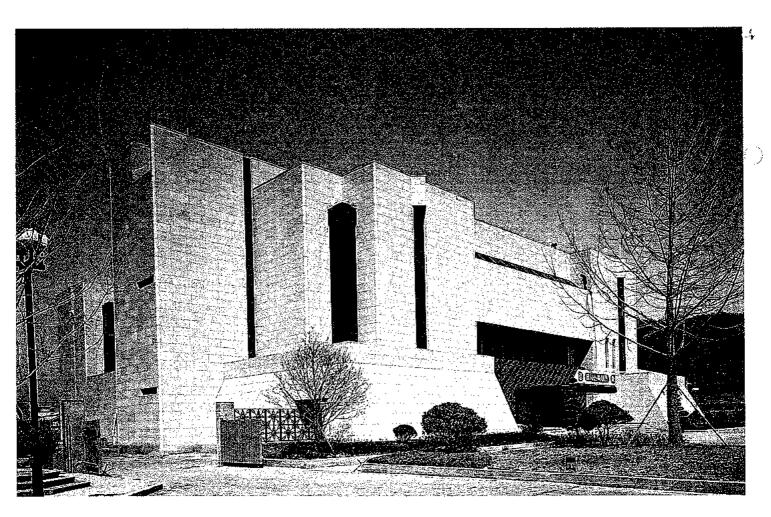
한국은행 청주지점	김 기 웅
THE CHEONG-JU BRANCH OF B.O.K	삼정건축설계연구소
도로교통안전협회 회관 THE BUILDING OF ROAD TRAFIC SAFETY ASSOCIATION	김 인 철 (주)엄·이건축연구소
동철빌딩	김 석 철
DONG-CHEOL BUILDING	김석철건축연구소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관	안 일 성
THE HUMAN SOCIETY BUILDING	극동설계연구소(부산)
부산삼일교회	김 정 식
THE CHURCH OF SAM-IL	(주) 정 림 건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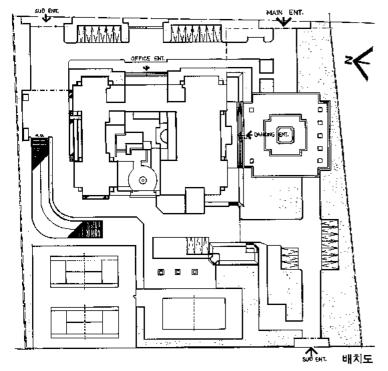
### 한국은행청주지점

THE CHEONG-JU BRANCH OF B.O.K 김기웅 / (주) 삼정건 축설계연구소 대지위치: 충북 청주시 서동 309-2

대지면적: 13.309㎡
건축면적: 1.951㎡
연면적: 7.26㎡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외장제 : 화강석바다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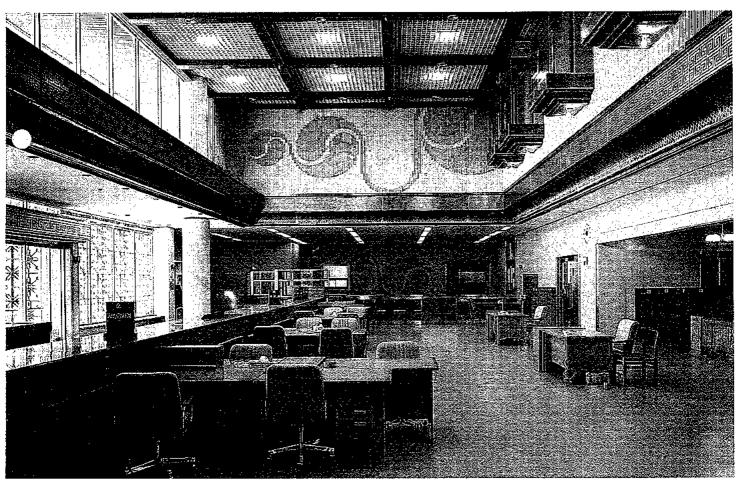


### 설계 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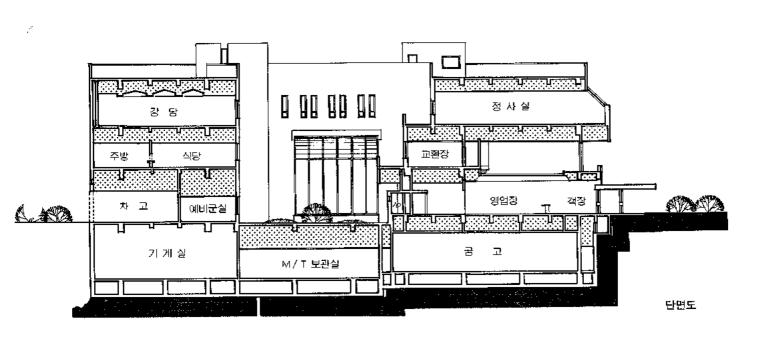
청주 도심의 단부에 접속된 계획 대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남축 진입도로인 대성로, 청주시 간선도로인 상당로, 남축의 우암산 녹지상당공원 등)의 해석과 기능상 요구되는 통재, 제한된 공간과 대 고객 서비스 공간의 합리적 수용이 이 Project를 진행하는 주요 관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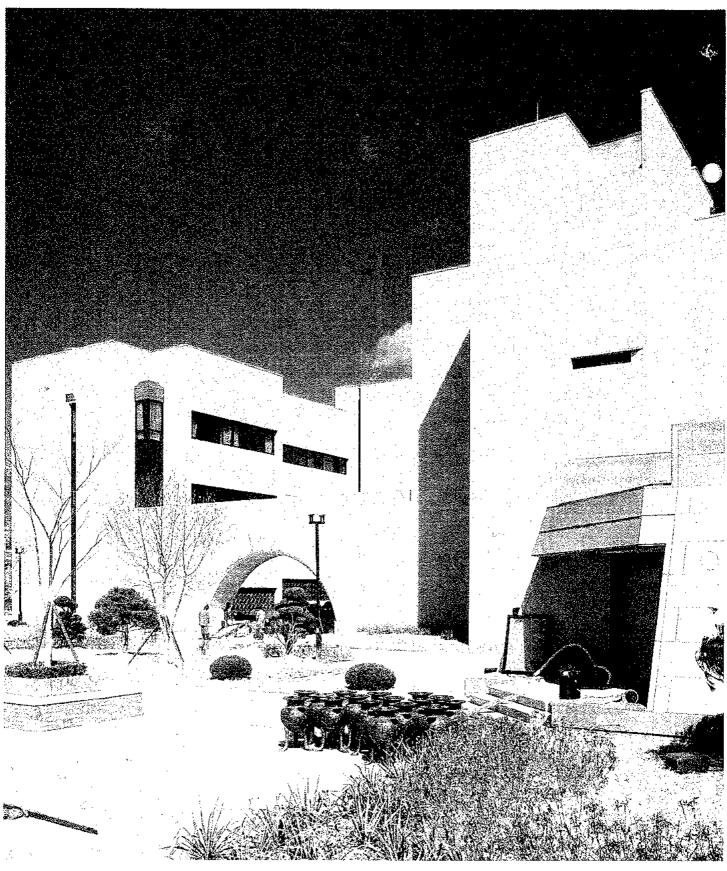
인근의 도심 간선도로와 상당공원에서 대지주변까지 지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건물 규모가 2~3층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의 구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지의 전면도로가 동축으로 지나고 있고 영업장의 남향 배치의 필요성으로 남축으로부터의 진입에 의한 정면성을 확보하고 동축도로와의 연계성에 따라 『자형의 배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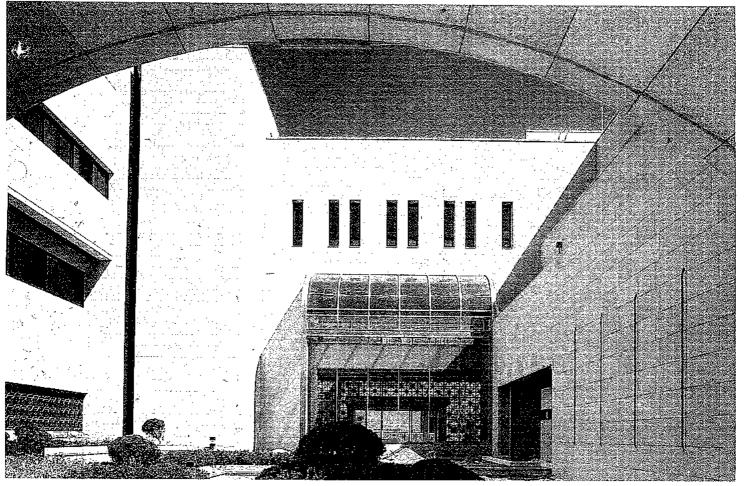
따라서 계획건물은 적절한 구도의 MASS로 분절되고, 작분절 공간의 연속적 반복을 통하여 MASS의 구성에서는 주변 건물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발전시켰다. 재료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화강석을 주요 외장재로 사용하여 서울 본점과의 연상작용을 유도하도록하였고 돌과 유리와의 결합과정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석재의 상세를 단순화시켜 두 재료의특성을 극대화시켰고 저층의 경사면 처리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어 은행의 이미지를 구현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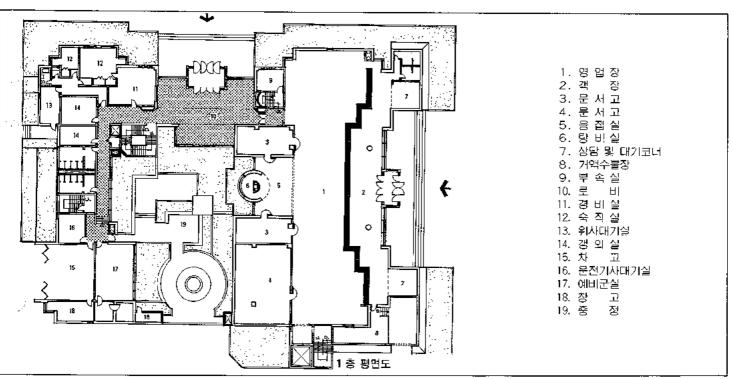


객장









### 도로교통안전협회회관

THE BUILDING OF ROAD TRAFIC SAFETY ASSOCIATION 김인철 / (주) 엄 $\cdot$ 이 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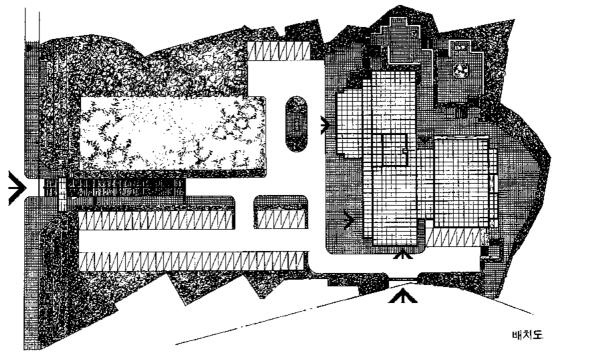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중구 신당동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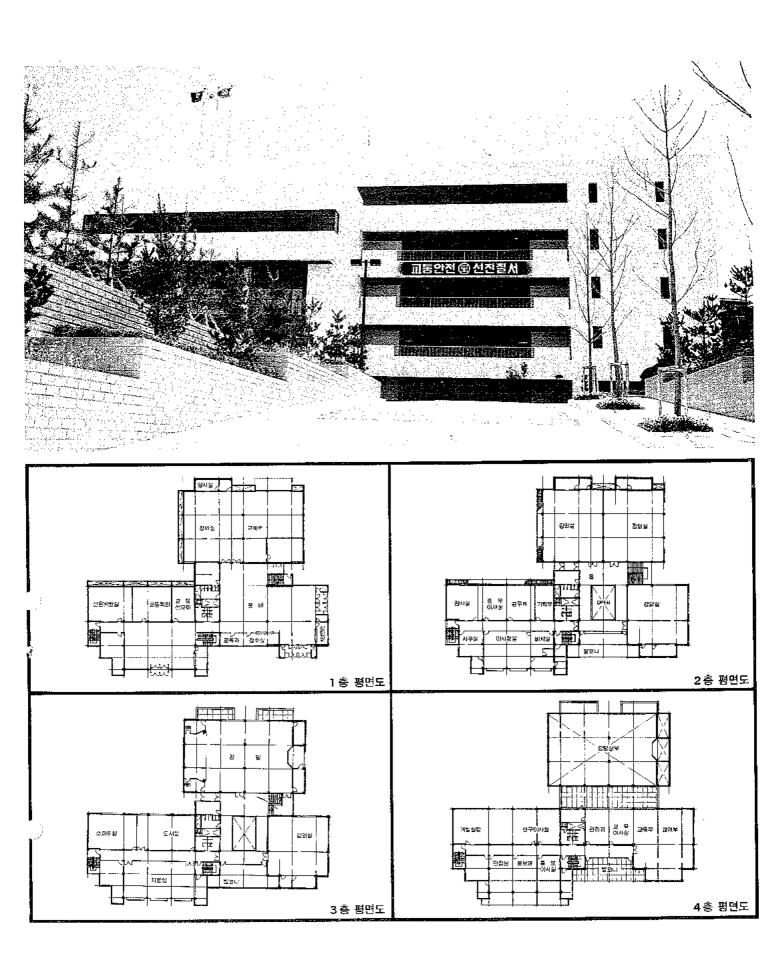
• 대지면적 : 10,404.3㎡ • 건축면적 : 1,701,71㎡

• 건축면적 : 1,791.71㎡ • 연 면 적 : 7,700.86㎡

규 모: 지하2층, 지상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스프레이타일







### 동철빌딩 DONG-CHEOL BUILDING 김석철 / 김석철 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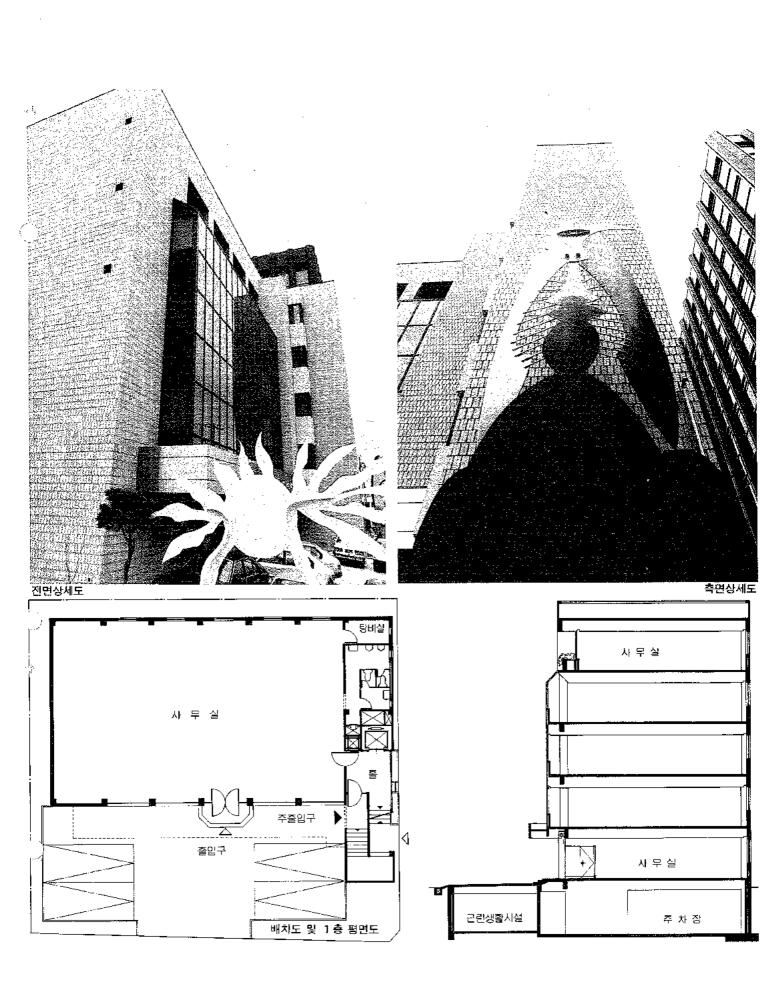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7

• 대지면적 : 521.8㎡ • 건축면적 : 309,22㎡ • 연 면 적 : 1,903,82㎡

· 규 - 모 : 저하 1 층, 지상 5 층 • 구 -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용 도: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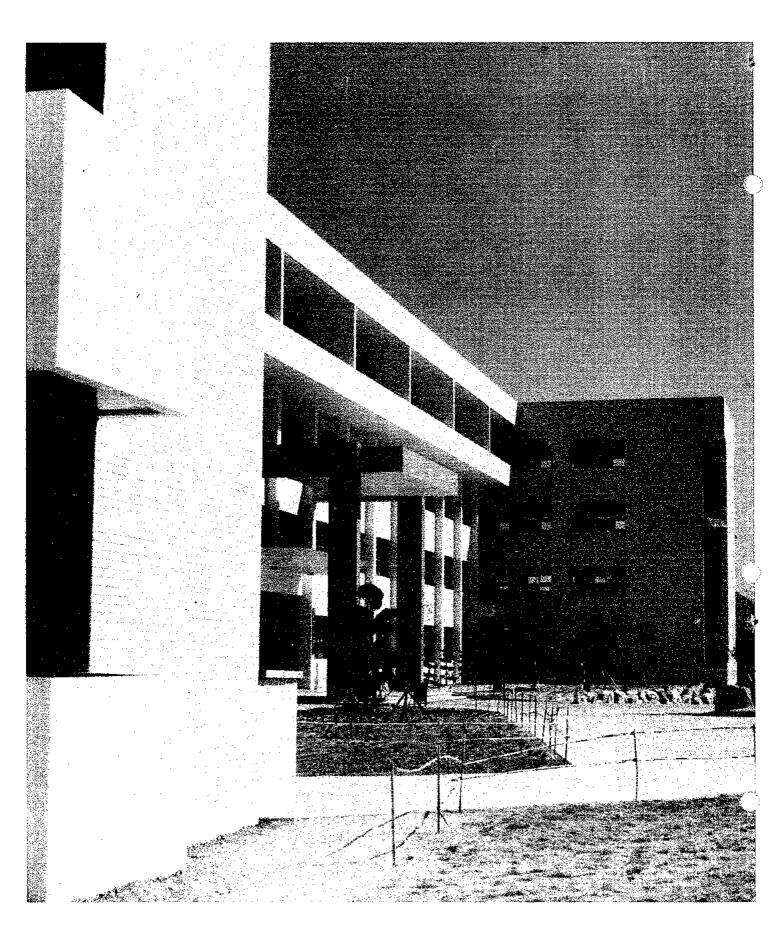
###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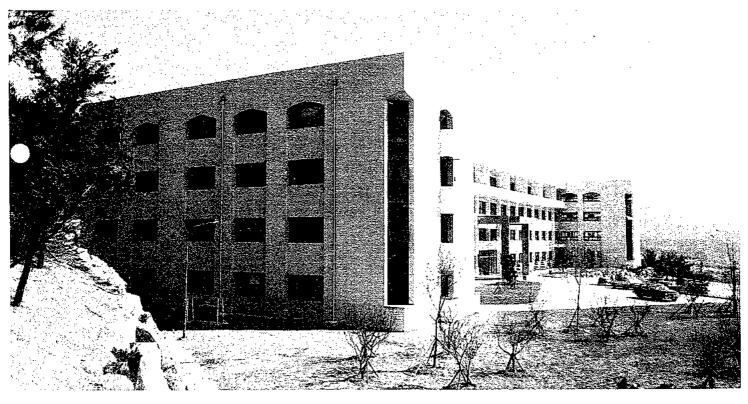
THE HUMAN SOCIETY BUILDING OF BU-SAN UNIVERSITY 안일성 / 극동설계연구소(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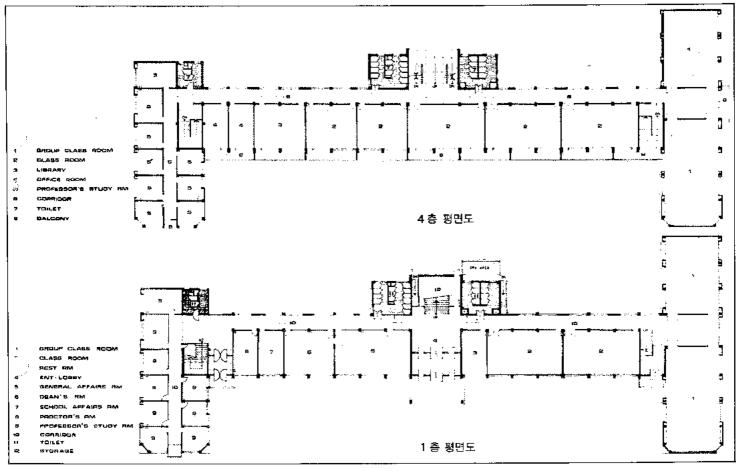
• 대치위치 : 부산시 통래구 장전동

• 건축면적 : 1,835,2㎡ • 연 면 적 : 6,978,99㎡ • 규 □ 및 : 지하1층, 지상4중

• 구 조: R-C조







### 부산삼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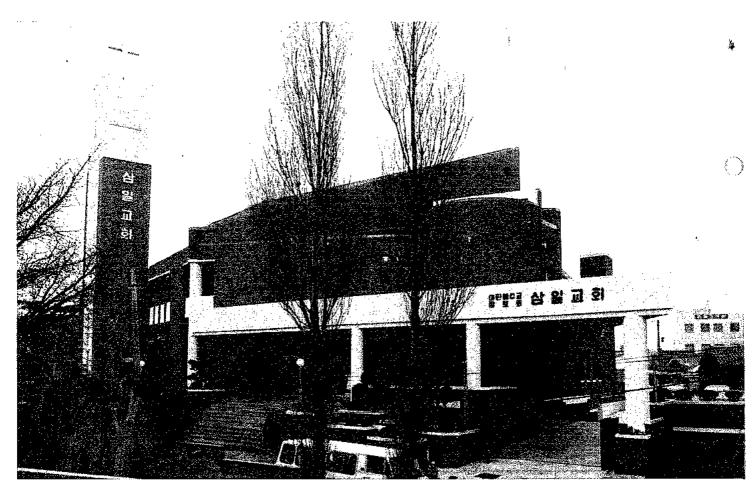
THE CHURCH OF SAM-IL 김정식 / (주)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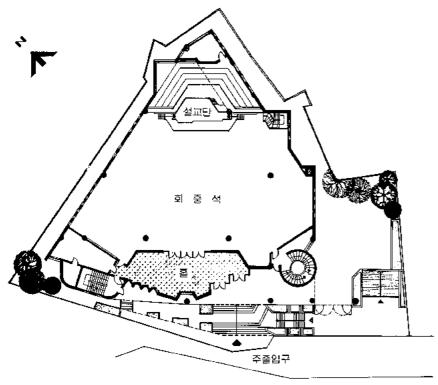
• 대지위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5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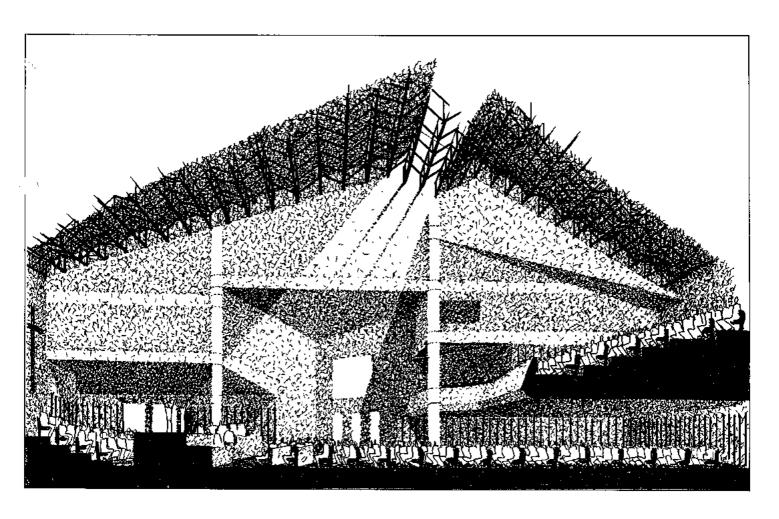
대지면적: 1,792.4㎡
건축면적: 1,091.76㎡
연면적: 3,82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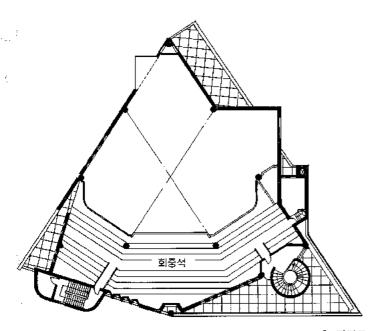
• 규 모: 지하 ) 층, 지상 3층• 구 조: 철괄콘크리트+철근트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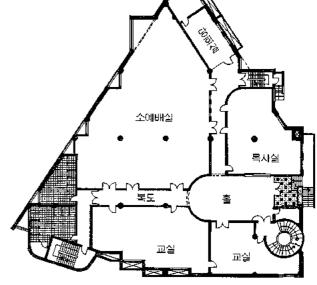
· 외부다감 : 적벽돌 : 자기질타일 + 페이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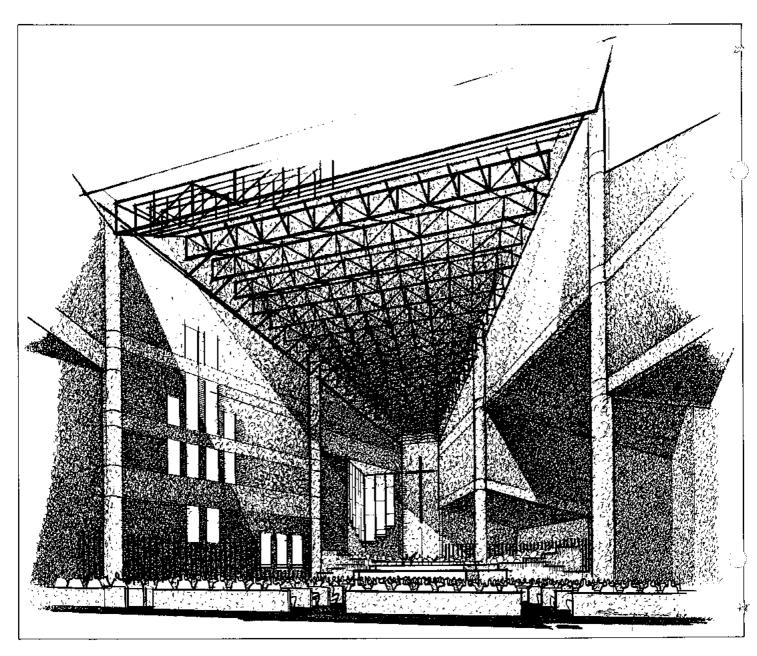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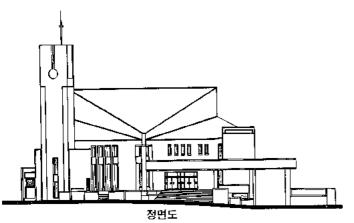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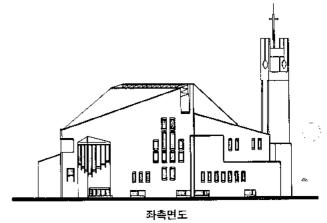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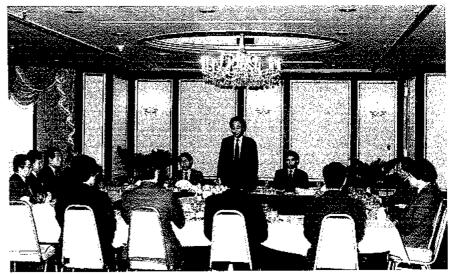
### 협회소식

### 건축 3단체 조찬회 개최

본 협회 呉雄錫회장은 지난 4월18일 롯데 호텔에서 건설부주택국장, 건축과장, 및 서울시건축지도과장등 관계관과 金眞一대한건축학회회장, 羅相紀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협회가 주최한「건축3 단체 조환회」에 참석하였다. 본 조찬회에서는 특히 주차장설치법의 모순점 및 방화셔터의실효성여부, 건물주변 조각미술품장식에 있어서의 문재점, 대학교육제도의 개선점, 대학교수의 실무경력 의무화, 실무경력 인정제도확립 등 건축계 전반에 관한 현안이는의되었다.

### 민정당 건설분과위원회 주최 간담회 吳雄錫회장 참석

지난 4월18일 해외건설협회에서 민정당의 박익주건설분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과 건설부산하 6개단체장(본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사업협회, 전문위원전국협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민정당 건설분과위원회 주최 간담회가 개최 되었으며 이날 회외에서 吳雄錫희장은 대학



건축 3 단채 조찬회

교육제도의 개선, 건축설계의 입찰제도 폐지, 건축사에 대한 세율과다책정 지양, 건설업법 중 건축물의 시공책임자 선정등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 공업표준 심의회 제10차 총회참석

지난 4월30일 공업진홍청 회의실에서 개 최된 공업표준심의회 제10차 총회에 吳雄錫 본협화 회장을 대리하여 任仁**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 신규직원채용

제5회 이사회(85.4.17) 외결에 의거 본회는 직원 충원을 위하여 지난 4월25일부로 법규담당(부장급) 報樹德, 기술과장 陣点同을 채용 하였다.

### 지부소식

### 서울지부

"서독 슈밋, 톰젠 및 유희준공학박 사 초청 세미나 개최"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李春相)에서는 지 난 4월 24일 본회 兵雄錫회장과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85전반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季春相 서울특별시자부장은 「슈맛、 톰젠공학박사께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 「서독의 현대건축과, 건축사 제도를 우리 나라 건축사 체도와 비교 검토하는 오 늘 이 세미나가 회원업무에 활력소가 될 것 이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세미나의 의 의를 새겼다.

2시간여에 걸친 세미나에는 유희준 박사

도「대비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강의를 하 였다.

#### 부산지부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 黄在涍지부 장 "녹화협동상 수상"

지난 4월 10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된「푸른 부산가꾸기 운동」 시민대회 에서 黄在滹 부산직할시지부장이 녹화협동 상을 수상하였다.

부산직할시는 부산지구 청년회의소, 국제 라이온스협회 309 - B 자구, 국제로타리366 지구 및 대한민국 팔각회가 공동주최 하는 푸른 부산가꾸기 운동을 후원하고 있는데 녹화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율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녹화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및 시민에 대하여 녹화협동상, 녹화근면상, 논화특별상, 녹화봉사상등 4개부문에 걸쳐「푸른 부산상」을 시상 해오고있다. 금번 黄在涍지부장이 수상한 것은 부산직할시 지부가 헌수헌금에 공이 많음을 인정받은 때문이다.



貧在澤 부산지부장

### 국제위원회

제 3 회 국제위원회(위원장 宋基德)가 4 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센프란시스코 에서 개최될 '85 A. I. A 총회 참석에 판한 안건이 협의되었는데 본 협회와 A. I. A 와의 관계 중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L. A 와 시카고지역 한인 건축사와의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참석회망 회원을 모집, 해외시 찰단을 구성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본 시찰단이 구성될 경우 선진외국의 건축계 동향과 건축물 건학으로 회원 업무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편찬위원회

제 5 회 편찬위원회(위원장李永熙)가 5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建築士」誌의 편집, 발간을 위한 이날 회의에서는 5월호 부터 로고체현상 공모당 선작(한상훈)을 표지제목 로고체로 사용할 것에 합의 하였다.

또한 '85년도 회원명부 발간에 대한 게재 내용 심의가 있었는데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를 삭제 할 것과 협회기구 및 조직표를 참 가 하기로 하였다.

회원명부의 발간은 개정건축사법에 의거 회원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이 6월 30일까지 일제히 갱신등록되므로 7월초 부터 착수 2 개월내에 발간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키 로 하였다.

### 실내 디자인분과위원회

제3회 실내디자인분과위원회(위원장曹龜 致)가 지난달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내디자인 작품집발간과 실내장식 세미나개최, 회관3층에 대한 회원 편의시설"로의 활용계획등이 협의되었다.

「실내디자인 작품집발간」은 1단계로 작품만 수집하고(규모 및 내용 제한없이), 작가 선정은 각 위원별로 차기 회의시까지 추천 취합하여 결정, 공문으로 외뢰키로했다.

작품집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는 바닥및천 정평면, 전개도, 주요상세도, 구상스케치, 사 진(미완성일경우 스케치) 등이며 사진은 전 문가를 협회에서 동원하여 일괄 촬영하기로 하였으며 작품이 수집되면 편집전문가를 위 촉 활용키로 하였다.

「실내장식 세미나 개최」는 세미나개최 이 전에 좌담회를 먼저 개최하고 좌담회 내용 을 회지에 계재하고 세미나 주제를 결정키 로 하였다.

「회관 3층에 대한 회원편의시설로의 활용 계획」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본 위원회 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에 마련된 전 시장 임대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는데 각 업체별파티션 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출품자 에 대한 제약, 규정, 제정이 필요하고 조립식 으로 하되 출품회사의 디자인이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대 계약시 전기사용량, 사용신청등도 고려 할 사항이며 추후 본 위원회에서 재차 검토 하기로 하였다.

### 도시 환경분과위원회

제 4 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金仁 錫)가 4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인디애나주 콜럼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인디애나주 골범 버스시광경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85년도 연구사업 실천사항의 협의에 있어 서는 도시환경에 있어서의 조형예술의 의 미, 도시환경에서의 작업범위와 내용, 도시 환경과 예술의 사례분석(국내사례, 국외사 례)등을 연구중인 서상우위원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김한근위원이 자료를 수집연구중인 기존 건축물의 조경설계사례에 대해서는 차기회 의시 일부를 협의 검토키로 하였다.

한편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85 건축 사보수교육기간 중 슬라이드를 상영하여 회 원으로 하여금 디자인감각의 항상, 건축환 경의 질적항상방안 제시등 회원의 실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하였다.

### 설계, 감리분과위원회

제4회 설계, 감리분과위원회(위원장 韓 鍾彦)가 4월 24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열 렀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공사 공종별시방서

와 내역서양식 작성연구」를 세부적으로 협 의 하였다.

연구방향은 다수의 회원이 실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으며 각 공사별로 전체공사를 열거하고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한국전설기술연구원(주임연구원 도건효)의 협조를 받아 5월 부터추진하여 4,5개월에 걸쳐 작성후 본 위원회에서 공동협의키로 하였다.

### 설비분과위원회

제 3 회 설비분과위원회(위원장朴容漢) 가 4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85년도 연구사업추진계 획에 대한 세부 협의가 있었는데 전반기 연 구사업 추진계획으로 병원건축물의 위생, 공조, 전기, 소방설비에 관한 연구와 건축 법과 건축설비 관련법을 비교분석 연구키로 하였고 후반기에는 건축물의 각종 설비를 조사연구(건축물 용도별 설비용량 분석등) 키로 하였다.

연구발표는 각 위원이 분담하되 작성 된 성과물은 전체위원이 공동으로 종합 검토하 여 하반기에 발표키로 하였다.

####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제 4 회 전통분과위원회(위원장 朴泰壽)가 4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85년도 연구세부실천사' 항에 대한 혐의가 있었는데 김두현위원이 진 행한 연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차 기회의시 제출키로 하였다.

이관영위원은 고건축물의 방재계획과 고 출 궁 및 대사찰등의 화장실을 미관적, 기능적 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발표키로 하였 다.

또한 각 위원이 전담하여 자료를 수집 연구중인 금년도 연구사업은 10월말경에 종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성과물은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키로 하였다. 사무처에 대하여는 '84년도 연구성과물의 도면과 원고, 사진 및 슬라이드등을 보관 할 수 있도록 도면함의 구입 설치를 요청키로 하였다.

### 배지유감

김 **태 만** 신건축연구소(전남)

이번 협회마-크가 공모되었고 그 결 과이전 "마-크"가 재등록 했다. 회관준 공날에 다시 나온 "배지"를 가슴에 달고 보니 오랫만에 흐뭇한 감회를 느끼게 한 다. 우리들의 상징이 잠시나마 변모했듯. 이 우리들은 그동안 사회에서 부조리의 원흉이 된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지금는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에 개도 많은 문제점은 있다. 말할것도 없 이 돈에 대한 탐욕과 무책임 등은 일부 에서 저질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 을 전부 면할 길은 없다. 그러나 한편 곰 공히 생각해 보면 3대 부조리의 하나인 건축부조리는 반드시 건축사만이 짊어져 야 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친 일로 생각 된다. 예를 들어 보자.

건축사가 허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에는 추호도 법에 어긋난 것이 없다.

위법건축물은 그다음 부터 시작된다. 자그마한 주택 등에서는 특히 분하다.

첫째 건축주들의 대부분은 척도감각이 무단 사람들로서 탁상에서 계획한 설계는 현장에서 줄을 뛰어서보면 터무니없이 잡아보이기도 하고 커보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뜯어고친다. 여기에서는 책임이 없는 목수도 한몫을 한다. 대개의 경우 설계로부터 허가수속 까지는 건축주인 남편쪽이 한다. 그러나 건축한장에는 부인쪽이 나타난다. 집안살

림은 부인 의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래서 또 한차례 변경혼동이 일어난다. 그뿐이라 친구들도 한몫을 한다. 친구들 은 객관적 주장에서 자기주장을 늘어놓 는다. 노덕작사란 말이 있다. 설계를 하 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는 건축주도 이렇게 되면 흔들린다. 이 래저래 흔들리다 보면 위법도 한다.

이처럼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건축주들이지 결코 건축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건축사가 받는다. 과분한 탓인지 몰라도 건축주 처벌을 받는때는 들어보기 어렵다. 차라리 지도를 잘못했다는 과실로 응분의 처벌은 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수인은 아니지 않은가? 어찌하여 직접적인하수인은 벌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건축부조리를 없애는 같은 결코 건축사이기 이전에 건축주와 시공자와 더불어 공동책임을 물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잘모르겠다. 지금 우리들은 건축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자기가 설계를 하지 않은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서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다른 부조리를 낳고

있는 셈이다.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건 축물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간인의 현장엘 가보면 목불흘견이라 굳 이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질이 낮은 건 축은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건축사가 할일 의 제1위적인것은 건축물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건축사의 존재이유가 된다. 크게 법에 어긋남이 없 는한 이미한 설계도면이나 면적의 가감 등은 대단한 문제로도 생각지 않는다.우 리가 정말로 지켜야할 일은 건축물의 품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건축부조리라는 말은 건축법규 일 변도로 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무엇인가 누군가가 착각 하고 있지 않으냐 말이다. 건축법은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지만 건 축물의 품질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속담에 "손톱밑에 비접든지는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실은지는 모른다"라는 말 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려 해야 할 일은 오히려 후자이리라. 현장 감리라는 것이 법규강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벽 돌하나,나무 한토막 소홀히 하지 않는것 이 감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회판도 준공하고 "배지"도 되살아 나고 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임무를 다시찾아서 심기일전하여 불사조 처럼 우리임무에 매진할 일이다.

바른마음 바른자세 다져지는 신뢰사회

### 京畿道支部



李 鍾 段지부장

### 지부장 인사

금번 지부순례란을 통하여 회원 여러 분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축사가 몸담고 있는 전축사협 회는 바야호로 창립20주년의 성년의 해 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역대 회장님과 임원님들, 또한 각시도의 역대 지부장님과 임원님들 의 각고의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의 우리 가 과연 어떠했을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과 같이 급진적으로 발전, 향상되는 시대에 우리 건축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협회를 구심으로 합심 단결하여 각자 맡은바책임을 다한다면 개인의 발전은 물론 협회의 발전 또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올해는 일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회원님들이 각성하시어 건축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전환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의 사무소 실태를 보면 각양 각색입니다. 대규모의 사무소에서부터 정 돈되지 않은 비좁은 공간의 사무소에 이 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읍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무소들은 이제 정리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를 벗 어나 21세기라는 대망의 전환기를 맞는 우리 건축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보 존해야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수탁의 정상화 문제, 지나친 설계 보수의 덤평문제, 불성실한 건축주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인한 분쟁문제, 애매한 법해석으로의 유도, 업무의 과다수탁으로 인한 소화불량증의 회원 등등 이모든 것이 어제는 지양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 또한 큽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감과 지나친 욕심……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읍니 🤛 까.

이제부터라도 지난 모든 것들을 재정 비하여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느 누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관심있게 일들을 해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정상회원에 대하여는 끊임없는 권익의 보호가 뒤따를 것이며 많은 협조 또한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리를 일삼는 회원은 당연히 예외가 될 것입니다.

차제에 사무소의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한 번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할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특히 작년에 경기도지부 회원은 약60여 명이 중가되었는데 다수의 회원이 인 접 지부에서 전입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원이 전입되는 것이야 마땅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회원은 각 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저부는 수도 서울 올 에워싸고 있다보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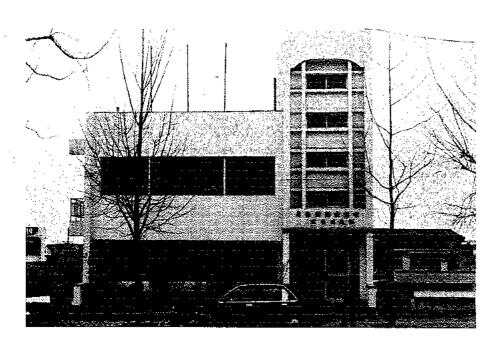
의정부, 남양주, 성남, 부천, 안양, 수 원, 송탄, 이천, 광명 등 여러 지역에서 의 타지부 회원의 업무수탁 등(특히 소 \* 규모 주택 등의 경우)이 문제입니다. 정 상적인 업무수탁이라면 굳이 문제시 할 필요도 없겠읍니다.

제발 정도를 건자는 말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읍니다.

여러 회원님들.

다 함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힘차게 걸어갑시다.

끝으로 여러 회원님들의 사업이 번창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 니다.



### 지부 현황

1965년 최초로 건설부에서 실시한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26명이 법률 제 1536호로 재정공포된 건축사법에 의거 대한건축사험회 경기도지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지부장에 심의권회원을 선출하였으며 임원으로 간사 3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고 인천시 중구 용현동에 처음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출발하였다. 1970년 3월 20일 지부사무국을 인천에서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 매산로3가124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76년 9월 25일수원시 매산로3가 124의 5번지 현재 사용중인 신축회관으로 이전하였다.

본 회관 신축은 1973년 6월 31일 회관건립위원회를 발족시켜 숙원사업으로 삼아 업원과 회원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과 뜻을 모아 1975년 9월29일 착공하여 1975년 1월 24일 일부준공을보았고 1976년 9월 11일 대망의 회관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는 당시 회원들의 뜻과 정과 땀의 결정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후 1981년 7월1일자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당지부 관할이 었던 인천분소가 1982년 1월 1일자로 지부로 승격, 경기도 지부에서 분리되어 현재 지부직할지역의 4개시, 군을 비롯하여 7개시 16개군에 8개분소를 포용하고 204명의 회원이 參集한 지부로 성장하였다.

#### ⓒ회관규**모**

- 대지면적: 151.807제곱미터

- 건축면적:113.075

- 건축연면적:377.337

- 구 조ː철근콘크리트 연와조 스라브줍

- 총공사비: 14,816,861원

### 기부의 성기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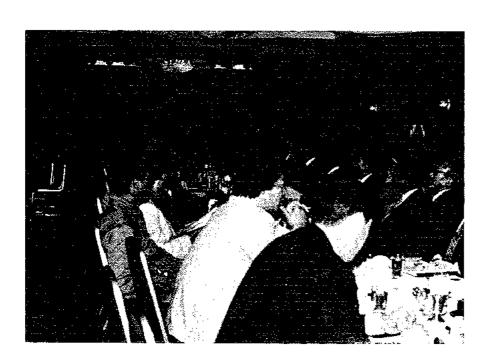
위에서 기술 한 바와같이 창립회원 26명이 20년이 지난 지금 회원 206명으로서 약10배로 중가하였고 도서신고실적규모로 볼 때 1971년에 976,614 제곱미터에서 1984년에는 9,408,775 제곱미터로 10배의 업무신장은 되었으나 현재 회원 1인당 약 48,000제곱미터의 실적은시대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볼 때 성장이나 업무량의 증대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외곽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위치한 관계로 해를 거듭할 수록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회원수는 경기도 지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로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 고통스러울 정도이다. 타지부회원의 저작권침해, 비리건축사, 건축주와의 갈등,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 등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경기도지부 회원들은 성장에 수반되는 아픔으로 알고 협동의식과 지혜로 사회문제가 될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고 모든 내외의 악영향의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회사업의 일환책으로 공사감리점검제도를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을 성장시켰으며 이제는 안전기반을 구축하였고 노고회원의 표창과 감사패등으로 회원의

#### 여대임원현황

순 위	지부장	간	사	감 샤
초 대	심의권	김정수, 이기은, 장원선		정 <del>은 8</del>
2	심의권	김양규, 김정수, 장원선		정 <del>은용</del> , 김남규
3	김 <mark>용</mark> 연	김진두, 김중희, 박성희		이학규, 박준회
4	김일호	김전두, 김중회, 박성희		이학규, 박준희
5	정 <del>은용</del>	조병원, 이병무, 조명호		김기배, 김찬묵
6	정 <del>은용</del>	조병원, 이병무, 조명호		김기배, 김찬 <del>목</del>
7	김일호	조병원, 홍혜남, 문수일	, 조상호, 이종은	고종욱, 이병묵
8	김기배	민병회, 홍행남, 한교선	, 이병묵	_
9	이석구	민병휘, 임 <del>용수</del> , 정환철		_
10	임용수	최원설, 길철균, 최승원	, 이일윤, 황제성	김춘경, 이창원



있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여전속에 단련되는 체력은 강인한 끈기를 키웠으며 또한 서울을 포용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운영을 가지고 있다. 이럴수록 경기도지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임무를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겠으며 특히 복지회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이해와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공동체외식을 높여갈 때 경기도 지부의장레가 밝을 것으로 확신되는 바이다.

사회에서 우리 전축사들이 얼마나 대우를 받고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고 민도의 차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자유업분야 몇종과 비교할 때 자책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도사

의식을 고취시켜 건축문화창달과 지부발 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지부회원의 단합대회와 친목회등 은 회원 결속에 촉진제가 되는 동시 회 원의 경조사에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상부상조합으로써 화합단결 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제일 어려운 점은 본협회에서 영달되는 한정된 소규모의 예산으로 지부살림과 단독 특별사업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의욕을 저하시키기도 하나 회원의 인내와 협조는 발전에 박치를 가해 경기도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축사 품위진작과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통합예산제도가 시행되어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 자체예산제도나 아니면 지부실적의 비례로 자금영달되는 체제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회원의 바램이다.

### 지부의 운영방점포 기소기

경기도지부는 소년기에서 성년이 되는 20세 지금까지 성장과정의 애로의 역정 이 심했고 발전에 무리한 박차와 장애가

###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사무소소재지	전 화
지 부	- 장	이 <del>종은</del>	영신건축설계사무소	광명시 광명동 290-34	612-0223
<u> 구</u> }	사	이일윤	이일윤건축사사무소	수원시 교동 79-5	42 - 4710
간	사	황재성	현대건축설계사무소	부천시 원미동 88-1	62 - 5398
갼	사	길철균	홍익유림합동건축	성남시 태평동 3309-480	2 - 1978
간	샤	김중권	김중권건축사시 <del>무</del> 소	금촌읍 아동리 338	2-2410
감	사	양하섭	양하섭건축설계	안양시 안양동 505 - 8	2-3315
감	사	한광섭	현대건축설계사무소	평택읍 평택리 66-5	2 - 4460
부천분	소장	정환철	정환철건축사사무소	부천시 심곡동 87-11	63 – 1881
광명분	소장	김평선	남양건축설계사무소	광명시 철산동 464-7	612 - 2261
안양분	소장	최재남	삼양건축연구소	안양시 안양동 504 - 3	2-7625
남양주	분소장	윤문혁	성보건축설계사무소	구리읍 수택리 409-285	2-8112
성남분	소장	민병운	대영신한함동건축	성남시 신흥동 5517	42 - 7880
이천분	소장	안의모	연합건축설계사무소	이천읍 창전리 136	2 - 2101
송탄분	소장	우선명	원영건축설계사무소	송탄시 신장동 217	4 - 2282

### ○분**소별 회**원현황

분	仝		별	건축사	2 급건축사	관 할 구 역
지	부	곅	할	28	16	수원, 반월, 용인, 화성
부	천	분	소	23	8	부천, 김포, 강화, 옹진
광	명	분	소	6	-	광명
안	ું	분	소	30	3	안양, 시홍, 과천
의	정 부	분	소	18	9	의정부, 동두천, 앙주, 고양, 파주, 연천,포천
남	양 주	是	소	10	3	남양주, 양평, 가평
성	남	분	소	21	7	성남, 광주
0]	천	분	소	6	1	이천, 여주
*	탄	분	소	13	8	송탄, 평택, 안성

실이다. 물론, 극소수 회원이라고 하지 만 앞으로는 윤리관의 확립을 위해 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량한 회 원은 보호하고 비위회원에 대하여는 강 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86·88올림픽이 펼쳐진 국가적 사업에 뒤짐이 없는 전문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ㅇ기타주요업무및 사업실적

- 1) 경기조찬회를 통한 대외관련업<del>무증</del> 지
- 2) 건축행정에 관한 대관청과의 분소 별 순회 간담회 실시
- 3) 시민을 대상으로한 건축행정상 상 담실 운영
  - 4) 건축조례집 발간등 기타 건축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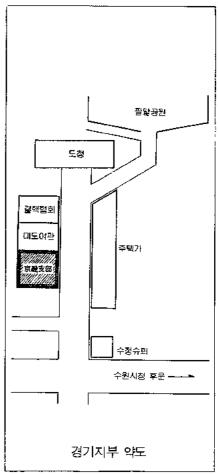


- 5) 전국에서 최초로 감리단 구성운영
- 6) 보조원 관리를 위한 기록카드 작성관리
- 7) 도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도서검 토재심시 .
- 8) 자매결연학교 보조금 및 장학금 지급
- 9) 연말년시 <del>국군</del>장병위문및 불우이 웃돕기 실시
  - 10) 자연보호 운동 실시
  - 11) 건축사보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12) 회원 천목을 위한 단합대회 개최
  - 13) 회원사무소 실태조사 실시
  - 14)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 15) 방위성급및 전국 체육대회 성금전 달



○년도豐 회원 현황 및 설계도서 신고현황

연 도 별	회 원 수	도서신고실적(제곱미터)
1965	26	
1970	50	
1971	68	976, 614
1972	75	1, 064, 075
1973	81	2, 389, 632
1974	89	2, 236, 438
1975	97	2, 429, 761
1976	106	3, 138, 464
1977	132	4, 048, 616
1978	147	8, 134, 350
1979	<b>16</b> 6	6, 848, 178
1980	189	5, 642, 675
1981	150	4, 351, 154
1982	156	4, 731, 344
1983	161	8, 219, 276
1984	196	9, 408, 775



###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해





건설부 공고 제14호의 건축사법 시행 령 개정령에 대한 공문을 늦게나마 접하 고나서 평소 느꼈왔던 점을 적어볼까 한 다.

개정안중 제25조·26조에는 종합건축 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일정규모 이상 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일정수 이 상의 책임건축사를 지정토록하여 당해 책임건축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한 다'라고 되어 있다.

이 안을 보고나서 과연 우리나라 건축 사들의 능력이 이럴정도로 없나하는 의 구심을 갖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사 들에 대한 행정담당자들의 불신감에 불 쾌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그 취지가 무엇이 건 간에 건축사법의 '건축사의 정의'와 도 상반되는 그야말로 모순된 내용을 담 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에 앞서 건축사법 제2조1호와 3호의 건축사의 정의에 의하면 '건축사 란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건축설계시에는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자'로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설계한 당해 건축사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그 책임을 마치 당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릇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책임이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질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케 했다면 그 책임 은 당연히 담당 의사에게 있는 것이지 동 료 의사가 대신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면에 서 볼때 개정안 25조·26조의 내용에서 연대책임건축사 지정의 의무화는 母法인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의 책임설계의 정의 를 무색케하는 쫓이 아닌가 한다.

물론 개정안이 연대책임건축사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취지로서 건축물의 하자 발생시 건축사의 재정적인 책임분담의 축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 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 이라 생각된다.

한가지 너 이해가 안가는 점은 개정안에 또 나온 것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건축사의 인원수와 무슨 연관 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건축사라 하면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전 문지식과 자질을 국가로 부터 인정을 받 아 건축업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물의 규모(일 반적으로 충수와 연면적)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혼자서는 대규모의 건축물은 설계할 수 없고 여럿이서만 설계가 가능 하다는 논법은 건설업자들에 대한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정부가 구조안전의 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건축사의 자격요건에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던지, 또는 중전처럼 건축물의 규모별로 건축사의 자격기준등급(1급·2급)을 나누던지, 아니면 구조·설비·시공·기계기술사 등의자격을 갖춘자들의 의무적인 협조를 받게하는 방법이 더 타당한 일아아닐런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건축사에게 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고 단지, 단독·종합사무소의 등록과정에서 건축사의 인원수에 의한 설계업무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단독으로 하고자하는 건축사에게 작

품의 표현의 기회를 없애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줄로 안다.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기의 개성을 살려 활동하고자 하는 건축사가 정부가 제한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이외의 또 다른 건축사를 찾아야만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전축사의 개성과 창작의지를 찾는다는 것은 메우 힘든 일 이라 생각한다.

또한 종합사무소란 명칭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무소의 등록과정에서 건축분야 외에 다른 여러 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건축사 2인 이상의 합동의 의미는 아니라고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상이나 그 밖의 형편상 단독으로 사무소를 개업하기 어려운 건축사들에게 합동으로 개업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건축사란 훌륭한 엔지니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술적 소질을 가진 건축 예술의 창조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건축사의 단독·종합의 구 분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업무규모를 제 한하는 것은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무한 한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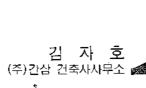
때문에 단독 건축사의 제한없는 건축 표현의 기회 여와 성장하는 건축후학들 의 희망을 키워주는 측면에서라도 이 문 제를 당국이 다시 검토해봤으면 한다.

아뭏튼 건축사의 업무에 있어서 건축 물의 규모 또는 사무소의 단독·종합의 등록에 의한 업무의 제한이라던가 책임 건축사의 별도 지정 등은 선진화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하 나의 장해요인이라 생각하며 건축사법의 정의와도 상반된다라는 것이 나의 외견 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름다운 도시와 훌륭한 건축예술물의 창조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자를 건축사시험에 합격시킬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동등한 자격 상태에 서 국가가 널리 작품을 공모할 기회를 중으로써 작품의 경합에 의한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반대로 건축사의 활동을 건축 물의 규모나 건축사의 인원수에 제한한 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본다.

### 「작품과 상품」



세상 사람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 나 똑같은 것 같으며, 상대방에게 그 기 대하는 마음이 어긋나게 되면 느끼는 감 정 또한 모두 같다는 평범한 진리가 요 즈음 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오래전의 일이다. 외국에서 한창 문불 가리지 않고 자기도취에 만족하여 일하 며 지내고 있을 때인데, 어느날 건축주 로부터 설계률 의뢰(물론 회사에서)받고 는 외미깊은 이야기를 듣고 무심코 흘려 보냈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 요즈음에 와서는 과연 그때 그 이야기들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설계 Project의 내용인축 어느 지역의 mansion계획이었다. 그 때는 솔직히 젊은 기분에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아니 좀더 별다른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열심히 자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는 이상야릇한(?)「작품」!!을 만 들어가지고 건축주에게 입에 집을 발라 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설명을 다 듣고 난 건축주 왈, 「많은 공부를 하셨 읍니다. 설명내용은 잘 알아들었는데,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순 당황하였다. 내 딴에는 열심히,무 엇인가 좋은, 값어치 있는 작품을 만돌 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방 건축주가 기대하였던 것은 보다 좋은 「상품」이었 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는 엉뚱한 대 답만 열심히 하였다.

다시 건축주 왈, 「이 project의 사업 은 나로서는 중대한 Bussiness이고,또한 이 mansion을 사려고 하는 입주자는 전 생애에 한두번 장만 할 수 있을까말까 하 는 거금을 만들어 최고액의 도박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만큼 가치있는 좋은 상 품을 원할 것인즉……」 뒤돌아 오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다.

이야기를 대략 생략하고 여하는 만족할 만큼의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mansion의 판매가 시작되어, 추첨일에 설계자가 입화하도록 되어 있었다.

입주자의 추첨이 끝나고 당첨자는 기분이 좋아 분양수속을 하느라고 정신없었으나, 당첨이 안된 추첨자 역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알고보니 현관에서 그 회사 직원이 이번 추첨에는 애석하게도 당첨이 안되었으나다음 기회에 다시 이 회사를 찾아주면 감사하겠다는 인사와 더불어, 조촐한 참가선물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아! 설계자가 설계만 잘해서 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여 준공시기가 다가오니 준 공검사가 무려 5번을 거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1) 시공회사 자체 준공검사 2) 설계감리자의 준공검사 3) 건축주의 준 공검사 4) 대관청의 준공검사 5) 입주 자 준공검사. -

「작품에서 상품까지」

항상 좁은 소견에서 설계에 임할 때는 건축주를 외식하기보다 자기만족에 즐기 는 작품행위를 하다보면 가끔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돌이킬 수 없는 신용 상실과 심지어는 불신마저 초래하니, 요즈음에 는 완벽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작품에서 이어지는 상품까지를 만들어 주어야만 소기의 성과가 있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단 하나 있는 것 같다.

좋은 작품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정확하고 빈틈없는 기획이 세워져야만 모든 진행이 문제점없이 시행되는데,이 기획사항을 건축주가 항상 무시하거나 계을리하거나 계획없는 건축주,쉬운 말로 풀어서 「무식한 건축주」를 상대할 때에는 건축가의 업무한계는 건축사업무보수기준에 나열되어 있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해 주어야만 하며,수행을 제대로 못하면(그나마의 설계비조차안 주려고 하니)무엇인가 잘 못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요즈음의 건축주는 적은 작품비(수고 비)를 지불하고는 몇 배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를 하고 책임까지 전가하려는, 거꾸로 자기만족의 태도를 취하려는 건축주가 간간이 출현하는 것 을 대할 때에는 「작품」을 만들어 내려는,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 내려는 건축가 가 어떠한 위치에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중심을 못잡 을 때가 왕왕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 즈음 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새롭게 느껴 지는 것은, 좋은 「작품에서 상품까지」를 기획하려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사 항을 건축가가 책임지어주는 Turn Key 설계(기획에서 감리, 관리까지)를 하여 야만 하고, 이에 응당하는 충분한 댓가 를 요구하는 것이어야만 「작품」과 「상품」 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곤 한다.

자기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답을 찾는다는 것은, 머리가 회어지어 숟가락을 못 들게 되는 순간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충실하여야 만 좋은 작품과 상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중이다.

## EXPO'85 한국관을 통한 전시공간의 연출

한 도 룡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인타 디자인연구소 대표

#### 전시의 개념

전시는 주의를 끌기 위해 보내는 쪽과 받는쪽 사이의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전 달하는 수단으로서, 보이는 행위(Behavior of Showing)를 의미한다. 즉, 보여 줄 배체를 공간에 전개하고, 구성배치하 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술로 공간에 위 치하는 모든 것의 구성과 연출을 통해, 강력한 테마나 이미지를 사람의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전시는 장소나 전시목적에 따라 전시의 기술과 연출이 다양하다.일반적인 전시의 분류는 의전과 쇼(Show), 전시(exhibition), 박물관(museum), 파노라마(panorama), 쇼-윈도(Show window), 쇼-케이스(Show case), 쇼-룸(Show rosm), 상점디스플레이(display), P.O.P, 싸인보드(Sign board) 및 기타전시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전시가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시의 목적이 전달되기 위 해서는 전시의 대상과, 전시장, 전시기 법의 3요소가 잘 조화됨으로써 전시의 목적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시내용과 전시물등이, 전시공간에서 부수적 요인들과 함께 어떠한 전시 방법으로 연출되느냐에 따라 그 전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전시공간의 연출

전시공간은 전시의 대상물이 관객과 만나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며, 전시를 위한 기능적 공간으로 이 공간을 목적에 따라 조형적 형태의 전시 공간으로 시각화하고, 효과향상을 위해 인간의 전감각에 대응하는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공간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구성 연출하여야 한다.

전시공간은 실외환경시설과 같은 외부 공간과 실내의 내부공간으로 크게 나누 어지나, 主전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내 부공간이 곧 전시공간이 된다고 할수있 다. 여기에 전시공간의 바닥, 벽, 천정은 전시매체의 효과와 깊게 연관되어 연출 되어야 한다.

바닥은 평면계획상 관람객과 전시물의

접근성을 위해 유도및 단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갖도록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시각적 조형형태 뿐아닌, 전시효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관람객의 시선을 모으고, 머무르게 하 는 벽은 전시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전시공간의 내벽은 전시물의 부착등의 용도로 쓰인다. 그러나 전시 공간에서 독립되는 벽면으로서, 이동한 막이 벽은 다양한 평면구성과 함께,입체 적 구성방법이 용이하여 전시내용에 따른 공간의 大·小를 구분지울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천정은 건축의 모든 부대시설을 은폐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나, 전시공간에서는 채광창및 천창으로 되며, 루버나 유리등의 이용으로 전시공간의 및 연출을하기도 한다. 또한 달아매기나 이동전시의 상부기능을 맡아 폭넓게 사용되기도한다.

이밖에 공간의 연출을 보조해 주는 조명·색채, 음향등은 부가적 요소가 아닌, 전시매체와 일체화하여 이들이 전시연출 과 실내분위기를 한층 더 조화시키도록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전시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방법은 직접적인 연출로 전사물과 관람객 사이에서 여러가지 연출방법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그 전시방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는 전시매제를 중심으로 평면적 입체적 공간적연출과 영상이나음향의 특수기법을 통한 주제의 종합적 프로그램 전시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천정·마루·벽을 통한 2차원전시, 진열대를 이용한 3차원전시 공연 등의 동적인 4차원전시 연출등을 들 수 있다.

2 차원적 전시연출에서 벽면은 직립한 시각상, 직시적인 입장에 있고, 대체로 전면방향으로 전개됨이 기초이다. 즉, 전 시공간에 있어 시선의 방향성과 배경효 과로 또는 전시물의 지지구조등의 역할 이 되는 것이다. 이떄 배경적인 벽면은 전시물의 부각을 위해 중성화 시키고 단 순한 형상과 색체의 제한, 시각적 혼란을 배제하기 위한 질감의 Contrast를 없애 도록 한다. 그러나 벽면이 主가될 때는 일부벽 또는 독립벽을 심불화하거나 그 래픽처리및 사진판넬과 영상스크린등의 매체로 표현 연출할 수 있다.

바닥을 이용한 전시는 바닥에 놓거나, 불이기, 선큰된 바닥면이나 경사된 바닥 면등의 전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공간 적으로 시각화될 조건에 따라 어느쪽에 서 보아도 통일된 구성이 요구된다.

천정전시는 천정면 자체가 전시면이 되는 경우와 전시물을 부착하므로서 동 적인 느낌의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다.

입체적 매체가 벽면을 떠나 전시되는 3 차원전시는 아일랜드전시, 하모니카전 시, 디오라마전시, 파노라마전시등이 있 으며, 시각적으로 사방에서 개방되어야 하며, 전체 전시공간의 동선체계에 의한 배치와 현장감에 충실한 전시 연출이다. 또한 전시내용이 입체물을 중심으로 할 때 공간적인 전시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아일랜드식 전시는 관람객의 의도적 동선계획이 필요하며, 하모나카식 전시 는 이들의 전시물이 통일된 형식속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도록 연출하는 방법 으로 모듈화 개념이 필요하다.

디오라마식 전시는 전시물의 업체감과 환경감을 현장성에 충실하도록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하나의 사실이 주제의 시 간적 상황을 고정시켜 연출하는 방법이 다

파노라마시 전시는 線形으로 연속적 주제를 연관성 깊게 표현하기 위해 전시 방법이 全景으로 펼쳐지는 연출 방법이 다

4차원전시는 좀더 전시내용과 이미지 전달을 높이고, 심충적으로 확대하여 전 달할 수 있는 특수전시방법으로 건축적 공간요건이 요망된다. 즉,영상전시로 멀 티스크린(Multi Screen)이나, 서클비젼 (Circle Vision), 아이맥스(IMAX), 음니 맥스(Omnimax)등의 방법이 있으며, 전시 공간의 동적인 연출로 매체를 중심으로 기계적방법으로 순환관람하는 방법으로 객석이 회전되고, 전시무대가 고정되거나, 객석이 고정되고 전시무대가 회전되 는 업체적이며, 동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방법과, 고정된 報道의 체계속에서 공간, 적으로 전시된 내용물을 관람객이 이동 하며 전달되는 방법등이 있다.

### EXPO'85 한국관 전시

#### ■ 계획 의의

EXPO'85 쪼꾸바 세계박람회는 근대 올림픽과 같은 1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 난 대규모 국제 교류 문화행사로 그 시 대의 국가적 이벤트나 기술사상의 귀중 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전시행사로 세 계각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척도를 국 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그 시대의 새로운 코뮤니티를 전달하는 종 합예술로 고도의 전시연출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 ■ 계획의 개요

O박람희명: '85 쯔꾸바 세계박람회 (국제 과학기술 박람회) (The International Exposition Tsukuba, Japan, 1985)

○개최기관: '85. 3, 17-9. 16.

○장 소:일본 쯔꾸바

○주 최:국제 파학기술 박람회 협 회

○회장규모 : 약 30만평

○주요참가국: 미국, 소련, 중공, 한국, 영국, 서독등 46개국과 E. C등 37개



EXPO'85쪼꾸비 한국관입구

국제기관및 28개 일본의 민간기업.

#### 翻 계획의 조건

### 1. 배경조건

○박람회장은 전체 6개블럭(A~F)으로 나누어지며, 한국관은 G블럭에 속한다.

### 2. 한국판 건축조건

○구조: 철골 P. C 구조

○실내건축면적: 1883.37M²

• 주제관 : 396. 5M², • 산업관 :

431.52M² • 영상관및 직매, 식당:

889. 85M² • 자무실: 165. 5M²

#### 3. 박람회 주제

○인간・거주・환경과 과학기술(Dwellings and Surroundings Science and Technology for Man at Home) 인간・거주・환경과 과학기술의 관

계에 있어서 그 역사를 추구하며, 미

② 안내및 한국의 4계절③ 한국5000년 파노라마

래의 발전을 전망하고, 인류에게 있 어 바람직한 거주와 환경의 미래상 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한국관 연출및 전시계획

### 1. 참가주제

○성장발전하는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전달하며, 개최목적과 주제에 부합 되는 의미로써

「과거를 간직하며, 미래를 향한 한 국(Looking To The Future While The Cherishing The Fast)」을 주제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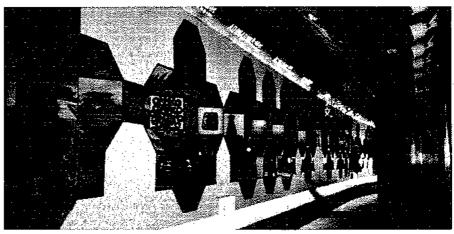
### 2. 전시드라마및 구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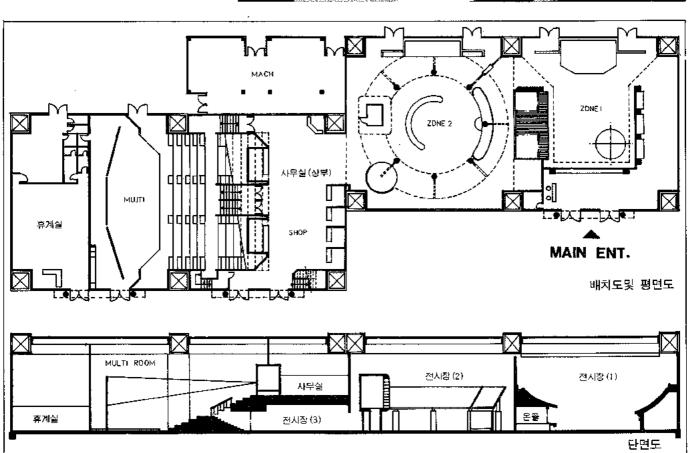
○각 Zone別 테마를 부여한다.

### 가. 주제관(Zon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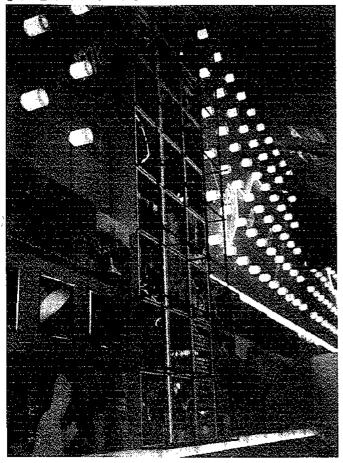
- 중정형 구조
- 한국의 창조문화-
  - ㆍ 창조문화 소개
  - · 한국전통 과학기술소개
  - 한국의 전통주거양식 소개
- 나, 산업관(Zon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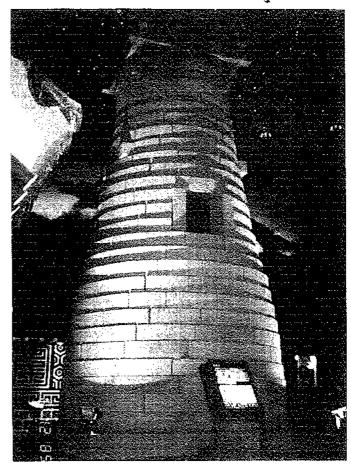






찬성관의 산업경제코너축제관의 테마상징물 점성대





- 원형공간 구조
- 오늘의 한국-
  - · 첨단산업기술 개발외지 표현
  - · 복지사회 환경 제시
  - · 의저의 한국인 모습 소개
  - · '88올림픽 소개
- ) 다. 다면영상관(Zone 3)
  - 擬場型 구조
  - 한국의 새로운 시각-
    - ㆍ 多面영상 소개
    - · 관광코너및 직애장코너
    - · 사무실
- 3. 전시공간및 동선계획
  - ○전시공간 구성은 크게 직선형 회랑 공간+정형공간+파노라마공간의 반 복으로 다양하고 드라마틱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 ○전시內의 관람동선은 입구와출구의 독립과 함께, 동선이 전합으로부터 확산시키는 형식으로 연결하여 인동 의 군집으로 인한 정체를 피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유동성을 연출하

였다.

### 4. Dis Play 계획

○전시기본방향

전시는 상징성, 연출성, 관리성, 홍보 성외 측면에서 다음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였다.

- i) 상징성: 전시주제 및 내용의 차별 적 상승효과를 위해 상징물과, 아이덴티 디및 ATTRACTION 화 하였다.
- ii) 연출성: 연출공간 및 동선의 연속 적 위계화와 색채·조명·음향및 영상관리 를 시뮤레이션화 하였다.
- iii) 관리성: 계획, 예산, 시공, 수송 외 코드화로 전시계획관리 및 운영관리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 ○전시방법 및 척도

각 관별 전시벽면의 전시방법 및 척도로서, 시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내높이 9.6m 이상에는 건축의 모든 부대설비를 매립하며, 5.1m~6m 높이에 관별의 주제를 입체적 표현및 벽면전시를 하며, 4.2m~5.1m 높이에 상징적 내용을 더오

라마전시로 표현하고, 0.9m~2.4m 높이에는 관의 세부내용및 주제별 전시품을 연출하였다.

가, 진입유도 계획

OForecourt 부분에는 랜드마크인 혼 천의를 설치, 관람객의 시각적유도를 계 휙하였다.

○출입구에는 한국고유의 공포를 부착하고 양쪽대문에 동양철학과 음향의 기본인 태국삼파선으로 한국적 이미지를부각시켜 초대와 환영의 표현을 하였다.

나, 주제관 연출계획

- (1) 전시내용
- ○테마 상징물-첨성대
- ○초대의 표현
- ○창조문화의 표현
- ○주거·환경의 표현
  - (2) 전시방법

○한국고유의 가옥형태인 중정구조를 채택하여 직선형인 4.5m 폭의 회랑공간 과 사방 10m의 한국적 중정공간으로 경 적인 공간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입구 전면의 전시벽에는 한국고유의 완자창과 함께 한국의 四季를 표현하며, 상부 천정은 서까래 형태의 구조로 여기 에 청사초롱과 풍경의 매달리어 풍경소 리가 음향으로 처리된다.

○출입구 양쪽벽은 전통담장을 연출.

○회량형복도 좌측벽면에는 한국5,000 년 역사의 뿌리깊은 창조문화를 시대별 로 사전과 모형과 함께 8 각형의 디자인 표현으로 파노라마전시로 연출을 시키며, 우측벽면에 고유의상의 실물전시를 벽면 돌출형식으로 연출시켰다.

○중정공간은 기와지붕이 1.8m 높이 의 담장상부에서 5.4m 정도까지 경사면 으로 처리되고 공간양축 벽면에 산수도, 중앙벽면에 월출광경이 간접조명으로 연 출되고, 담장위에 까치모형을 놓아 새소 리를 음항으로 처리하며,

○중정 중앙부에 한국고대 천문학의 표현으로 7m 높이의 태마상정물인 첨성 대를 설치하고, 상부인 천정에 천상열차분야지도 판넬을 부착, 공간의 우주적 디오라마연출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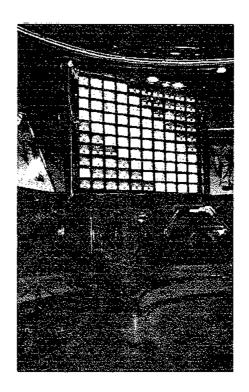
○중정에는 전통 공예품의 진열과, 한 국 전통의 주거양식인 한옥의 한국적 정 취느낌을 주는 구조와 내부를 연출시키 고, 신라시대의 궁정인 안압지와 동궁모 형을 전시, 고대한국의 주거환경과 건축 기술을 소개 함으로써 한국인의 예술성 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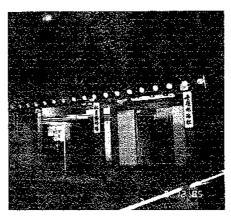
○바닥은 마루판마감과 중정부분의 화 강석을 사용하며, 브라운계통의 색채와 간접조명은 전시품의 성격에 맞아 은은 한 정적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다. 산업관 연출계획

- (1) 전시내용
- ○테마 상장물-인간의 두뇌
- ○서울의 발전상 표현
- ○첨단 과학기술 제시
- ○한국인의 미래지향적 개발의지표현
- ○'88올림픽 소개
  - (2) 전시방법

○주제관과는 대비적으로 단순 명쾌한 현대적 느낌의 공간구성으로 원형통로를 통한 관람객이 다시 확산되는 원형공간 구조를 연출하여, 액티브한 현대 한국인





② 산업관의 100대 멀티비젼 ③ 한국전통의 추거양식 한옥

의 의지 모습을 공간 분위기에서 느낄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임구 좌축 정면에 오늘의 한국과 서울의 전경을 소개하며, 그 윗부분에 산업경제발전상이 사진및 데이타, VTR 로소개

○우측에는 한국의 중공업에 대한 한 국인의 개발의지와 모습을 C/P, C/T로 전시하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모형 및 실물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원형공간과 함께 원형천정 Frame 을 설치하며, 이로써 전시면적의 확대감 과, 올림픽 스타디움의 분위기를 연출하 여, 차기 올림픽 개최를 외미하도록 하 였다

○원형띠에는 한국인의 미래지향적 의 지를 일러스트로 처리하였고, 천정면은 거울을 부착하며,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한국인의 두뇌를 네온점멸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원형띠 주위공간은 100 대 TV-Multi 로 관객을 유도하며, 공간을 관람장소로 이용하도록 계획하여 더욱 동적인 공간 으로 연출한다.

○출구코너에는 올림픽 코너를 마련하여 '88올림픽의 내용과 스타디움의 모형이 소개된다.

○산업관과 '88을림픽코너는 청색을 주 조색으로 사용하여, 전시품이 돋보이고, 직접조명으로 전시장을 밝게 처리하여, 동적인 공간 느낌을 더욱 크게 느끼도록 계획하였다.

라. 다면영상관 계획

- (1) 전시내용
- ○한국의 새로운 메세지
- ○3면 Movie
- ○관광코너및 작매장, 식당
- ○시무실
  - (2) 전시방법

○ 광장형의 공간연출로 다면영상판으로 통하는 대기공간에 관광안내 코스와 기념품및 한국전통 공예품을 직매하는 장 소를 계획하였다.

○다면영상실은 3면 Screen의 직선 형 화면과 무대및 판람석으로 공간구성 을 연출하였다.

○다면영상관의 주조색은 감청색으로 산업관과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상의 전시 세부연출 계획은 주제 관의 정적인, 한국적 아이탠티티 분위기에서 산업관의 동적인 분위기로, 여기에다시 영상관의 입체적 연출계획은 全전시관의 리드미컬한 조화를 조성시키며, 전시방법에서도, 全관이 천정과 마루, 벽면 전시인 2차원 전시와, 진열장, 전시대를 사용한 3차원 전시, 공연과 동적전시인 4차원 전시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시공간의 다양하고, 드라마적인 분위기가 표현되도록 계획하였다. \*



### 도심재개발복합건물 신축유도 -- 서울시, 사무실공급축소방안마련 --

도심재개발사업승인시 사무실 전문빌 당의 건축허가를 억제하고 대신 사무실 과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건물신축 올 유도하는것 등을 내용으로한 사무실 공급축소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안은 주거용과 판매, 위락시설이 같은 건물에 들어설 경우 지난 83년말현재 기존업소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복합건물이 허가되던것을 앞으로는 기존업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개발지역에서는 자유로운 복합건물신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이조치는 상업지역에 한해 100가 구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을때 까다로운절 차를 거쳐야하는 사업승인절차에서 제외 시켜주던 것을 재개받지역까지 확대하기 로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 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개정을 건설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건립된 일부복합건 물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 ·대형아파트를 건립함으로써 수요자가 없 었기때문이라고 지적, 앞으로 건립되는 도심재개발지역내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집중건설키 로 했다.

### 전남지부 회원직품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지부장 趙春元) 에서는 지부 창립이래 최초로 '85 전남건축 사회원 작품전을 개최한다.

85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에 걸쳐 남도예술회관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한국건축가협회 전남자부대한건축학회 전남지부가 훈원 하고 있다.

이 작품전에 출품된 작품은 85년 3월말까지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남지부 산하회원이 1작품씩 의무적으로 출 품하여 마련하였는데 「'85전남건축사회원식 품정」도 발간한다.

### 제 4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전 축대전(I985년도) 작품공모 및 전시회를 대 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문화예술진 홍원 후원으로 개최한다.

초대전 작품접수기간은 1985, 11, 21일 까지이며, 일반공모전은 1985, 5, 1일부터 원석교부를 시작하여 작품접수기간은 1985년 11월20일 까자이며 접수사간은 각10:00~18:00사이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원서를 교부하며 국 립현대미술관(서관)에서 작품젂수 및 전시 를 한다.

출품 자격 및 대상은 대한민국국민이며 응 모작품은 건축 및 도사설계에 관한 창작품 (구조, 실내디자인, 조경, 가구등 건축 도시설 계에 관계되는 작품을 포함) 이어야 하며 동 일작품에 대하여 작가의 명의는 3인을 초 과 할 수 없다.

작품 규격은 가로가 240 cm 셰로가 180 cm 이내 이어야 하며 설계도 및 투시도와 간략 한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모형 은 출품자 임의)

심사결과 발표는 1985년 11.22일에 하며 시상은(일반공모자에 한함)대상1점, 우수상 3접(한국건축가협회장 상, 대한건축사협회장 상, 대한건축학회장 상 각1점)가작은 약간명 이며 대상 수상자는 해외 연수 특전으로 일 금 삼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사무 국에 문의하기 바람.

### 제2회「꾸밈」건축평론상 수상작 공모

종합디자인 전문지「꾸밈」에서는 건축평론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꾸밈건축평론상을 제정, 공모를 거쳐 1회 수상작을 지난「꾸밈」지 50호에 게재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사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이제 제2회수상작을 공모함.

- ■주제: 작가론 또는 작품론(대상작가 및 작품은 제한없음)
- 國응모자격: 기성건축인을 비롯, 건축을 연구하는 샤람이면 누구나 응모할수 있음.
- ■분량: 200차 원고지 80매 내외(사진,도 면, 그림 등 자료는 별도)

- ■응모마감 : 1985년 8월 17일 오후6시
- ■제출처:서울 종로구 동숭동 1-14I 토 탈디자인빌딩 꾸밈편집부
- 시상

당선작 1점(상패 및 부상 50만원) 우수작 1점(상패 및 부상 30만원) 가작 2점(상패 및 부상 각 10만원)

- ■심사위원 : 사계의 권위자로 위촉하며 수상작과 함께 발표함
- ■수상작발표: 1985년 10월 "꾸밈"56호지 상(그에 앞서 9월중 개별통지)
- 圖기타:
  - (1) 응모작은 미발표된 새로운 것이어야 한.
  - (2)수상작은 모두 "꾸몀"에 게재함
  - (3)수상작 외에도 입선작 수점을 선정 하여 입선자에게는 "꾸밈"정기 구독 자 자격부여
  - (4)원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국어는 필요한 경우에만 팔호 속에 넣을 것
  - (5)제출원고와는 별도로 원고의 내용 요 약(원고지 10배 내외)및 자기소개서 를 첨부할 것(연락처 명기)
  - (6)접수된 원고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7)저작권은 "꾸밈"게재후 2년간본사에 서 보유하고 그후에는 될자에게귀속

### 고층빌딩국제회의파견

세계고충빌딩협회에서는 제3차국제회의률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O주제: Second Century of the sky scraper
- ○일자: 1986. 1.6~1.10
- ○장소 : 미국 시카고 하이얏트 호텔
- ○기타:고충빌딩 작품전도 동시에 개최 예정
- ○문의처: Coancil on Tall Buildings & Urban Habit Leigh University

Bethlehem, Penn, 18015. U. S. A ○한국연락처 : 김 원교수 서울시립대학도 시계획학과

(전화)244-0067~69 Prof, Won, Kim Seoul City University Seoul Korea.



### 토탈 디자인으로서의 OFFICE LANDSCAPE

윤 오 석 토탈디자인이사 토탈 디자인이란 오늘날의 모든 디자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이다. 즉,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고 일반인 들 누구나 공감하고 있듯이 오늘의 시대 는 과학 기술문명에 의해 풍요와 편리성 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 와 소외를 절감하게 되는 시대이기도 하 다.

과거 오랫동안 디자인은 합리성만 추구해 오다 보니 너무 전문화되어 왔고 생활의 전체를 생각하는 데는 소홀했다. 만약 디자인이 기능만을 중시하며 과학, 기술 문명에만 집착할 때 인간은 그 디자인을 향유하면서도 만족을 느끼지못하게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따뜻한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오늘날의 디자인 문제는 이러한 측면을 융합하는 것, 즉 기술적인 수단에 의해서 인간에게 유기적으로 조화하는 생물

학적으로 완전한 디자인을 청출하려는 의도가 바로 토탈디자인의 근원이다. 달리 말해서 자연환경이 피폐해기는 것을 막고 삭막해진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 것을 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변의 일용잡학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작각 전문덕이면서도 인간의 생활이라는 전체를 생각하는 토탈 디자인의 기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환경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및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적 시각 커뮤니케이션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토탈 디자인의 개념에 의한 사무실 계획의 방법으로

OFFICE LANDSCAPE 란 무엇인가? 어느 업체나 어떤 형태이든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사무실이란 무엇인 가? 시무실은 3차산업인 관리와 섭외 를 위한 장소로서 여기에 집적되고 유통 되는 정보는 새로운 일을 잉태시키고 구 현시키게 된다. 즉, 사무실은 기업의 중 심부어며 미래지향적인 작전 쎈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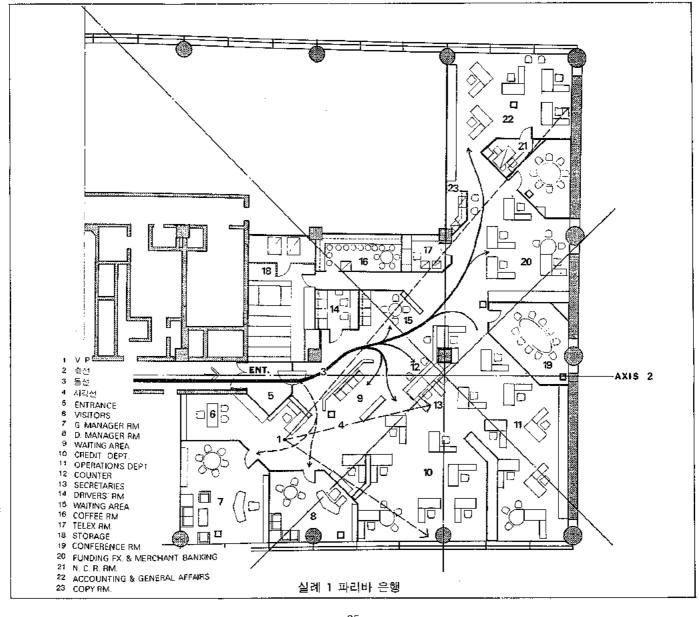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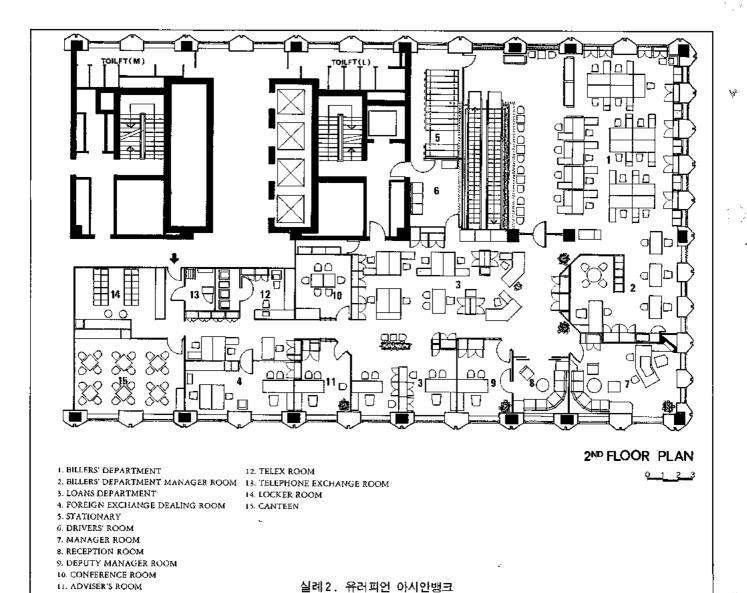
운 양상과 정세에 대응하여 기업은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처해있다. 이를 위해 사무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고 사무실의기능성을 높여 수집되고 산출된 데이터 및 서류를 필요에 따라 즉시 선택,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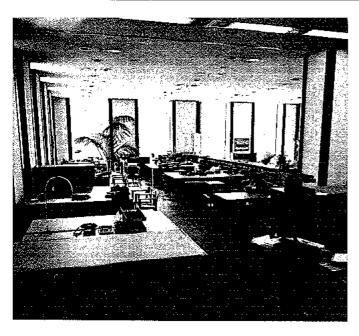
하고 이를 원할히 보관, 관리하지 않으 면 비지니스에서 앞서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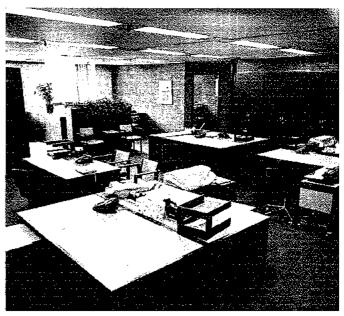
경영이 고도화됨에 따라 업무는 전문화, 분업화되어 사무처리의 집중화와 기계화가 지속되면서 조직과 인간과의 직무분활, 책임과 권한, 적성배치, 훈련, 그리고 인간관계가 부단히 변해간다. 따라서 이에 적응하는 사무환경이 요구되며 단순히 공간을 할애하여 사무집기를 배치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좀더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소외된 자연을 가까이하고 좀더 인간 적이며 자연스러운 사무환경, 즉, 인위적 인 사항인 집기의 개선, 또는 색체에 의한 공간의 변화, 기하학적인 사무집기의 배치 및 자연스러운 인간성 도입, 푸르른 자연을 실내에 도입함으로써 인공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지금까지의 단순한 집무공간으로서의 공간효율만을 중시한 사무실 레이아웃보다 창조적이며 사고적인 작업장으로서 인간성, 예술성의 우선을 주장하는다원적 사무실 레이아웃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천 속에최근 제창되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란 조원을 한 사무실이라는뜻으로,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사무실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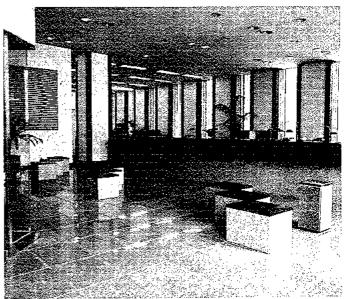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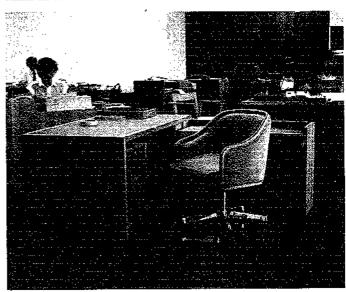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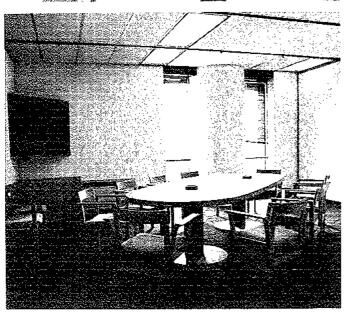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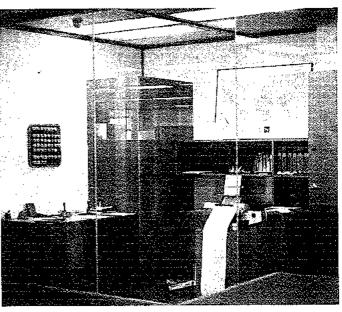












### 建築文化



安秉煜 崇田大教授

動과 靜은 存在의 兩極이다. 동의 예술의 極致는 舞踊이요, 정의예술의 극치는 건축이다.

훌륭한 건축물을 보는 것은 가장 순수 한 기쁨이다. 二十여년전 뉴욕에서 하 늘을 찌르는 엠파이아스테이트빌딩을 처 음 보았을 때 넋을 잃고 '와'하고 감탄 사를 질렀다. 로마에서 콜로슘의 古色蒼 然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테네의 아크로 폴리스에서 파르테농의 우람한 대리석의 기둥을 만졌을 때, 빠리의 에펠탑에 용 라가서 눈아래 푸른 쎄느강을 내려다 보 았을 때, 이스탄불에서 우람한 聖殿을 처다보았을 때, 말할수 없는 감동과 蔽 喜를 느꼈다. 그런 예를 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건축예술품 이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을 느꼈다.요즘 서울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새로운 기 쁨을 느낀다.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좋은 건물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 다.

나는 崇田大에 강의를 나가야 하기 때 문에 一주일에 세번 한강을 건느면서 新 東亞의 63층 건물을 유심히 바라본다. 햇빛관계로 印象이 볼때마다 약간씩 달 라진다. 보면볼수록 흐뭇함을 느낀다. 천 하의 壯觀이다. 國祭상사의 빌딩을 볼때 에도 마음이 즐겁다. 서양의 城廟을 연 상케 하는 그 건물은 하나의 새로운 建 築美다. 중앙 플라자를 바라볼때에도 마 음이 기쁘다. 부드러운 곡선과 가라앉은 빛갈이 마음에 든다. 나는 강연관계로 자주 龍仁自然農園에 간다. 湖岩美術館 의 古典的인 한국건축미를 나는 무척 좋 아한다. 한국건물도 참으로 멋이 있구나 하고 느낀다. 국민학교 5학년때 서울수 학여행에 와서 慶會樓의 장엄한 아름다 움에 넋을 잃고 감탄했던 일이 있다. 요 좀 한강이 개발되면서 여러 다리가 多彩 多様한 個性美를 발휘하고 있다.이것도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미다.藝術 의 생명은 個性에 있다. 개성속에 미가 있다. 衣食이 족해야만 멋과 미와 낭만 을 찾게 된다. 국력이 신장하는만큼 좋 은 건물이 자꾸 탄생한다.

서울역앞에 선 大字빌딩이서울에서 처음으로 赤褐色의 옷을 입었다. 그전에는 건물들이 회거나 회색이 많았다. 그후부터 밝은 빛의 건물이 많이 서기 시작했다. 신라호텔도 그렇고, 그밖에도 여럿이 있다. 밝고 붉은 따스한 인상을 준다. 희색빛이나 검은빛의 건물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일컫는 忠武시는 건물들이 거의 백색이다. 푸른바다와 대조를 이루어 참으로 보기 좋다.

나는 円形건물을 좋아한다. 重用的機能主義나 건축비의 견지에서는 원형건물은 좋지 않을론지 모른다. 그러나 미의견지에서 보면, 각의 건물보다도 원의건물이 보기 좋다. 각은 딱딱한 인상을 주고, 원은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여인들이 예쁜 것은 남자보다 원의 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중앙프라자 건물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원형건물을 많이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요 바램이다. 일제때의 건물이지만, 平壤의 西門女 高와 부산의 慶南高校가 원형건물이다. 나는 그 건물이 마음에 들었다. 로마의 콜로슘은 세계의 원형건축의 嚆失과 그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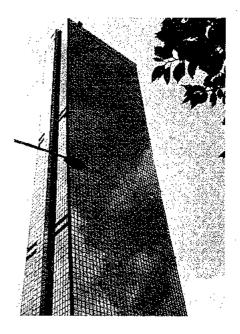
인도의 타지마할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지만 지붕은 역시 원형이다. 우리의 조상은 원형을 무척 좋아했다. 기와집이건 초가집이건 지붕의선이 모두 곡선이다. 무덤도 곡선이요, 고무신과 버선도 곡선이요, 태극에도 곡선이다. 한국인의 基本的인 선은 원이요, 곡선이다.

「二十五時」의 착가 게오르규는 西歐 人들 중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文學 人이다. 그는 한국의 초가집의 선과 무 덤의 선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말하였 다

일본기와나 서양벽돌은 角이지만 우리 의 기와는 円이요, 곡선이다. 한국 집이 일본집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까닭 은 바로 이 점에 있는 것같다.

円과 曲線을 많이 살리는 건물이 아름답다. 미케란젤로가 설계한 바티칸궁 전과 그 回廊은 円과 曲의 선이 많기 때 문에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建築美術이 찬란하 게 꽃피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하루바 뼈 오기를 바란다.



### 임자를 위한 집



집은 어디까지나 집이 아닐까? 집 은 사람이 살기 위해 사람이 지은 물건 일 뿐이다. 그러므로 집은 사람이 보람 있게 살 수 있으면 있을 수록 그만큼 홀 륭하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대체로 일 하고 쉬는 것이다. 따라서 집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어. 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게 집은 지어져야 한다. 고도로도 시화된 오늘날에는 사무실 같은 일터로 지은 빌딩도 있고, 쉬는 곳으로 지은 호 텔도 있다. 날마다 일도 하고 쉬기도 하 기 위해 지은 살림집도 있다. 그렇지만 집이란 본래 살림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살림집의 몇 가지 가능을 분업 의 원칙에 따라 갈라 놓은 것이 빌딩이 나 호텔, 학교나 오락장이 아닐까? 태 초외 집은 살림집이었을 것이다. 온 나 라 살림을 하는 '궁전'은 가장 큰 살림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집의 본래적인 형 태인 살림집에 대해서만 말하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으로 모든 종류의 집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사람이 지은 것 이다. 태초의 집은 사는 사람과 지은 사 람이 같았을 것이다. 문화의 발전은 반 드시 분업화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집 도 사는 사람과 짓는 사람이 더욱더 달라 져 갔다. 드디어 건축사와 건축업자라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과 짓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 과학의 믿을만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사 의 믿을만한 설계에 따라 건축업자의 믿 을만한 솜씨로 집을 짓게 되었다. 그집 에서 살 사람의 비과학적인 요구나 참견 은 아예 말이 안되는 어리석음에서 말미 암은 것일 뿐이다. 집은 아예 건축에 관 한 과학과 기술에 따라 지으면 된다. 일 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집에서 사는 사람과 그집을 지은 사 람은 이토록 달라지게 되었다. 사실 오 늘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누가 지었느냐에 마음을 쓸 필요가 거의 없다. 그저 정 불편할 때 이놈의 집을지 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질 없이 분풀이나 하는 것이 고짝이다. 더 우기 주택공사는 한결같은 모양의 집들 을 죽 지어 놓고 '나누어 드립니다' (令 譲)라는 광고를 통해 팔어 넘긴다.이렇 게 집을 얻어 내야 하는 사람들이고 보 니 그집을 지은 사람을 알아야 할 필요 는 거의 없다. 하기야 이런 경우에도 간 접으로는 그집을 지은 사람에 관심을 가 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주택공사의 어 름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그집을 지은 사람과 그집 을 지은 주택공사는 역사다르지않을까?

집을 짓는 사람 쪽에서도 사정은 마찬 가질 것이다. 그집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키가 좀 큰 사람이건 좀 작은 사람이건 어떤 성격의 사람이건 신경을 쓸 필요는 거의 없다. 하기야 이 경우에도 간접으로는 그집에서 살 사람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면 그집에서 살 사람에 관심을 가진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저 사람과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역시 다르지 않을까? 그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과 아무개 집을 짓는 것이 같을 수 없다. 사실 같으면 정말 안될것이다.

현실은 바로 그렇지 않느냐고 쉽게 말 할 수만도 없다. 사람은 언제나 높은 이 상을 그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 실은 현실이지만 반성되어야 할 현실임 에 틀림 없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대 로 살기 위해 자기 개성에 맞게 집을 지 어야 할 터인데 그저 사람이 살 수 있게 지은 집에서 그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저 사람으로서만 산다면이 세상 은 그저 사람만이 사는 정말 단조한 사 막이 아닐까? 집은 그집 임자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집이 먼저 있 고 그 다음에 등기상의 임자가 있게 되고 그집을 쓰고사는 참된 임자는 없는 것이 아닐까? 집이 임자고 거기서 사는 사람 은 그집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면 임자와 머슴의 자리가 아예 뒤바뀐 것이 아닐까? 이것은 이른바 호화주택일 경우 더욱 그럴것 같다. 집은 집이어야 하는데 지 나치게 호화롭다가 보니 집 이상의 것이 되어 집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역시 집이 임자고 사람은 정작 머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집은 마땅히 임자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임자를 위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임자는 그저 사람이 아니고 뚜렷한 개성을 지닌산 사람이다. 집짓는 사람도 그저 사람을 위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성적인 산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한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의 참된 인생을 걱정하면서 지어야 한다. 그저 기술자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의 긍지와 종교가의 정성으로써 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집이란 정말 그리한 긍지와 정성으로써 지어야 한다. 알고 보면 집이란 정말 그리한 긍지와 정성으로써 지어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 상공회의소 논고

허 범 **팔** 국민대학교 조교수

#### • 序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고유한 19세기 이입양식의 단절과 문화적 사회적 주변현실의 괴리를 긍정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심지 대규모 건축물이 업무용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단순한 형태와 매스그리고 새롭고 훌륭한 고가의 외국산 자제들을 활용한 덕분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정돈된 모습이기는 하나 주변시설들과의 조화나 주변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하며 도시기능을 감안한 연속성이나 시민의 활용공간으로서 기능적 제공이 적으며 단절된 상태로 그치고 있다. (이 도시를 사랑하고 긍지를 지나기 보다는 서로 자신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것인양 서로 양보가 없다.)

또한 그 형태나 외관에 있어서도 비교적 감각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을 불수 있다. 이것은 곧 문화의 혼재와 방향감각의 상실이고, 윤리관이나 철학을 정립해나갈 틈을 갖지 못한 채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으로 하는 많은 사례 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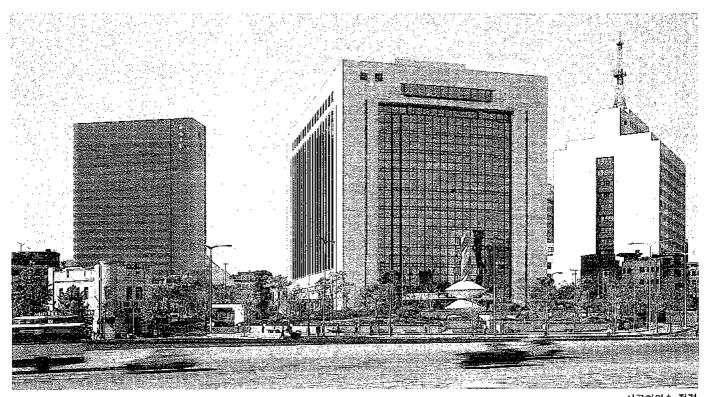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선 첫째/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둘째/구성요소간의 관계가 서로 얽 혀 움직이는 문제의 정확한 파악, 셋째 / 환경의 질에 대한 심미적인 감 성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 ○ 전체개괄

기존한 환경자체가 시각적 연계성의 존중을 위해 이미 디자인은 어느 방향으 로 종용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올바르 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내의 역 사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남대문을 중심하는 가로의 각 결절점을 관통하는 일관된 질서 체계 의 표출이고(가로 화사드 통일성)남대문 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시 경관상의 수 급에서 내용이 전체되기 때문이다. (시 간적 ·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장소는 지엽 성 · 극부성으로 건국의 형태와 양식을 한 계지우며 대두되고, 건축가의 숙명적 도 정(道程)으로 예술적 의지와 사회환경 적 관념사이든 오히려 그 이상이든 간에 기본적이고도 필연적인 투쟁의 몸부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한정성과 독자적 성격의 차이도 다음과 같은 보편적 해석으로 적용될 형식과 기 능의 인간관계를 갖는다.)

남대문주변 환경지각(건축수법)의 문 <sup>\*</sup> 제는 외적·직접적·최도지각만으로 이

	세 부 내 용 물	구 분 내 용	요 구 사 항
환경기로시각권	• 건축과 도시질서축(수평환경요소)	• 결절점간 시각으로	• 전체조망의 통일성
	• 도시스카이라인, 외관화사드	지각	• 도시적 분석
	(수직환경요소)	• 형태 콘택스트	
	• 접근의 시팬스	• 인간행위적 시각	• 휴먼 스케일
근접기로시각권	• 외부·공간과 건물저충부(유기적접지성)	으로 지각	• 지엽적 분석
	• 랜드 스케핑	• 형태자체지각	
	• 공간구획구조	•인간행위적 이용	• 휴먼 스케일
실내외활동권	• 행태요소	성으로 지각	• 이용행위자 분석
	• 실기능 <u>요소</u>	• 부분개체지각	



상공회의소 전경

루어질 경우 이는 무의미 해지며, 우리가 내적·정신적 작용을 통한 인식 즉 환경지각의 감각적 체험을 보다 중시 할 때가치롭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위적 조작과 왜곡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능케 한다.) 이러한 보편적 조형성을 무시할 때 건축환경의 의미란 독존적단위일 뿐 장소적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본시 장소란 항시 분리되어 위치하지 않고 하나의 큰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 더우기 모든 장소들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속에서 변용해가기 때문에 공간 · 시간 · 인간의 집합실체이다.

이를 구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러한 내용의 보편적 조형성은 건축 외 입지시 환경의 미와 형상이 우선 됨 으로서 규제되며 수직환경요소(경사도· 스카이라인·가로화사드), 수평환경요소 (도시가로축·자연경관·콘택스트)로 지 면과 유기적 접지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 ○ 환경가로 시각권

도시적 건축설계 방법은 내향적 접근과 외향적 접근으로 분류되고 상당한 차이의 결과가 유출된다.

외향적 작가외식의 표현은 기능의 형 식상 해석으로 부터 유추가 아니라 항시 그 형식 외측(도시적 차원)에서 찾아지 는 작가의지의 구현이라는 입장이 통상 적이다. 그러나 남대문 주변에 기존한모 든 건축내용의 조형의사가 결국 사용자 의사와는 매우 상충되어 있음을 발견하 게 된다. 그것은

○ 남대문 주변의 토지이용문제 (업무

시설과 남대문시장변 노선상업의 혼재) ○ 극히 근접된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한 수직성(대한화재 해상보험, 도쿄호텔 등)

○ 가로와 시각적 편차에서 빚어지는 시각적 연계성의 불능(가로축에의 무절 제한 난립 색체혼합·건축지정선전무)

등으로 남대문의 존재론적 공간성조차 타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전면을 시민공원 으로 활매하여 포위된 남대문(?)에 숨 통을 트이게 한 상공회의소 건물에 찬사 를 보낸다.

하나 정면은 면적구성(面的構成)의 이 미지 은유를 의도한 듯하나 전체적 내용 이 경이적 볼륨의 양괴구성으로 지각되 어(권위적 건축형식) 건물자체 디자인언 어는 어느 건물의 내용보다 단연 우수하고 압도적이나 기존 남대문의 온아한 선적인 구성과 상충되어 전면의 수직띠창조차 순수한 애정으로 느껴지지 않고 피막적 기교로 까지 보인다. 또한 강력한축면의 면성이 기존 도시축에 대면하여강하게 부각되는 동방빌딩의 색체와 상공회외소 건물간의 지각적 불엽화음,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시 스카이라인상에서기존의 대한화재보험 건물과의 상대적 스케일 관계로 야기되는 시각적 편차는 문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가의 엄청난 노작 (勞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서 아 끼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보다 공공 건물 적 성격으로서 느낌을 받는다.

이렇듯 도시적 건축설계는 작가의 개체성 절제·사용자 건축·자연과 주변조건에 대한 최소한 인위적 조작으로 전재되는 보편적 조형성이 요구되며, 요구기능에 대한 객관적 형식해석과 합리적 분석, 집합의 접근과정, 기념비적 건축관을 배제할 것이 요구된다.

#### ● 근접가로 시각권

근년에 들어 정립은 내놓고 있는 몇몇 주요 작품들에서 상당히 과감한 조형적 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벽면이나 원통형의 기하곡선(MBC청사·창원시청사·창원새마을회관·외환은행남 인천지점·한국개발연구원국제연수관), 창호와 벽에 의한 면적구성과 이들의 양괴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자신감에 한 견고함(일신 제강사옥·한국은행울산지점), 기존해 있는 환경메디아 적용(이대도서관·정동교회) 등에서 선보인 조형성은 상공회의소건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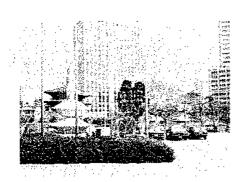




▽현관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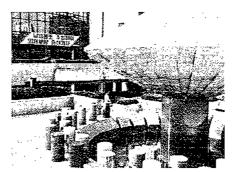
\_\_\_\_ 스코제회의장





황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시 건축적현실 로 눈을 돌리자.

전체구성은 우리나라 고유의 내구성 화 강석으로 기념성・상징성 및 백의의 진 취성과 청색의 반사유리를 대비시켜 청 백의 우아함의 창출을 시도하였고, 여기 에 좌우면에는 업무 및 주동선축(상징축 과 직교축)을 · 전면에는 상징 및 주공간 축(남대문축)으로 설정, 도시적 휴식공 간과 더불어 지하진입의 역활을 부여하 였다. 지하진입 중 누하진입의 파티오 설 정은 공간의 폐쇄성을 합리적으로 해결 화였으나 전면진입의 공간은 세밀성의 디테일을 문제시 하여 답답하게 지각된 다. 이와같이 보도의 흐름에 별도로 개 연된 동선내용은 각자 독자적인 휴식의 환경내용을 요구한다. (통과자의 지식수 준·행위내용) 이러한 구성개념들이 확 산과 가변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이 되면, 사실상 견차적으로 연결되는 동선내용의 기초가 됐어야 한다. 또한 남대문이라는 기존 환경메디아는 무수한 선에 의한 음 영적 변화, 오버택스츄어적 지각인식 내 용변화, 등으로 살아 변화하는 듯한 상 황에 상공회의소건물은 반사유리의 도입 으로 타 건물과 사이공간을 넓게 보이도 록 하여 건물의 품위와 개방성을 갖도록 하였으나, 화강석 벽면에 의한 외부형상



은 힘과 활력에 의한 거대한 양괴성으로 표현되어 지각적 내용이 자칫 권위적 표 현과 단조로움을 시사 할 수 있다.

일종의 공공건물적 성격인 상공회의소 건물을 사무소 건축내용으로 한계지어 표 현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우선 같은 오 피스의 쟝르라도 각각의 업무내용상 특 질이 다르게 나타나고 둘째 동일목적 성 향이라도 규모에 따라 갖출 형식이 다르 게 나타난다. 우선 정립 특유의 대범함 과 시원스러움으로 시전(施展) 된 1층 로비와 2층의 내용은 업무통과자와 회 의소ㆍ휴식공간이 혼재되어 그 장점에 협 집이 있고, 현대적 내부장식제의 적극적 도입으로 종래의 진부한 메체 선정을 일 신하고 있으나, 벽, 천정,바닥의 통일보 다 개별내용으로 표현되어 침착성은 절 제되고 활기찬 축제의 장소로 느껴지게 된다. 1층 국제회의실 좌측 범면의 부 조는 기타 실내에 존재치 않은 색조의 내 용이 독자적으로 표현되어 석연치 않다. 원형의 썬큰된 붙박이 형식의 휴계내용 은 훌륭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면들의 불가해한 문제는 확장과 가변 에 대한 여하한 기대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나(2층 로비는 전혀 반대의 형식), 작은 공간의 활용도 포착한 작가 의 섬세한 설계의도는 높이 살만하다.

도시적 환경에 적극적 투작(投作)이라 함은 작은 설계 내용이라도 치밀하게 계획함 일 것이다. 만약 전면 야외공연부분에 분수를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 도시공기중 불순물이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남대문주변환경의 정확작업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야경은 너무 쏠쏠하게 존재하며 울씬년스러울 정도이다. 이는 아직 건축주측이 입주한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미흡하다고 느껴지나 왠지 서운함 느낌은 버릴 수 없다.

#### 결

상공회의소건물에서 표현된 조형성은 이미 우리의 감각 속에서 친근해졌고,이 것이 만드는 도시의 공간감은 항상 새롭고 우리를 압도한다. 매우 섬세한 면적 비례감에서 이루어진 건물의 화사드, 전체적 매스로 표현된 화합성, 그리고 그사이에서 연출된 무변의 만변(無変의 萬変)에의한 절묘함은 이 건축의 어떤 기술적 하자도 상쇄하고 남는 가치이다. 또한 가로변에 이입되는 전면의 시민공간은 남대문 전경의 전개와 더불어 가히 압권(壓醬)이다.

이제 옛 낭만이 서린 모습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철거되고 있다. 이러한 자리 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 다. 남대문 주변에 앉아 담소하는 소박 하고 청결한 여인들과 할아버지, 푸르른 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크고 작은 건물 등, 자유스러운 배치이나 질서 정연함, 우리에게 친근함 이상의 정을 주는 도시 공간들은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다. \*

## 「표면」에 대한 두가지 의식

-대한상공회의소 회관과 고운빌딩을 대상으로 -

김 **광 현** 서울시립대학 조교수

#### 1. 머리에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운빌 당(姜錫元)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金正 微)은 각각 84년 서울시 건축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작품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 건축상은 서울시 도시미관의 조성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기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시환경·창의성·기능·공공성·시공의 정밀도등 5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심사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개의 건물은 작년에 서울시에 준공된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도도시미관과 주변환경과의 측면에서 공인된 우수건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진정한 비평행위는 번 저 작가 자신의 비평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물이란 결코 단편적인 인상만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며, 건축주의 요구·경제성·사회제도상의 규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때문에 작가의 건축적 의도와 그결과는 누구보다도 작가 자신의 자세한 비평행위에 의해서 일차적인 외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 3 자의 비평은 복잡한 설계의프로세스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자신의 논리를 구성해 가려는 목적의식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간과해 버릴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두개의 오피스 빌딩은 반사유리를 전면(前面)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두 건물은 각각 대규모의 공공건물과 소규모의 상업건물이라는 점반이 아니라,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점, 하나는 고도로 복잡한 기능을 규정된 볼륨으로 처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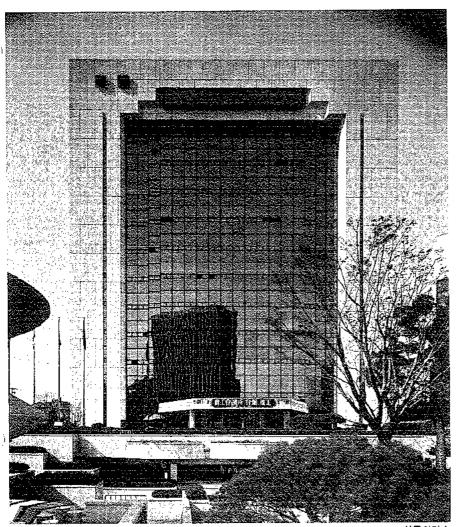
있는 데 반하여 다른 하나는 비교적 간 단한 기능을 서비스 코어와 사무공간이 라는 두개의 볼륨으로 분리시킨 후 이를 다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성격 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스 빌딩이 갖는 파시드 구성의 문제이다. 오피스 빌딩은 다른 건물형식과는 달리 가장 큰 바닥면적을 차지하면서현대도시의 중심부를 성격짓는 도시의얼굴이다. 대지의 성질과 설계조건이 갖는철저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파스 빌딩의 파사드는 명쾌한 가능적 해결을 그대로 외부에 연장시켜 표현되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두개의 오피스 건물에서는 파사드 디자인과면(面)의 문제를 구상력(構想力)의 주제로 삼고 있다.

#### 2. 본 론

먼저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전체의 볼륨이 화강석의 매스로 규정되어 있으며이와 대비적으로 반사 유리가 정면의 파시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커튼월을 주제로 하면서도 이를 화강암의 매스로 억제한다는 패턴은 이 건물에서만이 아니라 정림건축에서 설계한 다른 공공적 건물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와 같이 반복되어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 때표적인 것으로서는 한국의환은행 본정의영업장 건물로서 한국은행 울산지점, 한국은행 인천지점 등이 그 연상선에 속하며, 모서리가 원형 샤프트로 처리될 때는 MBC 여의도 스튜디오와 같이 변형되기도한다.

볼륨의 좌우 그리고 상부를 규정하는



상공회의소

화강암의 매스는 단지 기능적 이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은행일 경우는 견실성 과 품위를, 방송국일 때에는 반사유리와 의 대비를 통하여 매스콤의 진취적 이미 지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한상공 회의소도 역시 화강석과 반사유리에 각 각 기념성과 진취성이라는 외미를 부여 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성(monumentality) 은 다 시 정면의 대칭성에 의해 강조되고 있으 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유리의 좌 우를 후퇴시키고 화강암벽면에 슬리트(s-lit)를 삽입하거나 건물의 상부에 고전적 모티브로 변경시키고 있다. 실제로 평면 주축(主軸) 과 부축(副軸) 이 각각 정면과 서측면을 좌우대칭으로 하면서 교차하고 있다. 이때 정면과 측면은 서로 다른 코 드로 처리되어 정면은 기념성을 측면은 기능성을 표현하도록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화강암에 의한 질량감

의 표현이 상징성의 의미를 설명대로 전 달하고 있는가이다. H. Stubbins의 보스 턴 연방은행의 좌우 샤프트나 K. Roche 의 Knights of Columbus 본사의 원통 형 샤프트 등에서 볼 수 있는 오피스 건 물의 좌우 매스는 내럭벽과 서비스 코어 의 표현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다. 표 현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하더 라도 주조(主調)는 黒川紀章의 福岡銀行 나 Big-Box와 같은 中空의 입체이며,이 러한 테마는 반사유리가 파사드의 중앙 을 메꿀 때 그것은 한국은행 인천지점과 임본적십자사본사과의 유사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대주의에 monumentality를 부가하여 건물 전체를 하나의 기 하학적 입체로 환원시킬 때 얻어지는 의 사(擬似) 메거스트럭취(pseudomegastructure) 로서 먼저 설명되어야 할 것이 다. 이때 잘 다듬어진 화강석과 세련된 디테일, Schinkel의 모서리 강조와 같은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적 분위기는 표 면적으로는 설계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회사의 이미지(또는 corporate identity) 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적 분위기를 제거하는 이상 단순한 중공의 입체로 머물게 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유사한 패턴을 공공적 성격의 건물에 반 복적으로 사용되는 한 그 패턴이 작가의 전용어휘가 될 수는 있어도 특정 기업의 이미지를 상징하게 되는 어휘로는 통용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입면상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 제점은 정면과 측면의 대비적 표현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가 고수하는 의견 즉 정 면과 측면 등 각각의 면은 하나의 조형 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다는 신념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남대문 광장으로 부터 각방향으로 노출된 양측면의 수직적인 세분할은 오히려 정면의 중량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 즉 대각선상에서 지각되는 건물의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정면 좌우의 화강암 벽면이 갖는 질량감이 측면의 수직적 요소와 정면·측면의 슬리트 창에서 비롯되는 시각적인간섭 때문에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샤프트로 코드(code)화된 좌우의 벽면은 평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스(mass)가 아니라 질량감을 잃은 표면으로서 처리된 것으로 위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좌우의 화강석 벽면이 정면에서는 양괴(量塊) 구성의 요소로 보이면서도 대각선상의 시각에서는 면 구성의 요소로 위혀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정면은 기념성을 축면은 기능성을 분리시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면의 기념성을 양괴구성으로 처리한데 반하여 측면의 기능성은 변화없는 수직적인 창이지배하는 선구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대각선상에서 지각되는 모서리 벽면의 모호한 성질 그것은 이러한 두 입면의 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가지 조형개념

이 혼제하여 있다. 마치 이 건물의 내부가 억제된 외부와 달리 곡선적 요소나고전적 모티브를 변형하여 자유로움을 표현하려 하듯이, 유리라는 경계면(境界面)을 Solid한 벽체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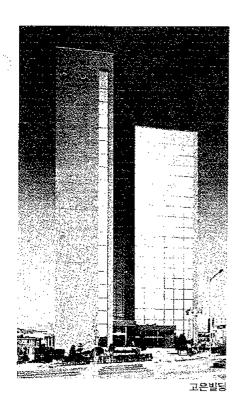
말할 나위도 없이 근대전축의 가장 근 본적인 개념은 기능으로 분화된 공간과 공간 사이를 구분하는 벽등의 구성 요소 가 무게를 잃고 내외부를 구획하는 경계 면으로 파악되었다는 점이다. 그 반면 역 사적인 건축은 벽체가 공간을 구획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Solid한 물체로서의 벽 면을 구체적인 디자인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즉 추상화된 경계면과 구체적인 벽 체와의 대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 의 내부만큼은 못되지만 외부의 국소적 인 부분의 디테일이 석재로써 가능한 장 식적 요소를 비교적 단순화시켜 전체적 인 무미건조함을 만회하려는 노력 역시 현재 우리의 도시에서 부족한 물체적인 반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림건축에서 설계된 몇개의 작 품을 주목해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과 같이 Solid한 업체와 그와 대비되는 반사유리막이 주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한국개발연 구원 국제연수원과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은 같은 해에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막을 각각 타일과 화강암에 일치시 킴으로써 하나는 유리라는 투명한 피막 (皮膜)을 추상화된 경계면으로 동화시키 면서도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물체와 대 비시키는 이질적인 수법을 동시에 구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면과 측면에서 나 타난 유리와 화강암의 조합은 각각 상징 성을 요하는 이대 중앙도서관과 이보다 는 기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한국개 발연구원 국제연수원의 수법을 이중적으 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도 식적인 관계는 아마도 벽돌의 양괴적 구 성을 위주로 한 정림의 교회건축들과 타 일의 표피(表皮)로 중량감을 삭제하려는 삼윤빌딩이라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표면 감각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 의소의 정면과 측면에서 고려된 대립적 인「표면」 그것은 상징과 기능이라는 서로 다른 기호내용을 위한 자신의 특유한 어

위로 인정해 가던가 또는 하나의 형태수 법으로 통일시켜 가던가 하는 양자택일 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강남 신시가지의 소규모 사무소건 물로 설계된 고운빌딩의 경우는 요소의 추상화를 의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 기서 의도적이라는 말은 정림건축의 은 행 건물과도 같이 4개의 모서리에 계단 샤프트를 배치하고 전체적인 거친질감의 윤곽 속에 커튼 월을 삽입한 전주 덕자 문화회관이나 벽돌조로 입체의 중량감을 꾀한 가톨릭대학 신학부 기숙사 건물에 비교한다면, 고운빌딩의 표면은 작가 개 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실 반사유리는 최 근 도심부 사무소 건물에서 몇차례 시도 된 적이 있었으나, 이 건물에 있어서는 유 리면을 건물의 상단까지 연속시키고 반 사유리의 좌우벽면을 최소한으로 억제시 킴으로써 면의 연속성을 최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한편 유리면을 차단하는 사무공간 의 벽면과 같은 폭을 두고 반복된 전망 엘리베이터의 반사유리는 정면에서 바라 🗼 보는 시선에 대하여 면의 연속성을 확대 시켜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분리된 서 비스 코어와 사무공간의 볼륨을 대각선 으로 있는 반사유리의 피막은 건물의 시 각적인 크기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사무 공간의 폭이 정면 전체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 결과 사 무공간의 동측면은 무게를 잃은 카드보 드(cardboard)와 같이 경계면의 의미 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사유리의 사용은 구조의 규칙성을 보이는 Mies의 투명한 유리와는 달리 내를 숨기고 면의 연속성을 강조 함으로써



정방형의 프레임과 함께 물질적인 성질을 배제한 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결과 건물의 의미부분(意味部分)을 소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왔던 것이다. 이 건물에 있어서도 재료란 공간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재료라는 사물 그자체로서 자립(自立)시킨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가냘픈 부재를 통하여 크리스탈(crystal)과 같은 분위기와 예민한 조형에 관심을 두려는 작가의 의도는다분히 기술의 표현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엄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첨단의 공업재료를 주제로 하는 하이 텍크(High-Tech)의 감각은 대체로 실 제의 건축과제에 대한 합리적・실용적인 해결, 균질공간과 단순성의 추구, 개념적 인 작품구성의 원리, 건축주의 봉사자라 는 건축가의 역할과 같은 핵심과 일치되며, 추상화된 표면감각은 새로운 「자극」과 관계되어진다.

실제로 작가는 이 건물의 중심개념을 「보편적인 건축」「정확한 건축」으로 설명 한 바 있으나, 이때의 「보편」이란 컨텍스 트가 설정되어 있지 못한 신시가지의도 시환경에 평균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축이라는 의미 이외에, 기능성 ·사용자의 요구 · 경제 · 재료의 선택과 같은 보편적 인 요인을 최선으로 다룬다는 의미를 지 닌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의 개 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되었다 할지라 도 결국은 부분적인 가치(경제성·안전성· 능률 등)의 집합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결 코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주체적이며 전 체적인 가치는 회피되어 있는 것이다.건 축의 가치와 그 표현을 측정가능한 문제 의 해결(problem-solving)로 한정시키 는 것은 기술적인 객관성에 의해 정당화 되기 쉽다.

이에 반하여 공업적인 재료의 예민한 감각은 정면의 시점에 한정되어 있다.건물의 좌우면에 대한 처라는 전면에 비하여 매스로서 남겨져 있으며, 특히 동축면의 개구부는 유리면에 접한 벽의 수작적인 감각과 크게 절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운빌딩은 두가지 외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작가에게 있어 새롭게 여겨지고 있는 추상적인 면의 감각이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 제속 중심적인 테마로 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운빌딩은 작가에게 과도기적인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추구가「보편」이라는 개념에 대하여일회적(一回的)인 해결방법이라면 그것은 추상적인 표면이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는

도구로만 이해될 것이다. 반대로 추상적 인 경계면이 「보편」의 개념으로 심화되 어 갈 때 그것은 빛나는 표면의 High-Tech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하는 것 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의문은 대한상 공회의소의 정면과 측면과도 같이 고운 빌딩의 샤프한 정면이 전체의 구성원리 로서 통일되지 못한채 부분적으로 삽입 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 3. 맺으며

이 두개의 수상작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두 건물 은 연속적인 유리면을 통하여 균질한 그 리고 크리스탈과 같은 표면감각을 추구 하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는 기능성과 상징성이라는 두개의 코드를 서로 다른 표면구성에 대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 른 하나는 보다 급진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보편」이라는 개념과 함 께 어떤 의미까지 확장시켜 나갈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표면의 감 각을 도시건축에 도입하려는 두 건물의 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상 태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앞으로의 수렴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상된 작품으 로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두개의 건물은 적 어도 파사드와 표면의 구성만을 문제로 삼는 한, 군질한 경계면의 재료로서 선택 된 반사유리가 구체적인 벽체에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추상화된 경제면으로 변 질되어 갈 것인가 하는 흥미로운 두개의 면의 의식을 앞으로 보여주는 분기점(分 岐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도시건축의 맥락성과 표징성의 3가지 실증

- 고운빌딩
- 대한 상공회의소 회관
- •국제센타 빌딩

박 길 용 국민대학교 건축과 조교수

#### 3가지 건축의 비교 의미

84년도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품중에는 3개의 업무용 건축이 포함되었다. 금상 으로서 국제센타 빌딩과 은상으로서 그 룹·가의 고운빌딩, 그리고 동상으로서 정립건축의 대한상공회의소이다.

이 3개의 건축이 모아진 것은 그 건축 적 질량의 평가가 적격하였기 때문이기 도 하나, 여기에는 도시건축의 긍정적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3개의 건축은 각기의 독 자적인 조건과 그 해석의 입장을 달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여기에서는 이 들 3개 건축의 비교관찰을 기술의 중심 으로 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측의 입장에서 업무용 건축 이 띠울 보편타당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 은 환경조건에 따른 콘텍스트의 해석이 다.

이 콘텍스트의 해석이란 일차적으로 주변조화의 개념에 두게 되며 거기에는 도시건축이면 보편적으로 기대하게되는 조형상의 항성(恒性)이 중심이 된다. 다시말해 우리가 도시가로에 대해 일상 적으로 인식하게되는 연속적실체로서 이 미지의 파악이다.

반면에 오더니즘 이후 건축의 식별성 (識別性) 나아가서는 랜드마크적인 존재 로의 표현욕구는, 그것이 비록 이차적이 라하더라도 건축가로서는 쉽게 포기되지 않는 한 국면이 남는 것이다. 또한 먼저 이야기된 「연속적 항성」의 입장과 「개별적 표현성」이라는 2원적(二元的) 국 면은 해석하는 작가의 조형의지에 따라 크게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 건축의 비교관찰도 이러한 2

원적 해석에 중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의미로울 것이다.

#### 도시건축의 맥락성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콘텍스트의 의미는, 이미 있는것과의 적합성, 새로운 것과 또다른 새로운것의 합치, 또는 새것과 낡은 것의 콘트라스트, 지역적 환경과의 조화로서 이해된다.

특히 도시건축에 있어서 조형이라는 본질이 어떤 개체적 (個体的) 의지에 따라 절대화되기 보다는, 주변에 상대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적합성 (Fifness) 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체로서 단위」라는 이해는 기존의 것 에 모든 의사를 맞추자는 것, 또는 천편 일률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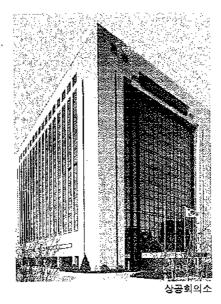
그것은 하나의 타운스케이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콘텍스트가 디자이너의 독특한 개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현존하는 질서와의 조화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제작과정에 있어 서, 조형의 시작을 가로(街路) 축에 두 느냐, 아니면 당해 토지의 독자적인 위 치에 두느냐에서 부터 판별되기 시작한 다

고운빌딩의 경우 이 건축은 역삼로라는 가로측에서의 경관과 메스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는 이 건축이 가로 측으로부터 정면성(正面性)을 중심시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작가는 좌우측면과 후면에 대한 조형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유는 좌우측면과 후면이 다른 대 지로서 연속되기 때문에 곧 다른 건축이







이 3면을 채워오리라는 예상에서 가능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보이나, 이 역삼로의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될 시점에서 이 건축은 대로로의 대향면이 정면만이 시각적으로 남게 될 것을 선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태세는 만약 유사한 볼륨으로 서 주변이 채워질 경우 합당한 연속적가 로에의 실체를 얻는데 유리하다. 또한 이 정면으로서 조형은 타일소재의 메스 와 밀러그래스의 콘트라스트라는 자기억 제속에 시각적 효과를 국대화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3면이 노출되는 가로조건에서 남대문을 향한 태평로쪽에 정면성을 의식하고 있다. 다시말해부정형한 대지위에서 인공분수 - 선큰가든 구현관에 이르는 축을 견지하며 동서에 측면이 되는 남북쪽을 무시할 수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정면의 대칭적 면 상을 확연히 하면서, 동시에 정면의 취 급과는 달리 측면성을 분명히 하는 태세에 있다. 물론 측면의 조형은 정면보다 부차적(副次的)으로 취급할 수록 정면 의 의사는 보다 분명히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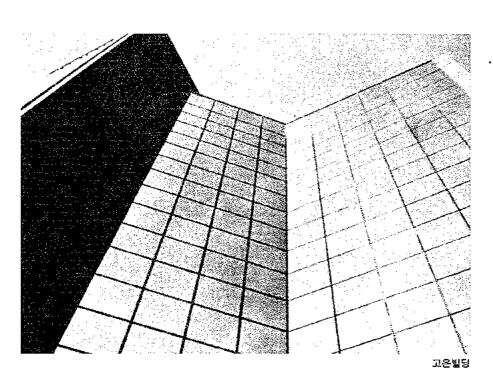
그러나 이 전축의 내부기능에 따른 다면 장변인 남북면보다는 단면인 동쪽(태평로 측)이 측면이다. 이와같이 내재하여 있는 골격의 기본속성을 거슬러서 라도 이 전축은 남대문로타리를 향한 정면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정면성은 큰 구형의 면상에서 그 대칭적의도와 크라식한 의사를 내포하려하고 있다. 그것은 전제된 바와같이 4면이 다 같이 유니버설하게 취급될 소질이 있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지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그러고 그 표정은 어느정도 뷰로크라틱하거나 클래식한 취미를 온유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있는 국제센타 빌딩의 다원적 표정(多元的表徵)은 한강 — 용 산로간의 랜드마크로서 독자적 존재이 다. 일상적으로 도시건축에 대해 선입되는 4面性에 대해 대각선으로 보충, 절삭되 어가는 평면은 다시 수직적으로 변화하 여 간다.

이미 이 개념에서 부터 우리는 이 건축이 한강로에 대한 도시축성(都市軸性)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다이나미즘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무소 건축에서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표현성까지를 띄우며 성과된이 의외성(意外性)은 자신의 주장보다오히려 한강로간의 랜드마크로서 가치를 두게 한다.

여기에는 어떤 정면성의 식별도 없고 전체의 윤곽을 동시에 떠올릴 시각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관에서 수평 때벽과 유리의 켜로 연속되는 표장 (表裝)은 어느정도 리듬을 갖추면서도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도 자선만의 항성(恒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 대단위의 메스가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타운스케이프



를 창출하는데에 의미롭게 부각되는 점 이다.

이상의 도시건축이 가로조직에 대해 갖는 성격은 어느것이 가치, 반가치로운 것이나는 평가를 의미없게 한다. 이것은 이 세가지의 건축이 도시조직에 대해 갖 출 수 있는 유형별 실증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각각 표현적의도에 있어서 역시 그러하다.

만약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놓치고 있는 건축적 풍요로움에 대한 실책역시 분명한 것이 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크래식한 회귀 적 의도가 이 막연한 도시의 표정을 다 시 환기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 한 가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아니면 현대건축에 있어서 하이테크 노로지가 갖는 표현성의 가능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도 두가지의 입장, 즉 도시맥락의 구성인자로서 건축적 항성의 입장과 랜드마크로서 독자적 입장이 인 정된다면, 이 각각의 의사는 분명할수록 좋다. 다시말해 오히려 어느 입장도 아 난채 시각적 흔돈이 되거나, 무기력한 타운스케이프의 요인뿐 일 때, 그 건축 의 환경적 불가치는 쉽게 정의할 수 있 다는 것이다.

#### 도시건축의 표정성

고운 빌딩의 외곽 조형은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큰 그릿드의 반사 유라와 타일 소재의 솔리드 부위(部位) 를 대비시키고 있으므로 최소한도 모더 니즘에서의 일상적 방법에서 보다는 보

이는 대지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아이 디어로 부터 얻게 된 결과이나 동시에 최소한의 소재로서도 경직될 외관의 염 려를 배제하며 시각적 감성(感性)을 유 지한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클래식한 은유는 극히 억제되어 취급되고 있으나, 이 건축의 분명한 의사이다.

즉 대칭성이 갖는 엄정함과 함께 굴곡으로 내밀어 오는 유리의 보이드와 반면 굴곡으로 들어내 가는 석재의 솔리드가 화합하는 경계에서 드러나는 형상화의 과정이 그것이다.

석재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으로서 감각도 그러하거나와, 대범한 조형상의 무게와 함께 단순한 상업건축에서 보다는 상공회외소라는 건축주 표정이 건축가의 의사와 타험된 결과일 수도 있다.

국제센타빌딩의 조형의지가 취한 부루 탈리즘(Burtalism)은 분명히 도시의 활력과 생동감에서 우성이다.

그것은 비단 도시가 갖게 마련인 보수 적인 관점에 비교하여, 훨씬 더 쾌감있 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식은 이와같은 카타르시 스는 매우 간헐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용산한강로 측에서 이 러한 자태는 이 건축 하나만으로서 충분 하다.



에 에 에 서울지부=△이종명회원/ 한양건축합동연구소/용산구 서계동 53/717-5231

△현종학회원 / 한양건축합동연구소 / / 용산구서계동53 / 717 - 5232

△윤영근, 이근욱회원 / (주) 대일건축 / 강남구방배동 837~16 / 532-8481 △이병근, 김용엽회원 / (주) 태양건축 / 강남구논현동 124 - 5 / 533-0056 △김대식, 이흥래회원 / 대도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서초동1167 - 5 / 585-9971, 0125

△정연석, 김상규회원 / 무애, 서로 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도곡동 552-14/ 552-7997, 0880

△김현식회원 / 벽송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845 - 1 / 557 - 6394

△성하덕회원 / 무영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735 - 41 / 462 - 9837

△김진구회원 / 동양합동건축 / 종로 구연지동136 - 5 / 765 - 1620

△전 권회원 / 전권건축설계사무소/ 도봉구수유 3 동191 - 70 / 902 - 9605

△김형석화원 / 건축사사무소예건설 ∮계 / 중구쌍림동151 - 11 / 267 - 2848

△박찬정회원 / 부원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249 - 11 / 562 - 3384

△설진섭회원 / 대건, 남일종합건축 사사무소 / 강남구도곡동543 - 2 / 557 - 4192

△한기륜회원 / 대건, 남일종합건축 사사무소 / 강남구도곡동543 - 2/557 -3594

스이정구회원 / 대건, 남일종합건축 사사무소 / 강남구도곡동543 - 2/562 -3638

△이종성회원 / 우신건축설계사무소 / 영등포구당산 3 가258 - 8 / 633 - 13 38 △조병관회원 / 정안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80-1 / 546-5571

△박규영회원 / 미건사합동건축사무소 / 영등포구당산 3 가387 - 3 / 634 - 3261

△안창원회원 / 신아건축연구소 / 은 평구녹번동82 - 1 / 354 - 3966

스이승환, 이욱진회원 / 범미종합건 축사무소 / 중구명동 1 가 5 - 1 /776 -9126

△지순, 김자호, 이광만회원 / 주식 회사간삼건축사사무소 / 종로구운니동 98~78 / 741~0121

△김용인, 이규정회원 / 주식회사삼 도건축 / 강남구서초동1367 - 5 / 585 -0125, 0126

△채대웅회원 / 건축연구소정건사 / 종로구경운동96 - 18 / 733 - 0715

△김상환회원 / 동원건축연구소 / 강 남구서초동1167-5 / 582-1430

△이승목회원 / 아람건축연구소 / 성 동구구의동254 -54 / 446 - 1767

△하학수, 방수일회원 / 건축사사무 소범일, 정주 / 강남구방배동936 - 85/ 582 - 7279

□부산지부=△허택원회원 / 제대랄 건축사사무소 / 사하구당리동325 - 6 / /204-2666

△서진일회원 / 정림건축사사무소 / 동래구수안동625 / 553 - 4476

△황경호회원 / 현기건축설계사무소 / 북구구포동1186 - 22 / 333 - 3275

△김희채회원 / 삼환건축사사무소 / 동래구온천동150 - 13 / 53 - 1789

△지호경회원 / 삼원건축사사무소 / 동래구명륜동340 - 1 / 552 - 1681

□충북지부=△김진용회원 / 삼성건 축설계사무소 / 충주시역전동669 - 23 / 2 -3795

△김태철회원 / 삼익건축설계사무소 / 충주시역전동669-23 / 2-3795

△정진억회원 / 청호건축사샤무소 / 청주시북문로 2 가 2 - 1 / 2 - 3935

△빈길원회원 / 영건축설계사무소 / 청주시북문로 2 가116 - 257 / 3 - 5323

□전남지부=△유연옥회원 / 유한건 축사사무소 / 광주시동구광산동81 - 2

△김덕태회원 / 중앙건축사사무소 / 목포시용당동1055 - 16

△강인수회원 / 세원건축사사무소 /

순천시장천동42 - 3

△김인모회원 / 김인모건축사사무소 / 순천시중앙동57-7

△신재익회원 / 성주건축사무소 / 고 홍군고횽읍옥하리215 - 7

△김인옥회원 / 동아건축사사무소 / 목포시호남동 1 - 8

□인천지부=△박통현회원 / 진명건 축설계사무소 / 인천남구주안203-19/ 85. 4. 2~/84-7764

△고정남회원 / 광명건축사사무소 / 관악구남현동1056-29 / 4. 1 / 583 -8840

□경기지부=△최인현화원 / 최인현 건축사사무소/강화군강화읍관청리170 -12 / 4. 9 / 2 -4567

지원 기를 □서울지부 = △박찬정회원/강 남는현동249 - 11/562 - 3384

□대구지부-△임대구회원/ 세림건축/장남결혼/4. 14 △윤영도회원/한국종합건축/장남결 혼/4. 28

□경기지부=△임용수회원 / 장남결 혼 / 성동중앙교회 / 4 . 13

△정환철회원 / 차남결혼 / 부천광장 예식장 / 4. 27

□부산지부=△주혁중회원/ 대진건설연구소/부인별세/ 자택/85.4.19

□대구지부=△이병택회원 / 동원건축 / 부인별세 / 4. 15

□경기지부=△박관회원 / 모친별세 / 4. 12 / 자텍

□서울지부=△이종진회원 / 현대엔 지니어링 (주) / 종로구계동140-2 / 십 장마비 /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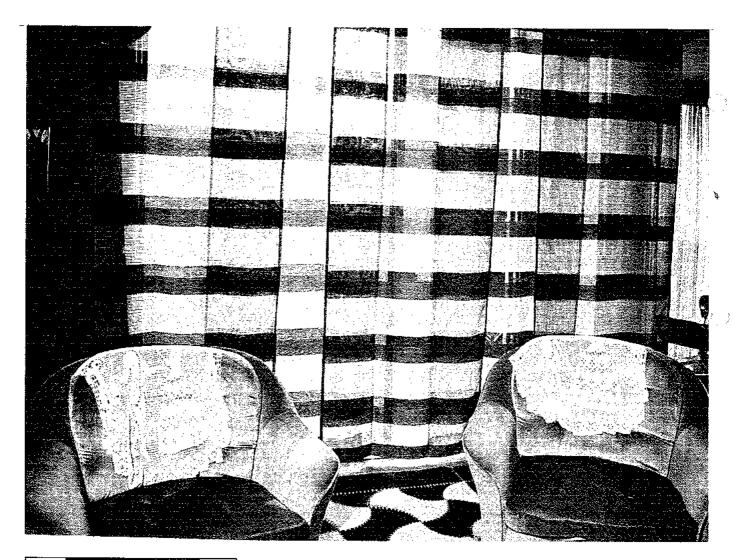
○ [ ○ [ □경기지부-△오세형회원/ 강남고려병원 / 4 . 4

△옥휘철회원 / 성모병원 / 4. 3 △김창규회원 / 성남병원 / 4. 18

□부산지부-△정병화회원/ 내건축설계사무소/3.4/

자택

### 나의정직 너의믿음 사라지는 불신풍조



### 인테리어 디자인

## 직 물 장 식

조 성열 큐빅디자인연구소

#### ●영 역

실내장식에서 직물은 실내의 요소요소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물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실내 장식용으로 쓰이는 직물은 커튼용 직물, 침구용 직물, 가구용 직물, 바닥용 직물, 마감재용 직물, 벽 장식용 작물등으로 그 영역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커튼, 창막, 섬유로 된 발 등은 커튼 용 직물에 속하며 침대 커버, 배개 커버 와 시트 커버, 쿠션 커버, 테이블보 등은 침구용 직물과 가구용 직물이라 할 수 있다. 바닥용 직물에는 전체 카페트, 부분 카페트가 있으며 마감재용 직물로 섬유류 벽지가 있다. 벽 장식용 직물은 타피스트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실내 공간에 쓰여지고 있는 작물 장식 외 영역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커버지류이고, 다른 하나는 내 장지류이다. 그것은 또 단순 작물과 장 식 직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직 물 장식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공통성이 있다. 그것은 모든 직물이 구조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직물이 다른 구조체에 지지되 거나 밀착되어 표면으로 나타나는 장식 재료이기 때문이다.

#### ● 직물의 장식성

직물이라 하면 우리가 입는 의복을 대 를 표적인 예로 들 수 있지만 주기 공간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내에 쓰이는 직물은 사용 목적에 따른 실질적인 용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과 함께 실내의 장식재로서의 가치를 지니야 한다.

특히 직물 강식은 여성적인 성격의 작업으로서 실내를 보다 풍부하고 살찌게 가꾸려는 여성들에게 주요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직물 산업의 발달은 복지 산업 뿐만 아 니라 가구용 직물, 실내 장식용 직물 등 장식재로서의 직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물 디자인이 활 발히 연구되고 있다.

작물은 사람의 피부를 감싸 인체를 보호하는 재료로서 그 촉감이 부드럽고 감칠 맛이 나는 재료이다. 직물은 옷감 시트 커버, 커튼류에서 실내 바닥과 벽의 내장재로까지 널리 쓰여지는 장식적 가치를 지닌 재료로 발전하고 있다. 또 직물은 내장재 이외에 타피스트리 같은 순수 장식물의 뛰어난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내의 직물 사용에 있어 실용적인 목 적보다도 미적 효과를 위해 계획되는 경 우가 많이 있다. 직물은 그것이 갖고 있 는 독특한 표면의 짜임새로 해서 다른 장식물보다 실내외 부드러운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프린 토가 잘 된 천, 아름다운 문양의 천, 색 감이 선명한 천 등은 장식적 요소가 매 우 많으며 마직, 모시, 삼같은 자연 섬 유도 자연색 그대로의 색감과 질감을 살 려 실내의 주장식물로 부각시키면 멋진 실내가 된다.

장식적 직물의 선택은 각각의 섬유가 가지고 있는 재료미를 최대한 살리고 용 도 계획을 수반한 미적 감각을 적용시켰 을 때 살내의 장식물로서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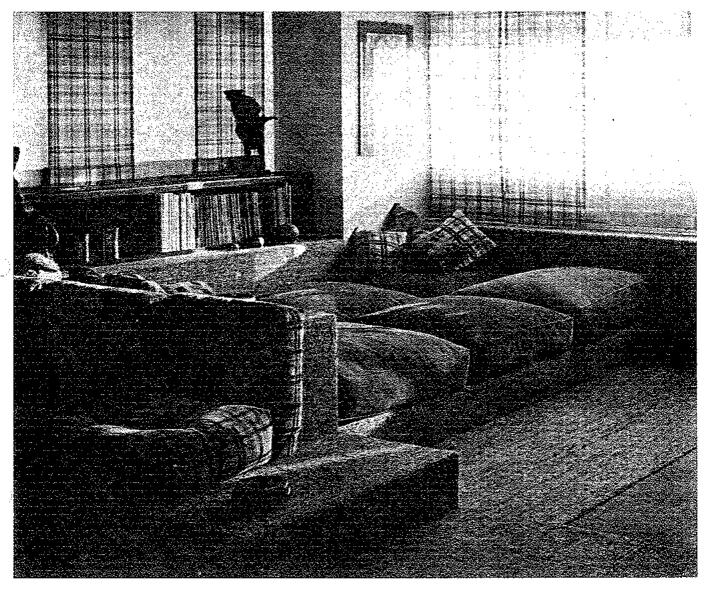
#### ●쿠션커버

의자나 침대 등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가구위에 안락하고 포근함을 주기 위해 놓여지는 쿠션은 그 커버의 색상과

디자인에 의해 실내의 움직일 수 있는 장식물로 등장하고 있다.

쿠션의 커버를 이루는 직물은 촉감이 좋고 가벼우며 푹신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택하여야 한다. 부드러운 질감의 천, 프린트된 직물, 직조로 된 것, 털실로 뜨개질한 것 등이 쿠션의 커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쿠션의 모양은 그것이 놓여질 가구의 디자인 및 가구에 사용된 재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쿠션 커버는, 시트 커버와 동일 재료 또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재료를 사용하 기도 하지만 강렬한 색감, 특징 있는 무 늬가 있는 천을 사용하여 한 실내의 포 인트가 되는 장식물로 부각시키기도 한 다.



#### ●시트커버

실내에 배치되는 가구에는 가구 위에 천을 씌워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도록 마감한 가구가 많이 있다. 직물은 소파, 침대 등의 커버로 흔히 이용된다.

작물로 된 시트 커버는 촉감이 부드럽고 세탁이 용이하며 실내의 장식물로서도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야한다. 그리고 가구의 실용적인 면을 생각하여 질기고 신축성이 있는 천으로 덮어야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시트 커버의 질감, 색상, 무늬는 전체 실내와의 조화를 생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벽지라든가 바닥의 카 페트, 커튼 동과 통일성있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대는 침실에서 주된 가구로 배치된다. 따라서 침대의 디자인과 배치는 침실 공간 연출의 주역을 이룬다. 침실에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침대는 그것이 갖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실내 연출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침대의 둘레와 머리 부분은 규격적인 목재, 철 등의 재료미를 나타내지만 매트는 두 겸 또는 세 겹의 커버와 그 위에 덮는 리커버로 치장된다.일

반적으로 일컫는 침대 커버는 리커버를 말하며, 방 정리, 실내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침대의 디자인과 이미지는 대체로 침대 커버에 크게 좌우된다. 그 까닭은 침대의 넓은 부분일 뿐 아니라 침실의 중심부에 비중있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침대 커버는 머리벽을 제외하고 전부 덮어 씌우는 것과 침대 윤과을 살리고 매트리스 부분만 덮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나 후자의 방법이 세련되고 전체 살내를 잘살려 줄 수 있다. 침대 커버를 침실 가운데 배치되는 한 폭의 그림같이 인식하면 대담한 직물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다.

#### ● 날염과 염직

직물 다자인에 있어서 염색 기술의 역할은 대단하다. 자연 섬유나 인공 섬유는 색감의 특성이 원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착색, 또는 탈색에 의해 의도하는 색상을 내게 된다. 그렇게 볼 때섬유의 아름다움은 염색 기술에 의해 유발되고, 또 직물의 대부분은 날염 처리가 된 것들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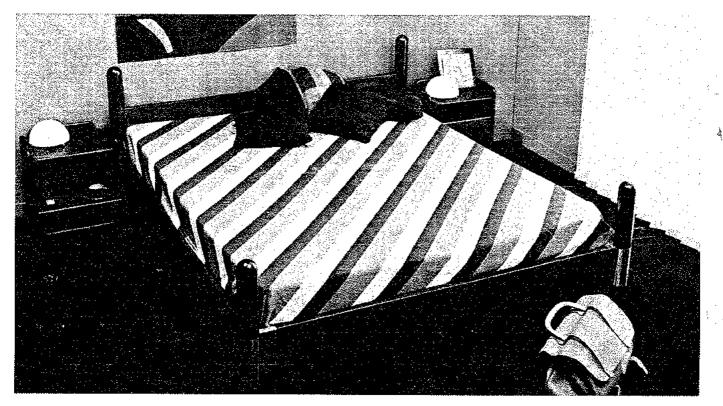
섬유 디자인에서 염색만큼 다양한 것

은 없다. 날염과 염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색상과 독특한 제작 기법에 있다고 하겠다. 표면에 스며든 색상은 섬유의 조직 깊은 데까지 침투되고 또 그것은 고르게 분포되어 균일한 색감을 준다. 그래서 섬유 \*외 착색은 페인탕의 촉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부드러운 섬유질에 엷게 물든 색상은 섬유의 구김을 따라 오랫동안 견디며 세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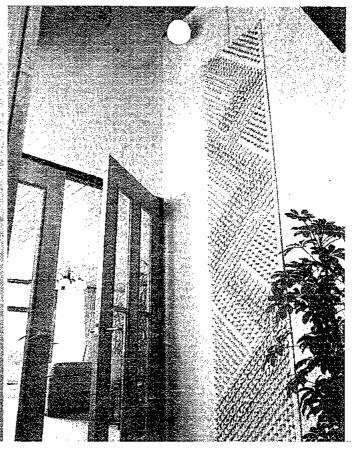
역직 디자인은 2방연속무늬, 사방연속무늬등 규칙적인 문양을 담은 양산적인 것과 주제를 가진 회화적 내용을 담은 것이 있다. 실내 공간에서 섬유를 장식의 포인트가 되게 한 경우에는 회화적인 섬유 디자인이 효과적이며, 실내의 윤곽 부분에 사용하는 직물은 날염 처리와에 염색사의 직조 방식으로도 생산된다.

#### ●스크린

직물이 실내에 이용되는 것으로 창가 리개를 생각할 수 있다. 창가리개는 커튼, 불라인드 커튼, 창막, 발 등 다양한 형 태로 만들 수 있다. 직물로 된 창가리개 는 창의 본래 기능인 통풍, 채광의 기능 을 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창을 장식하







는 역할 또한 크다.

성유 커튼은 프린트된 천, 레이스로 된 것, 두꺼운 천, 얇은 천 등 다양한 소재와 설치 방법의 구사가 가능하다. 직물로 창가리개를 하여 장식 효과를 거두려면 창 옆의 벽면을 정리해야 한다. 무늬가화려한 창가리개를 쳤다면 그 옆의 벽은 무늬가 없는 단순한 벽이어야 효과가 있다.

직물이 스크린 재료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직물이 가지고 있는 편편하고 고른 면의 장점 때문이다. 고르게 퍼지 는 넓은 면의 형성은 직물을 재료로 하 여 간단한 원리로 손쉽게 할 수가 있다. 스크린의 특징은 가볍고 편편한 막으로 서 개폐가 용이하다는 데 있다. 직물의 윤곽, 또는 직물의 상하에 직선 유지를 위한 봉을 대고 서로 잡아 당기어 장치 하면 고운 스크린 면이 형성된다.

실내공간의 스크린에 쓰이는 직물은 우선 신축성이 적은 견고한 조직의 것이 좋다. 스크린은 매달거나 잠아당겨 놓은 상태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잘 늘어 나고 쉽게 구김살이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한편 스크린용 직물은 면이 곱고 섬세해야 한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을 넣 은 직물은 프린트 또는 날염면이 곱고 섬세해야 정교한 프린트 효과가 생긴다.

문양이 없는 단순 직물의 장식 스크린은 백색과 대비되는 색채 스크린을 조화시켜야 한다. 한 폭씩 길게 독립시켜 늘어뜨리고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면 흰색 폭, 녹색 폭, 노랑 폭 하는 식으로 서로 옮겨 가며 색대비를 변화시킬수있다.

#### ●타피스트리

벽 장식용의 타피스트리는 직물 장식 영역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대에는 동굴의 입구를 막거나 인 디언들이 빠오의 입구를 막아 보온을 유 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피스트리가 쓰 여졌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실 용적인 목적보다는 실내의 장식적 예술 품으로서 가치를 더욱 인정받는다.

타피스트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면사, 마사, 모사, 견사, 화학사 등의 다양한 실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법 또한 다양하여 입체감 있는 실내 장식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타피스트리로 장식된 벽은 어떤 다른 장식품에 비길 수 없는 섬유의질감, 유연성으로 실내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한다.

실내 공간의 장식물로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타피스트리는 흔히 벽을 배경으로 배치되지만 요즈음에는 인테리어 풀라자의 공간에 매달기도 하고 호텔과 박물관 등의 거대한 로비 바닥에 배치하여 내려다보게도 한다. 타피스트리의 장식성은 색감, 질감, 볼륨에서 각각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실내 공간 속의 다른 요소와 대비를 이물 때 더욱 큰 장식 효과가 생긴다.

타피스트리의 강한 원색은 백색조의 단순화한 실내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힘을 느끼게 해 준다. 무겁고 어두운 실내 에서는 양털과 같이 회고 빛나는 직물이 강한 대비를 이룬다. 자연섭유의 은빛 물 절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백색조의 타 피스트라는 재료미를 강조한 입체적 패 턴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좋다.

### 외부환경설계

- 주차장 -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造景學科教授

현대생활과 같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지배적이고 중요한 생산품은 자동차일것이다. 인간의 어떤 다른 발명도자동차의 발명만큼 빠르게 경제·경관과생태적인 변화를 급속도로 변화시킨것은 없을것이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연료의 생산,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시장의 개최과 이용자의 욕망과 편리를 충족시키기위해 이동시키기위한 도로 개발의 필요성은 인간 생활 구조뿐 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동차의 크기나 모양이 어떻든간에 공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으며, 외부환경조성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있다. 표준적인 자동차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에서 최소 15m²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거 · 쇼핑 · 여가생활과 작업장으로 쉽게 접근하려는 편리의 제공의 열망으로 생활의 편리를 위한 공간의수요와 더불어 더 많은 공간의 주차와도로시설 설계가 개발의 원인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요작음 서울도 재개발과 문화수준의 항상으로 얼마나 많은 아스팔트

와 콘크리트의 공간이 소요되고, 필요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주 차공간이 자동차로 가득찾을때 그들은 일 반적으로 보기 흉하고, 또 텅비어 있을 때에 황량한 감마져주며, 인간의 편리 제 공이 인간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 도 있다.

주차는 노상주차와 노외주차로 구분되 며, 노외주차는 지하주차, 옥내주차, 옥 상주차와 지표면주차를 포함한다. 조경 설계의 관점에서 도로환경과 관련자어 생각하려는 것은 지표면주차 즉 주차장 시설의 설계에 대해 지형의 변경으로 시 계의 조절, 도로에 근접한 면의 차폐,주 차장의 형태나 구조, 주차장 환경을 인 간의 편리와 안전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차장은 완 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차있을 때는 시각 적으로 상당히 보기 흉하다. 반대로 텅비 어있을때는 흰색과 노란색의 표시로 딱 딱한 격자나 물고기 가시 모양으로 표시 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대해(大海) 처럼 보인다.

여러 형태의 외부환경 개발을 주의스

럽게 동시에 계획하여 수행되어가고 유 지된다면 추차지역의 거칠거나불유쾌함 을 완화시킬수 있다. 가끔주차공간의 조 경개발은 전체적인 경관계획에서 제외되는 어버리는 면이 많다. 비록 이러한 시설 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계획가나 건축가 와 다른 실계가들에게 관심되어지는 것 은 지나치게 보행환경에 치우치는 것 같다.

주차장의 개발은 직접적으로 주차장법 이나 전축법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연면 적에 대한 비율로 최소한의 주차면적을 통제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면에서 혹은 공간의 효용성때문에 나머지 자투리 땅 에 할애하는 형식으로 경시되어왔다.

효과적인 주차장 개발을 위해 주차장의 위치, 주차장 내외에서 시각적인 고려및 배수처리를 위한 바닥포장, 보도와차도 패턴 그리고 승하자하는 공간과 이용 시설물의 접근하기 위한 순환체계와 전입등을 지형과 건물의 위치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된 자동차와 주변에 무분별하게 흩으려 놓은 소수의 나무들이 궁극적인 대답은 아니다. 또 외부환경설계가 대지 자체나 주위에 존재하는 고유의 문제를 인시하지 않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효과적이고 낭비적이다.

#### 1. 위치와 진입

주차장의 설계는 차도의 체계, 주차장 과 관련된 구조물의 용도와 수용력을 고려한 단지설계및 계획과정에서 다루어져야한다. 주차장의 위치는 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로 부터 편리하게 진입할수있고, 운전자가 주차시키고 이용하려는 건물이나 활동장소까지 최소한의 보행거리를 유지시킨다면 우선 성공적이다. 공간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건물이니까 시각적인 고려가 우선되겠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한한 기존의 식생과 지형을 보존할수 있고, 주위 환경개발을 증진시킬 수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가장 적절한 보·차도 패턴의 분석으로 합당한 위

치를 결정하여야한다. 주거단지개발에서 주차지역은 단지 주변에 조성하고 내부에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자동차와 보행인의 충돌을 최소화시키며, 작은 규모로대규모 주차시설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용자에게 대체로 만족스럽다. 주거단지에서는 보행거리 60m이내에서 주민의편리를 만족시켜주어야 하지만, 상업지역에서는 고객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고객유치를 위한 미적인 환경이 우선하므로시설물의 시각적인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대거리가 100m되는 위치가타당할 것이다.

주차장의 전입은 가로교통의 마찰을 국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대수 400대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차장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주차장의 면적이 6,000m²

이상되는 경우는 출입구를 분리시켜 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거리는 가로면에 연해서 10m이상 서로 떨어져 설치되는 것이 안전하다. 필요한 출입구는 보행인과 충돌이 많은 정류장, 횡단보도와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는 일정한 안전거리이상을 유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충돌이 없도록 건널목, 교차로와 인접한도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 설치해야한다. 또 차도의 폭원과 진입에 따른경사로가 불편이 없는 안전한 위치를 설정해야한다.

#### 2. 바닥표면과 배수

주차장의 정지계획(整地計画)은 지형 과 지표상태에 따라 결정되며,대부분 불 침투표면으로 포장된 지역으로 구성되어 유출량(流出量)은 거의 100%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을 제거할수 있는 배수체계가 필요하다. 아스팔트 표면처리가 사용된다면 최소구배는 1.5%이며,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1~2%는 유지하여야한다.

유출량은 종단구배나 포장된 표면에 경사를 두어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 유입구를 통해서 제거하면 된다. 주차하는 구배를 연석(線石)방향으로 두면 전동장치를 빼고 주차시킬때 자동차가 주행선으로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키거나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일이 없으므로 유리하다. 그러므로 배수패턴은 주차장의 지형관계와 안전을 고려하여 연석방향으로 집수할 것인가 주차동로에 집수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주차지역의 표면을 침투성재료로 서 처리한다면 지하배수시설이 제공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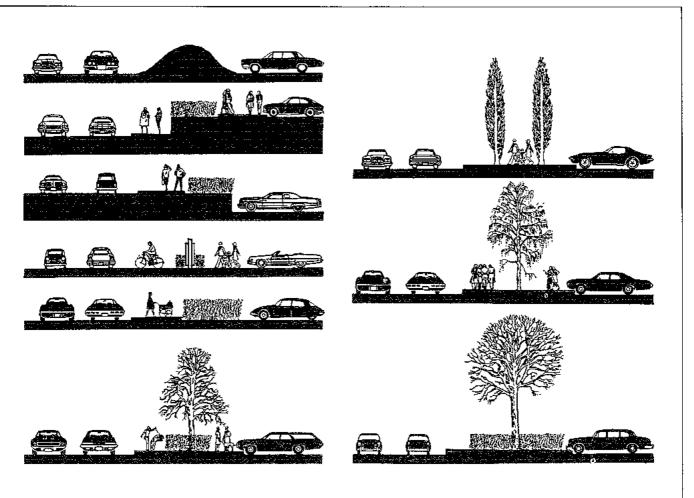


그림-1. 인접도로, 보행인의 위치와 주차장의 차폐 방법

지는 것이 적합하고, 배수 구조물에 대한 필요는 제거되어지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3. 차폐, 분리및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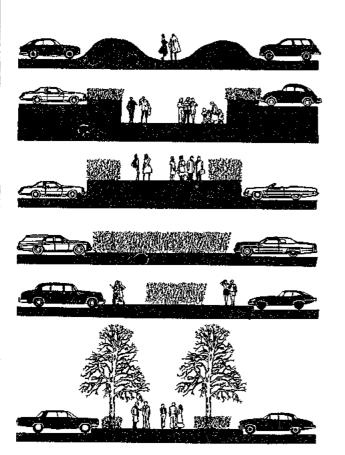
조경개발이 없는 주차장은 외부에서 볼때 추하고, 방향성이 없어 보이며, 각양 각색의 차량들이 환경을 혼란시킬 뿐 만아니라 주차장에서 방향을 잃기가 쉽다. 아무리 진열창내에서 볼품있는 자동차라도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을때는 인위적인 환경을 증진시키지는 못하며 시각적인 쾌적함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주차장의 외부에 대한 차폐는 필요하며, 또대규모의 주차장은 인식되어질 수 있는 소규모로 분리하여 환경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외형이 목표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건물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이 건물을 압도하기 때문 이고 또 주차된 자동차의 높이와 지면에 서 통행인에게 보여지는 자동차의 높이 가 건축물을 차폐시키는 이유와 통행인 과 주차장 사이에 몇 겹이 자동차 벽때문 이다. 차폐는 주위로 부터 주차장의 영 향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비 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주차장 주위의 인공재료에 의한 울타리나 관목이나 교목 의 식재(植栽)는 주차시절을 차폐시킬 수 있다. 도시에서 일반적인 것은 건물 내 부에 자동차를 감추는 것이나 외부에 두 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개발은 그림-1 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차장의 변을 따라 방축(landscape fesms)을 이용하거나,

주차지역보다 보행인의 시점(視点)을 높이거나 낮춤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있다.

주차장의 영향을 국소화시키는 방법은 그림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적의 분 리에 의한 축소, 높이의 변화와 식재에 외해 이루어 질 수있다. 주차지역내외 식 재는 멀리서 보는 주차지역과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변화성을 중가서키고, 기대한 용량을 감소시킨다.

주차장의 높이에 따른 시계는 전체 대지의 연구에서 결정하여야한다. 조경개 발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떤 높이와 밀도를 가져야만 한다. 지형은 적절한 휴 식각을 가져야하고, 식물은 어떤 성장과 생태에 따른 수관(樹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에 따라 숙고되어져야 할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3차원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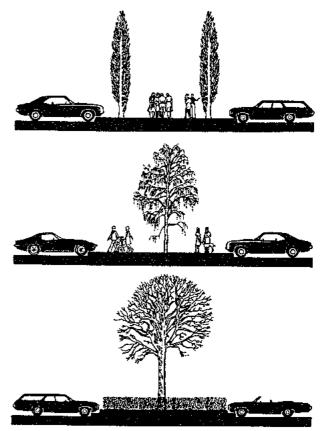


그림 - 2. 주차장의 분리 방법

주차장에서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 인의 안전을 고려해야하며, 보행인을 위 한 통로는 교통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국 소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이용 시설물을 항해 보도가 반들어져야한다

이러한 보도는 자동차를 타고 내리고 주 차시키는 전체적인 체계내에서 수립되어 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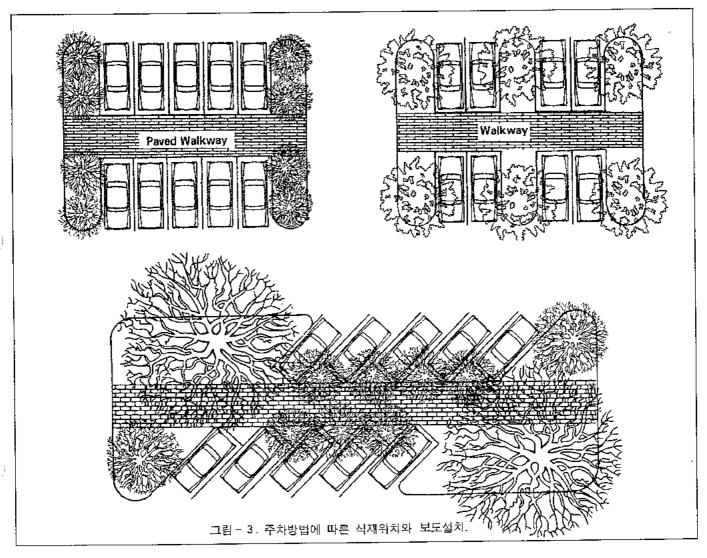
#### 4. 주차배치와 그늘제공

이용자들의 주차습성은 주차장 설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도시의 운전자 들은 일반적으로 교외의 운전자보다 더 좁은 주차폭도 받아 질 것이다. 여가활 동을 위한 주차는 자동차들이 쉽게 출입 하고 부피 큰 물품을 다루기 위해 넓은 주차폭을 요구한다. 설계자물은 이용자 돌이 주차폭의 중앙에 정확하게 주차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주차폭이 너무 좁으면 운전자는 경계선을 무시하고 가까이 있 는 주차폭에 겹쳐 주차한다는 사실을 기 억해야한다.

주차장의 배치는 많은 수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필연적이 아니라 적합 한 통로, 보행도로, 주차시키기 위한 편 리한 회전반경, 효과적인 통행, 쾌적한 주차 환경과 편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수직배치(90도 주차배치) 가 가장 많은 주차공간을 만든다. 45도 나 60도 주차배치는 주차시키는 방향 감 을 줄수있고, 주차하기에 비교적 쉽다. 이 외에 도로의 연석과 나란하게 주차시 키는 평행주차방법이 있으나 가장 어려 운 주차방법이다 (그림-3).

햇볕이 내려 쪼이는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시킨 자동차에 돌아오면 운전자는 불쾌한 감을 먼저 갖게된다. 그늘이 없 는 곳에 세워둔 자동차의 철판은 만질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 그러한 자동차의 내 부는 창문을 열었을때라도 앉으면 불쾌 하다. 냉방장치를 갖춘 자동차라도 서원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식재에 의하여 그늘을 제공하면 자동차 를 탓을때 시원한 기분을 줄 뿐만 아니 리 포장재료에 햇빛이 반사로 부터 보했 인에게 피로를 덜어 줄 수 있으며, 복사 열로 완화시킬 수 있다. 식재를 위한 위 치는 주차수를 감소시키자 않는 각도주 차의 회전부분 공간을 이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 \*



#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劉 香 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1. 교육시설과 통합적·개방적 교육 이론

교육시설은 교수 학습의 과정을 지원 하고 자극하며 강화시켜서 교육의 효과 를 확대하는 모개체이다. 이러한 모개체 는 교육원리를 중심으로 건축되었거나 설치되었든 시대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 재로 구분된다. 과거의 교육시설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거나 교육적인 의미 가 없는 건축사업의 일환으로서 건축된 작품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교육시설은 20세기 후반에 미국을 위시하여 여러나 라들이 점차로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건 축물이며, 설치물이다. 교육시설이 과거 의 개념인 주거공간의 기능에서 현재의 개념인 지역사회화로 변화시키고 있는 요인은 현대교수 - 학습에서 보는 통합적 · 개방적 교육개념이다.

#### A. 학습이론의 측면

교육의 기본목적이 학생행동을 교정하고 변화시킨다는 점을 받아드리고 있는 현대교육은" 문화를 전수하는 것을 유일 한 교육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학습이론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학습을 외부에서 제공한 과정으로 생각했고, 교사가 기대했던대로 학습자가 기억할 수 있고, 장래에 필요하다고 보는 사실들을 쌓아두는 학습자는 단순히 정신적 존재일 뿐만아니라 통합된 유기체로서 행동하고 반응을 보이며, 학습내용을 향한 흥미, 정서, 기술, 정신력, 지능을 모두함께 학습에서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다양한 특징을 인식하여 다양한 학습환경을 설계하고 설치하며 유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습은 학교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학습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갖는 모든 경우에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운영 때문에 교육시설은 학교안・밖에서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밖의 경험은 학교안의 경험보다 좀더 목적 달성을 만족스럽게 해주며, 직접 경험하는 것이기때문에 학교밖의 학습은 좀더 연속적이며, 정확한 것이다.

#### B. 교육과정이론의 측면

교육과정은 "경험적 촉면에서 보면 학 교가 이미 설정한 지도범위로서 교육경 험의 조직체이며, 어떤일에 종사하도록 학습자에게 자질을 키워주는데 알맞는 최 선의 가능한 훈련과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설계된 조직체이다." " 동시에 "사회는 교육과정이 몇가지 철학적 배경 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다"" 즉 교육과 정은 아동의 본성을 사회적 개념에서 보 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를 훌륭한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하며, 아동의 본성에 따 라서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사회가 아동을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라 고 믿는다면 악한것을 극복하도록 교육 과정이 계획되어야 하며, 만일 . 사회가 아동을 선하게 태어난 존재로 생각한다 면 루소(Rousseau, 1712~1778)처럼 교 육과정은 원래 타고난 선을 개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 다. 만일 사회가 이동을 악도 선도 아닌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면 교육과정은 또 다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계획 하여야 한다.

아동은 전체적인 지역사회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학교는 오직 지역사회의 일부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아동이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점차적으로 아동의 생활에 더 많은 책임을 느끼는것 뿐이며, 지역사회에 있는 부모와 비교해 볼때 학생에 대한 책임은 사회도 지고 있다."

- IF 19) Anne Richardson Gayles(ed.),
  Instructional Planning in the Secondary School, (New York;David Mckay Co., Inc., 1974), PP. 47~49.
- 註 20) Thomas J. Sergiovanni & David L. Elliott, Educational And Organizational Leadership in Elementary School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5), pp. 187.
- 註 21) Thomas J. Sergiovanni & David L. Elliott, Clfid., P. 187.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및 서재 등에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이 사는 현실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고, 학교밖의 세계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지루해 하는 것이다.

그런나 현대교육과정은 점차로 여러종 류의 교과영역을 조화시켜 실제로 경험 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 기서는 각교과내용을 합하여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또는 두게 이상의 교과목을 가르치게 될 때 한가지로 연결시켜서 이들 각각의 학 급에서 각각 다른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다.

#### C. 교수운영방법의 측면

아동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교수 - 학습전략과 관련된 여러가지 운영방법들이 있다. 능력별 집단편성, 동질집단편성, 생활적응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방법 가운데 시간편성에 있어서나 학생집 단편성에 있어서 또는 교수과정구조면에 있어서 현대교수운영방법은 통합적·개방적인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1. 모듈라 스케쥴

모듈라 스케쥴(Modular Schedule) <sup>23</sup>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실시해 오는 평균 50분 단위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무너트리고 10~15분 단위마다 여러종류의 내용을 융통성있게 실시하므로서 여러가지의 내용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고 동시에 매일 다양하게 시간표의 내용을 변경시키므로서 새로이 도입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용이하게 채택할 수가있다.

#### 2. 소집단의 교수운영방법

소집단의 교수운영방법 가운데 미니코 스(Mini Course) <sup>24</sup>가 있다. 이것은 프로 그램의 융통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 규과정이라기 보다 학생이나 교사가 교 육내용에 대해 상당히 흥미를 가질때 생 기는 과정으로서 시간단위 길이가 정규 과정보다 짧기 때문에 일주일 또는 10주일 과정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이 방법의 이점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르치는 교사의 상당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평가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 3. 집단교수

집단교수(Team Teaching) 25 는 교사집 단이 계획하고 준비하며, 중핵과정의 다 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서 부터 생긴 것 이다. 그래서 교수에서 다양한 방법을 채 택하는 교사집단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 이다. 집단교수는 학급에서의 개별적 교 사일학생의 관계를 깨고 서로 다른 방법 과 서로 다른 교사에 의해서 제시되는 「교수일학습」환경의 다양한 대안을 제 공하고 교사에게 교수방법을 배정하게 한다.

#### D. 교육목표의 측면

우리나라 교육법에<sup>26</sup> 명시된 각급학교 의 현행 교육목표를 보면 각급학교의 교 육은 통합적·개방적 개념을 지니고 있 다.

유치원은 아동 스스로 통합한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통합된 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일상의 습관을 기르고 신체의 모든 기능의 조화 적 발달을 도모한다.......

돈 활동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비교적 대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유능한 교사로서 등장될 것이며, 학생은 소규모의 토론집단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내용은 참더 다양하게 되며, 학생들의 흥미, 능력, 성취배경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때에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개별화하는 책임을 피할수 없다" 또 본다면 그 개념자체는 개방성의 비중이 상당히 강조된 것이다.

#### 3. 교육시설의 다목적 · 공용적 기능

"앞으로 현대교육을 중심으로 지난날 의 교육시설을 되돌아 본다면 하나의 신 화적인 일로 생각될 것이다." 즉 대부 분의 학습이 교실에서 이루어 졌으며, 교 사가 제시한 교육자료, 교과서 등에 의 해서 이루어졌다는 일들일 것이다. 아직 도 현대학교의 교실은 절대적이고 정확 한 행동규범과 고정된 시간과 공간이 통 합되는 장소이다. 이때에 학생은 정해진 몇십분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 일렬로 배 열된 줄은 학생이 앞쪽만 보도록 제한되 어있고 친구들의 등(back)만 쳐다보아야 하며 오직 칠판에 있는 내용만을 볼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이러한 물리적 조건 을 가진 교실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 고 이와같은 교수중심의 교실환경을 위 해서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

- 註 22) Daisy M. Jones, Curriculum Targets in the Elementary School,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7), PP. 172~173.
- 註 23) Thomas J. Sergiovanni & David L. Elliott, op. cit., P. 187.
- ## 24) Charles A. Bucher & Nolan A.
  Thaxton, Physical Education For
  Children, (New York; Mk Millan
  Publishing Co., Inc., 1979), PP.
  330-331.
- 註 25) Thomas J. Sergiovanni & David L. Elliott, op. cit., P. 188,

리한 유형은 모든 각급학교와 각급 학년 의 교실에서 엿볼 수 있다. 학생들은 오직 교실에서 교사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모든 집중을 교사와 학습자료에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산만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이다. 왜나하면 긴장은 계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교실환경은 「앉아서 배운다」라는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설계된 교수중심의 환경이다.

「권위, 균일성, 훈육」의 측면에서 그 리고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은 슊야인(Schein)과 베니스 (Bennis)가 칭한 것처럼 "앉아서 배우는 방식을 지닌 교수이다. 그러나 교수중심 의 교실환경이 발휘하는 교육효과에 대 해서 교육비판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다."\*\* 몬데쪼리(Montessori, 1870~1952)에 의 하면 "교사는 신중하게 교육자료를 선정 하고 교실환경을 정돈하며, 이동이 독자 적으로 탐구할 때 안내자 역할을 하며 환경을 통합하는 사람이다."3" 교실이 물 리적으로 제한을 받게되면 학습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없다.이러한 학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 생들과 함께 잔듸밭으로 나아가 즐거운 자연의 변화를 맛보며, 비록 길에서 사람 소리와 자동차 소리를 요란하게 느낀다 고 하여도 생활의 역동성을 배울 수 있 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수중심의 학습환. 경을 학습중심의 학습환경으로 변화시키 지 않는 한 교실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수중심을 학습중 심으로 개선하는 경우에 반드시 현대교 육시설은 다목적·공용적 개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유치원 · 국민학교 · 중학교의 교육시설은 더 이상 학교건물과 운동장 의 개별적 기능을 고집해서는 않된다.

왜나하면 여러나라에서 보는바와 같이 현대교육이 강조하는 통합교육과 개방교 육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 교의 교육시설을 통합하고 개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들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가지 시설을 다목적· 공용적으로 활용하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학습활동의 다양성에 일치하고자 학교건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도서관·상점·정부기관·일반경 영실무실시 및 공장시설이 모두 활용되 면서 학습활동을 이끌어 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사 회에서도 학습활동은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교육시설은 가능한 한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인을 다양하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이 바뀌어갈 것이다.

학급학생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장래에 필요한 학교시설은 10명, 20명, 50명, 100 명 단위 등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교실을 건축하여야 한다. 다양한 교수방법과 다 양한 교육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기준을 변화시 킬 것이다. 동시에 몇충씩 쌓아올린 규 격화된 건물층과 60~70명 단위에 1명 교사를 중심으로한 교실을 변화시킬 것 이다. …… 반면에 학생 스스로 읽고 듣 고 필름을 돌리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 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과학기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교 구를 활용하고 다소 개별학습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학습자료실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특히 중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실 수와 교실의 크기를 분명하게 평가하기 는 어렵다. 예를들어,

"지금 활용하는 학교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보다 앞으로는 학생당 교실의 확보면적이 줄어들면서 400명이하의 수용면적을 필요로 할 것이다." 357

이와같이 어림해서 예측하는 방법 이외에는 정확한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시설을 결정해주는 교육배경인 학습이론이라든가 또는 교수법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체제는 사회변화 요인에의해서 변화된 교육철학에 따라서 변화되며, 이것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시설이기 때문이다. 장래의학교들은 지식의 가두에 서서 학생들이지식을 이해하는데 보다 큰 효과를 받휘할 것이다. 교과서와 교사의 교수준비는

학생에게 있어서나 학생이 학습하고자 하 는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더 이상 만족 할만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시청각자료나 기기등을 이 교실에 서 저 교실로 운반하여 활용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완전한 전기가동장치가 설 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실에 있 는 폐회로 텔레비존을 활용할 수가 있다. 또는 여러종류의 시청각매개체를 설치하 게 될 것이다."33 학교시설을 경제적으 로 설계하여야만 교실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시설 절계는 다목적 · 공용적이어야만 활용도가 높아 진다. 또한 학교시설은 건축가, 기술자, 과학자, 교육자들이 함께 설계할 것이고, 이렇게 설계될 때 교실은 반드시 제 기 능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교구, 교육자료, 교육기기 및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은 텅빈 교실은 교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지나치게 특정영역에서만 활용될 때에도 비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르며 건축계획상다목적으로 설계되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교육시설의건축·관리·활용 및 설치의 조건이 교육효과를 보일 때 여러가지 시설들은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조건이 될 수 있다.

註 26) 문교법전편찬회(편), 문교법전 (서 울:교학사, 1984), P.28

E 27) Lawrence E. Metcalf, et.al., Secondary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66), PP. 365-366.

进 28) Anne Richardson Gayles, (ed.), op. cit., PP, 234~235.

註 29) Thomas G. David & Benjamin D. Wright, (eds.), op. cit.. P. 75.

<sup>## 30)</sup> David and Wright, (ed.), *Ibid.*, P. 77.

El 31) David and Wright, (ed.), 1bid., P.77.

註 32) Lawrence E. Metcalf, et.al., Ibid., P. 376.

#### A. 다목적 기능

버갓트 로데(Birgit Rodhe, 1976) 가<sup>34</sup> 지적하였듯이 변화란 새롭게 가치를 형 성해 줄 때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교육에서 중요한 변화는 사회화이 며 이것은 통화적 또는 개방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주었고, 동시에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다목적이고 공용적인 교육시설의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학교건물들을 기능적으로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5

과거의 학교는 원래 학교안에 국한된 학습에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학 교는 학생들이 이미 학교밖의 많은 정보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쉬지않고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내의 학습환경으로는 학습효 과를 높일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을 중 심으로한 학교교육시설은 지역사회시설 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서로 시설을 공용하든가 또는 교육시설을 지역사회시 설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 시설은 가정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가정은 부모들의 직장 또 는 외부활동 때문에 가정교육의 부재현 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아동들은 부모의 사랑과 지도와 양육의 손을 학교교사에 게 기대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학교교 - 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최초의 단계인 가 정과 같은 학교를 설계하지 않으면 아동 들은 국민학교교육을 받는데 비적응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적응문제들이 생 길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유치원 교육시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대사화에 사는 청 소년들도 현대가정에서 혼자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학교에는 공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설을설 치해야 한다."36 이렇게 광범위한 기능 을 발휘하는 교육시설은 역시 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역사회화 되어야만 개방교 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B. 공용적 기능

교육목적과 지역사회목적을 통합해서 동시에 달성시켜줄 수 있는 조정된 시설 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교육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을 통 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적규정을 가지 면 "시설비를 절감시키고도 성인교육시 설과 사회오락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설과 사회오락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3% 교육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연결되어 갈 때 관련된 법기준을 새롭게 알고 있 어야 한다. 학교건물이 새로히 신축될 때에는 국가의 공동건물을 학교교육시설 로 또는 지역사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는 법기준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신축해 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법 시행령제194 조에서 보듯이 학교교육상 지역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의 시설은 사회 교육 : 기타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설 립자가 공공성을 위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용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교장에게 외견을 들어서 이용하 되 공용의 원칙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 설치된 각종교육용지는 여러가지 실습지・양어장이 있으며 동・식물이 있 는 자연원 그리고 운동장, 수영장 등이 있다. 이러한 교 용지는 쉽게 학교장의 운영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공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 3 조 5 항에서는 동일 구내에 2개 이 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채 육장(또는 유원장)을 겸용할 수 있되,…, 제 6 항 체육장과 유원장에는 문교부 령 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각종교실 가운데에서도 특별교실이 없을 때에는 간이용 실습·실험·실기에 필요 한 시설을 설치한 학급교실을 공용한다 라고 되어있다.

#### 4. 다목적 · 공용적 건설이론

현대교육시설의 지역사회화는 학교시설을 다목적·공용적 기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시설의 건축이론이나 법적 시설기준령이 통합적·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A. 각종 교육용지

교육시설은 입지시설이든 생산지시설이는 교육용지와 교실 및 서비스시설이 균형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균형있는 통합교육과 정과 같은 통합교육시설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균형은 각급학교가 각기 지금의 시설비를 고정시켜 놓고도학교나 지역 사이에 교지를 통합하여 서로 개방시킨다면 중복된 만큼의 시설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지방교육행정당국의 교지매입비를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의 통합적·개방적 계획은경제적으로 계획되며 활용상 다목적·공용적 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능의 각종교육용지 가 운데 실습지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실습공간은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와 생산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있다. 실습교 육과정은 산업별로 분류하며, 그 기운데 에서 건축공간 즉 학교건물내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는 내용이 있고, 생산지에 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전자는 교실에서 다루게 되고, 후자는 실습지에 해당한다. 실습지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부분은 농업 과 수산업이다. 특히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바 로 농업 실습지와 수산업 실습지이다.

농업(또는 수산업) 실습지는 여러가지의 교육활동영역에서 통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첫째, 농촌지역은 학교에 농업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습지는 농촌에 대한 관심을 실습

<sup>## 33)</sup> Lawrence E. Metcalf, et.al., Ibid., P. 376.

註 34) OECD, School Building And Educational Change, (Paris; OE-CD, 1976), P. 11.

äf 35) Wilhelm Berger, Schulban Von Hente Für Morgen, (Berlin; Musterschmidt-Verlag, 1960), P. 11.

註 36) Wilhelm Berger, op. cit., P. 11.

을 통해서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지는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의 경우 입지에 설치되어있는 교실에 설 치되어있는 여러 종류의 소규모 형태로 분산되어 있어야 학생들이 다양하게 분 산되어 소집단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농업공간이 교실이었을 경우 구 조는 출입하거나 실습하는데 자유스러운 개방적 구조이어야 하며, 규모는 앞에서 제시한대로 소형이어야 한다. 다만 학교 별, 지역별로 편성된 학생집단의 수와 하나의 교실에 집합시키는 집단수에 비 례한다. 건축재료는 인공재료나 합성재 료는 피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해야만 실 습하는 학생들의 자체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 동시에 색채는 자연의 색을 유지 하여야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건축설계는 실습하는데 기능적이 도록 필수농구, 기기, 자료를 쉽게 활용 하도록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높이에 위 치하여야 하며, 방한, 방서, 전기, 급배 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오물 과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므로서 환경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째, 농업실습지나 교실은 학생 들이 교과시간 이외에도 설습할 수 있도 록 활용목적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한 다. 만일 실습공간이 열쇄로 참겨져 있 다면 그 시설은 잠겨져있는 시간만큼 활 용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비록 농작물이 학생들 때문에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다 하더라도 분실된 만큼의 경제적 가치와 분실될 그 시간에 실습의 기회에서 얻는 누군가의 교육적 효과를 비교할때 바로 그 시간에서 얻는 교육 효과는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의 것이다.

바로 이것은 창조적 가치로서 실습지의 가치가 된다. 네째, 농업실습지나 교실은 학교안에서 농업실습과 관련된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취미생활, 정서생활, 근로생활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농기기, 농구 동을 설치해서 지역사회 농지와 연결된 실습을할때 이러한 시설을 공용할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농사에서 사람·기계·자연환경의 조건이 일치하여 서로 작용하는면을 배우며, "점차로 농기기, 농구 등이 무거운 것에서 부터 가벼운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가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사고율을 줄일 수있다"."

#### B. 각종 교실

#### 1. 학급교실

학교건물내의 각종교실은 교과영역에 따라서 인문ㆍ사회계열, 실업계열, 자연 ·이과계열, 예능계열의 교실로 분류되며, 교수방법에 따라 이론교실, 토의교실, 실 험, 실습실 및 교사연구실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처럼 분류된 교실은 현실적으 로 더욱 세분된 교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 다. 음악실, 미술실이 있는데도 하급교 실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고 \_ 음 악ㆍ미술실은 없으나 강당이 있는데도이 것을 음악, 미술실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축, 관리, 설치의 면을 갖추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세분된 교실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교실에 관한 건축조건을 법규적으로나 이론적으 로 분석하여 기능적 교실을 설계하고 규 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인문·사회 계열 뿐만 아니라, 그외의 모든 교과영 역에 관한 이론이나 토의를 할 경우에는 보통교실 즉 학급교실에서 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영역의 수용량을 중심으로 각급교실과 그외의 실험 · 실습 · 실기실 을 비교해 볼때 학급교실은 도서실. 강 당과 같은 다목적 기능을 가지므로 이들 공간을 합한 구조, 규모, 재료, 색채, 설 계를 지녀야 한다. 물론 학급교실은 50 명 또는 70명을 단위로 건축된 면적에서 각교과목당 활용되는 시간을 관련시켜**서** 도서실과 같이 쉬지않고 활용할 수 있으 며, 이에 필요한 교구, 기기, 자료, 설 치의 공간과 학생의 책 · 결상 설치의 공 간 및 교사의 교수활동 공간이 설치되어

야 한다. 따라서 학급교실은 공간의 구조, 규모, 재료, 색채가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특성을 지너야만 여러 교과목들이 이러한 교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공용하게 된다. 특히 학급교실 공간의 구성요소는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는 공간이어야 하고 인간관계를 적극화시켜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 2. 실험·실습·실기실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가 점차로 통합적이고 개방중심의 경험을 강조하기때문에 학급교실에서 조차도 칠판과 분필을 사용하지않고 「오바해드·프로젝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배운정보지식들을 곧 실제화하도록 하는실험(과학·어학), 실습(실업계열: 농업, 상업등), 실기(예능계열:음악,미술, 체육)실을 이용하여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교육의 특징도 지적될 수가 있다

실험·실습·실기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학습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 교사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스스로하는 어학·통계·청각·정보태이프 실험이 있고 도움을 받는 과학실험도 있다.

이러한 실험실은 각과목의 특수내용과 특수목적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의 원칙이나 숫자상의 원칙은 -확실하게 세우지 못한다. 실험·실습·실기실을 설계하는 첫 단계는 이들 교실자체가 달성해야하는 기능들을 철저히 목 사목으로 작성해야 하고, 활동유형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동시에 이들 교실에 설치될 모든 교구교육기기, 교육자료 및 급·배수 등 관련된건축설비 등을 상세하게 목록으로 작성해서 물리적 환경의 제약성 등을 건축정

註 37) OECD, Building For School And Community, (Paris; OECD, 1976), P. 79.

註 38) OECD, op. cit., (US), P. 41.

註 39) Basil Castaldi, *Ibid.*, PP, 283 ~ 285.

보자료로 건축가에게 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주의한 점은 "실험·실습·실기등의 내용과 목적에 일치하는 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교실은 내용이나 목적을 공간으로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 C. 각종서비스시설

#### 1. 도서실

운동장, 학급교실과 함께 도서실은 가장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표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도서실은 관람하는 학생들이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도서 등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집단토의나 교수일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기능은 건축구조상 벽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의 개방된 공간속에서 관람, 서고, 참고자료, 시청각자료 등의 설치공간이 통합되어야 발휘된다. 각공간을 구조설 계하는데는 각기 발휘되어야 하는 특성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 2. 지원시설

각급학교에서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관련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가지의 지원시설이 있다. 이들중 제일 중요한 지원기능을 하는 시설은 교직원중심, 학생중심, 학교중심의 지원시설이 있다. 교직원중심 지원시설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설 계획이 통합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일학습과정의 기율을 높일 수 있는 다목적, 공용적 시설을 교육환경으로 설정하고 교육효과를 평가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

용시킬 수 있는 작업활동실 즉 교무실, 서무실, 등을 말한다. 학생중심 지원시 설은 학생집단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학생실을 말하며 여기에는 학생활동코너, 학생자원봉사코 너 등을 들수 있다. 학교중심 지원시설 은 그자체가 설치되는 초기에서 부터 가 장 공용적 기능이 높은 시설이다. 즉 학 교인구의 건강과 직결되는 시설로서 건 강쎈타(양호실), 식당, 화장실등을 말한 다.

이러한 지원시설의 건축은 건물내에서 중앙에 위치해야하며 입구는 활동내용에 따라 폭과 높이가 자유스러운 구조를 가 져야 하며 역시 규모는 개방적이어야 하 므로 지역사회나 학교들이 서로 공용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녀야한다. \*

자료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부령 제38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러목증 "원호처 가"를 "한국보훈복지공단이"로 "국립원 호병원지설"을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 병원지설"로 하고, 동호에 소목 내지 조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음 시량리 일원에 설치하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 국립 수산기술 훈련소의 청산·교육훈련시설 및 한 국어업기술훈련소의 사무실·교육훈 련시설과 각 그 부대시설
  - 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충청남도 대 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중축하는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 시설
- 조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 에 설치하는 핵연료주기시설, 원자 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 8 조제14호 충 "보목"을 "조목"으

로 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안정되는 일정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이러한 유형의 행위중 공익시설의 설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산진홍을 위한 연구시설과 원자력연구판련시설등 일부시설의 설치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추가로 허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부산직할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공간에서 발생되는 폐수·분 진·소음등 환경오염으로 그 임무수 행이 곤란한 국립수산진흥원·국립수 산기술훈련소 및 한국어업기술훈련 소의 정사·시험연구시설 및 교육훈 련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 구역인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을 시 링리 일원으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제3 호 소목).

- 나. 개발제한구역인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있는 한국에너지연구소의 기존시설을 확 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 7조제1항제3호 오목).
- 다. 핵연료성형가공분야의 국산화를 위한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 주기시설·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인 충청 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 단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제7조제1항재3호 조목).
- 라.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동 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에 국립수산진흥원·국립수산기 술훈련소 및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청사·시험연구시설 및 교육훈련 시설과 부대시설,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시험연구시설확장 및 그 부대시설, 한국핵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주기시설・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추가함(영 제용조제14호).

## 태양열이용 급탕시설보급설계도

CHZI 730-144 1985, 1.16.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정부의 탈석유 및 에너지 다변화정책의 일환으로 태양열 이용시설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적은 비용으로 손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이용 급탕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태양열 이용 급탕시설의 보급설계도를 별점과 같이 송부하여 왔기본지에 소개하오니 회원 제위께서는 관련업무에 적극 활용하시는 일반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특기시방서

기기 및 재료

#### 1. 집열기

용도 및 기능 :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용 가능한 열에 너지로 전환하는 기기로 규격은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며 설치경사각은 15°이상으로 방위각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정남 또는 정남에서 남동20°남서30°범위에 설치한다.

#### 2. 집열기 설치대 설치방법 및 구조

- 1) 지붕일체식: 경사진 스라브 지붕면에서 통풍등을 고려하 여 50% 이상 간격을 유지하 는 구조체로서 설치한다. (도 면참조)
- 2) 대지 또는 평지봉 : 집열기 하 단부가 지면에서 300% 이상 유자하는 구조체로서 설치한 다. (도면참조)
- 3) 각 설치방법에 있어 풍압하중 에 있어 동요 및 뒤틀림이 없 어야 하며 지붕면에 설치대를 고정에 있어 방수에 절대 만 전을 기한다.
- 4) 설치대 구조물은 50×50×4t 아연도금된 앵글을 사용하며 용접부위 및 연결부분은 광명 단 도장 2회 은분 마감한다.
- 5) 볼트 및 넛트는 부식성이 없 는 재질로 한다.
- 축열조 집열기에서 집열한 열을 교환

하여 급탕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저장조를 말한다.

재질: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 판(KSD 3705) 2t에서 2.5t 또 는 강판 3t에서 3.5t를 사용 한다.

구조: 원통형으로 제작 설치하며 압력용기 안전규칙에 맞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고 공기배기변, 안전변, 시수공급 및 급 탕온도감지기, 배수 밸브를 부 착할 수 있는 소켓을 부착하고 열교환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도면참조)

수압:제작후 5 kg/cm 이상의 수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온:그라스울 50kg/m'×50mm THK를 2 중으로 감고 착색아 연도 철판으로 마감한다. (도 면참조)

- 4. 팽창조(부동액 주입식) 배관내에 열매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밀폐형의 기성품을 사용한다. (EXTROL)
- 5. 전동변, 전자변(자동배수식)
  - (1) 용도 및 기능
  - 기. MV-1(전동변): 동파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전 기가 통하면 닫혀 있다가 동 파가능시에는 단전시킴으로 써 밸브를 열어 집열기 내의 열매채를 배수한다.
  - L. SV-1(전자변): MV-1이 열 려 배수시에 시수압에 의한 축열조 물의 배출을 방지하 는 벨브로서 전기가 통하면

열려있다가 단전되면 밸브가 🥬 잠겨 물의 배출을 방지한다.

- (2) 규격: 1/2"
- (3) 재료:청동주물체, 나사접함, 내부-특수강
- (4) 전원: 110V, 220V
- (5) 설치위치 : 지하건물의 축열조 물이 배출되지 않을 높이의 집 열공급 배관 및 집열기 배수 관
- 6. 집열순환펌프 열매와 접하는 펌프의 구성품 은 내열성, 내식성인 재질이어 야 한다.
- 7. 밸브류 및 부착물:청동제 KS 5 kg/cm²
- 8. 배관: 재료 동관(순탈산동 이음매없는 관)을 사용한다.
  아연도 강관: 탄소강관 KSD 3507
  아연도금 이음쇠: 가단주철제 등 KSB 1531
- 9. 수압시험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압력 <sup>1</sup> 의 1.5배 수압시험을 행하며 지정수압에서 30분 경과후 검 사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 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 다.
- 10. 판 보온공사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옥내 및 옥 외를 구분 마감한다.
- 11. 배판의 표시 벨브 조작등 배관을 구별하기 위하여 보온 후 배관의 종류

및 유체의 진행방향을 표시한 조절해 준다. (자동배수식) 다.

#### 12. 자동 제어장치

- · 1) 집열기 상단부와 축열조 하단 부 사이의 온도 차이로 집열 펌프를 제어하며 온도차 조절 범위는 5℃~15℃ 사이로 사 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온 도, 눈금표시와 함께 제어장 치 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 2) 집열 순환펌프의 작동을 자동 및 수동으로 ON-OFF시킬 수 있도록 별도 스위치를 부착한
  - 3) 전체 제어기의 전원스위치와 전원램프 및 FUSE를 부착시 키며 사용전원 전압은 110 V, 220V 겸용으로 한다.
  - 4) 제어장치 후면에는 집열순환 펌프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 는 단자가 설치되어야 하며 FUSE를 부착시킨다.

#### 13. 열매(부동액, 시수)주입

- 1) 모든 공사가 끝난 후 집열회 로 및 축열조를 세척하고 열 매를 주입한다.
- 2) 열매의 주입은 일사량이 적을 때 한다.
- 3) 열매주입은 서서히 회로내의 공기를 제거하며 시스템압이 1.0~1.5kg/cm 되게 충분히 주입한다. (부동액 주입식)
- 4) 열매주입은 공기배기변을 점 검하고 희로 및 탱크의 공기 를 제거하며 주입한다. (자동 배수식)
- 5) 열매주입이 다 끝나면 수동으 로 집열순환펌프를 구동시킨 후 압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번 주입하고 시스템압을 1.0 ~1.5kg/cm 되게 한후 밸브 (주입구 밸브)를 잠가둔다. (부동액 주입식)
- 6) 열매주입이 끝나면 수동으로 집열순환펌프를 구동시킨후 이상이 없으면 차온작동기의 펌프구동스위치를 Auto 위치 에 놓는다.
- 7) 열매보충은 시수가 직접 연결 되므로 시수압이 2kg/cm이상 이 될 경우에는 시수 입구 배 관에 감압변을 설치하여 압을

#### 2. 운전지침서

- 1. 태양열 시스템이 완전한가를 점 검한다.
  - 그. 시스템압
  - L. 밸브의 개페문제
  - □. 열매의 충진문제
- 2. 제어장치의 전원스위치를 ON 시킨다. 이때 전원램프의 불이 켜진 것 을 확인하며 불이 켜지지 않을 경우는 정전인가 램프의 불량 인가를 확인 점검한다.
- 3. 집열 순환펌프를 수동으로 구 동시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자 동위치에 고정시켜 제어장치에 의해 집열 순환펌프가 작동되 도록 한다.
- 4. 집열 순환펌프의 제어온도를 조절한다.
  - 그. 여름에는 겨울보다 온도차 를 크게 주어야 한다.
  - L. 제어조건에 외해서 펌프가 작동시 펌프구동램프에 불이 켜진다.
  - □. 온도차는 제어장치마다 특 성이 다르므로 시공자가 설 치한 후 시험가동시에 Setting하고 이를 운전지침서에 표시해 준다.
- 5. 시스템 작동중에 전원램프가 항상 켜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 6. 비통파시기(봄, 여름, 가을)에 는 전동ㆍ전자변 조절스위치를 OFF로 놓는다. (자동배수식) 이때 배관에 부착된 GV-1 벨 브를 닫고 GV-2를 열어준다.

### 3.솔라 시스템의 고장의 종류 및 해결책

- 1. 집열 성능이 저하할 때(축열조 의 온도가 예상보다 낮을 때)
  - 1) 원 인 : 기. 집열기의 표면에 먼지등 이물질이 많을 때 し. 차온 작동기의 온도차가 너무 쿨 때
  - 2) 해결책: 기, 월 2 회정도 집열 기의 표면을 청결히 한다. L. 차온 작동기의 온도차를

조절한다.

- 2. 전기료가 과다할 때
  - 원 인: 그, 집열순환펌프의 계속적인 작동
  - 2) 해결책: 기. 차온 작동기의 온도차를 조절한다. L. 온도 감지기의 상태를 조 접하다

□ 펌프구동스위치가 자동으 로 되었나 확인

- 3. 시스템이 정지되었을 때
  - 1) 원 인 : 기. 전원이 나갔을때 L. 집열회로내 열매가 불충 분하여 공기가 찼을 때 C. 차온 작동기의 혼도차가 과다할 때
  - 2) 해결책 : 기. 전원을 확인한다. L. 열매체를 확인하여 충진 하고 공기를 제거한다. C. 스트레이너를 청소한다.

근. 차온 작동기의 온도차를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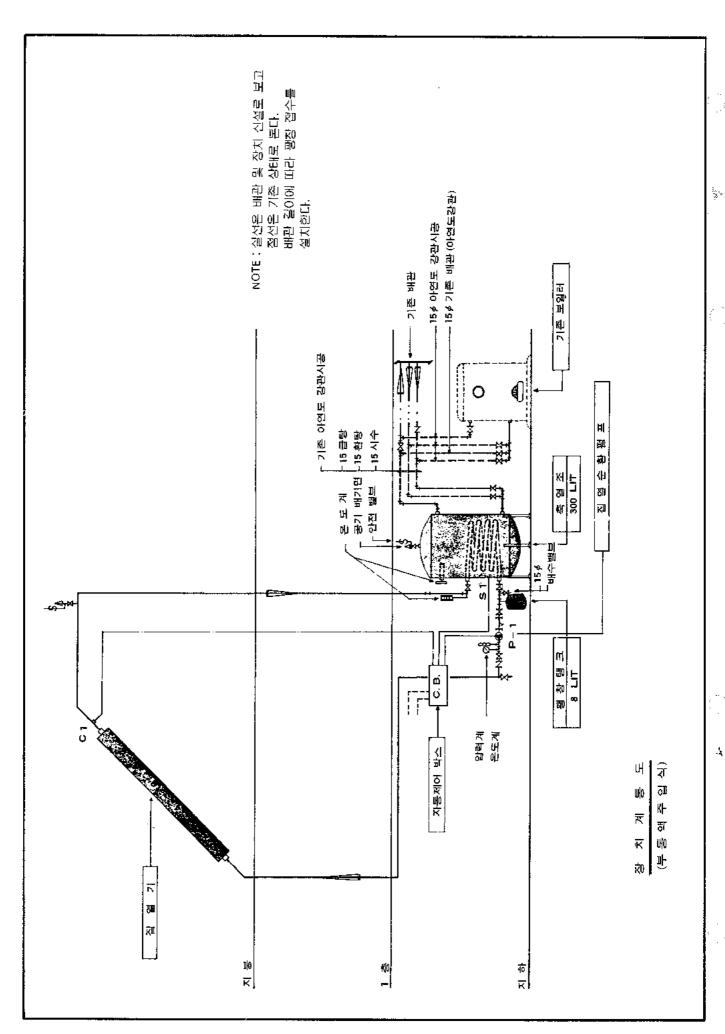
□. 공기배기밸브의 작동상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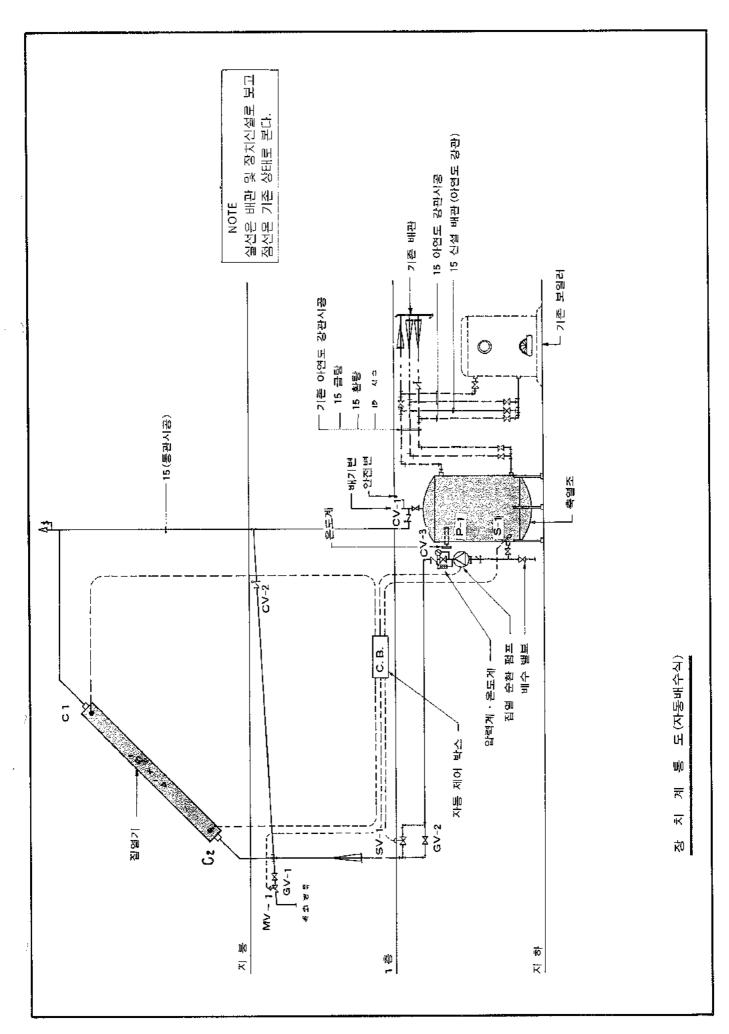
· ㅂ. 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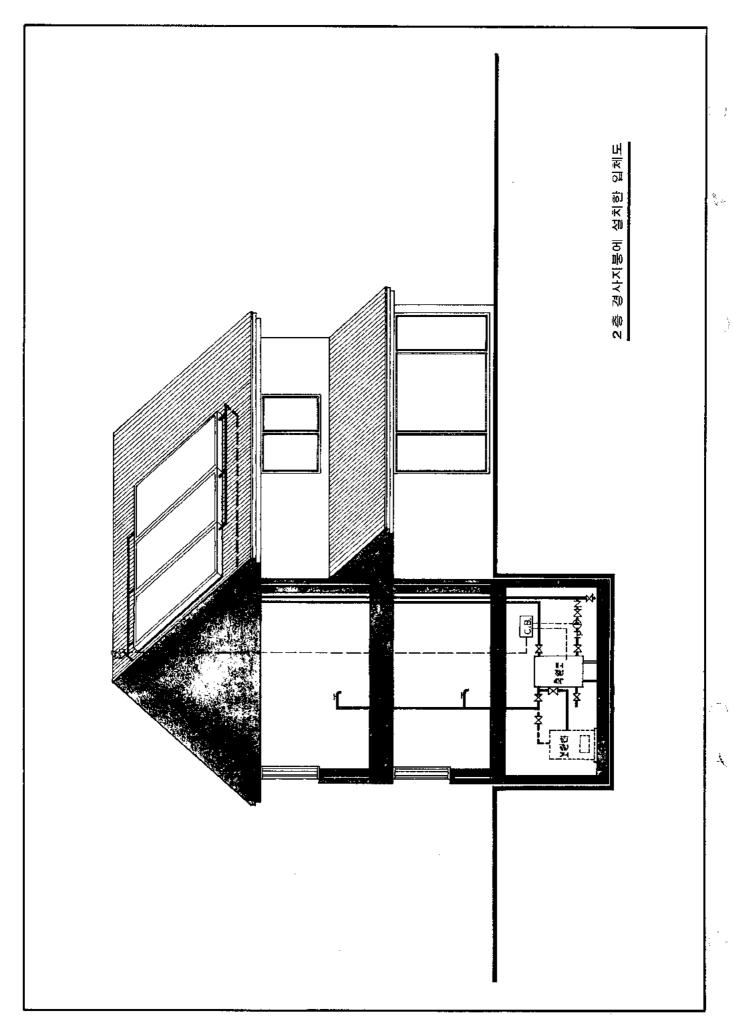
- 4. 시스템내 압력강화
  - 1) 원 인 : 기, 시스템내 누수부 분이 있을 때
- 2) 해결책 : L. 배관 및 기자재 를 점검하여 누수부분을 보수
- 5. 소음이 심할 때
  - 1) 원 인 : ㄱ. 펌프 및 배관내 공기가 찼을 때
  - 2) 해결책: L. 펌프 및 배관내 공기를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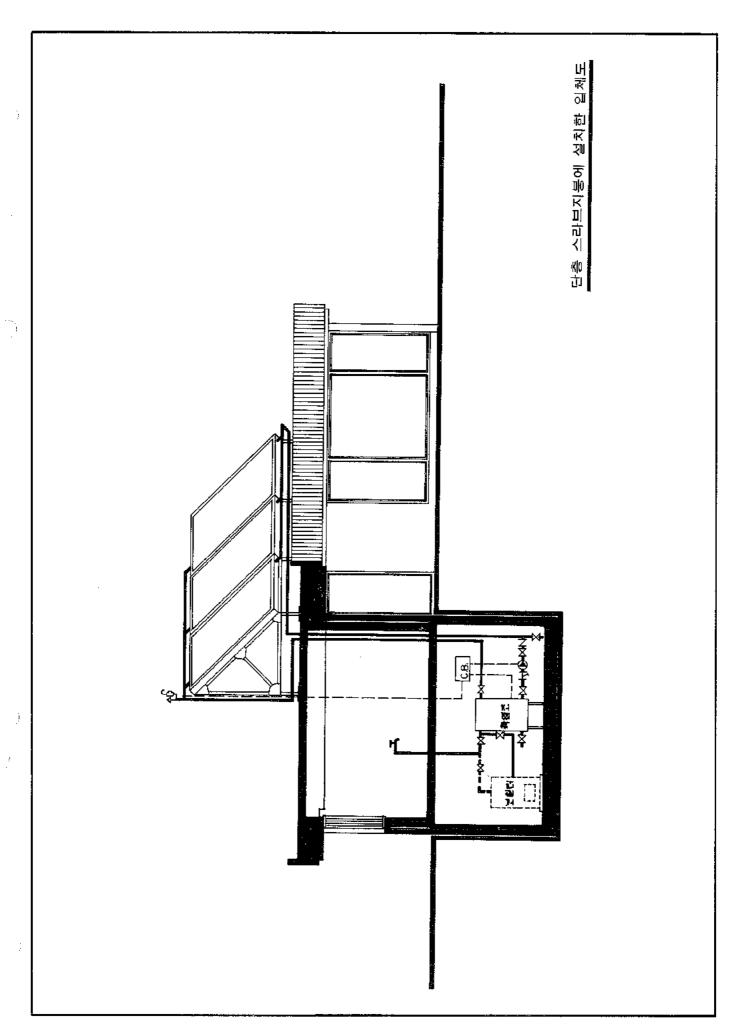
#### 4. 하자보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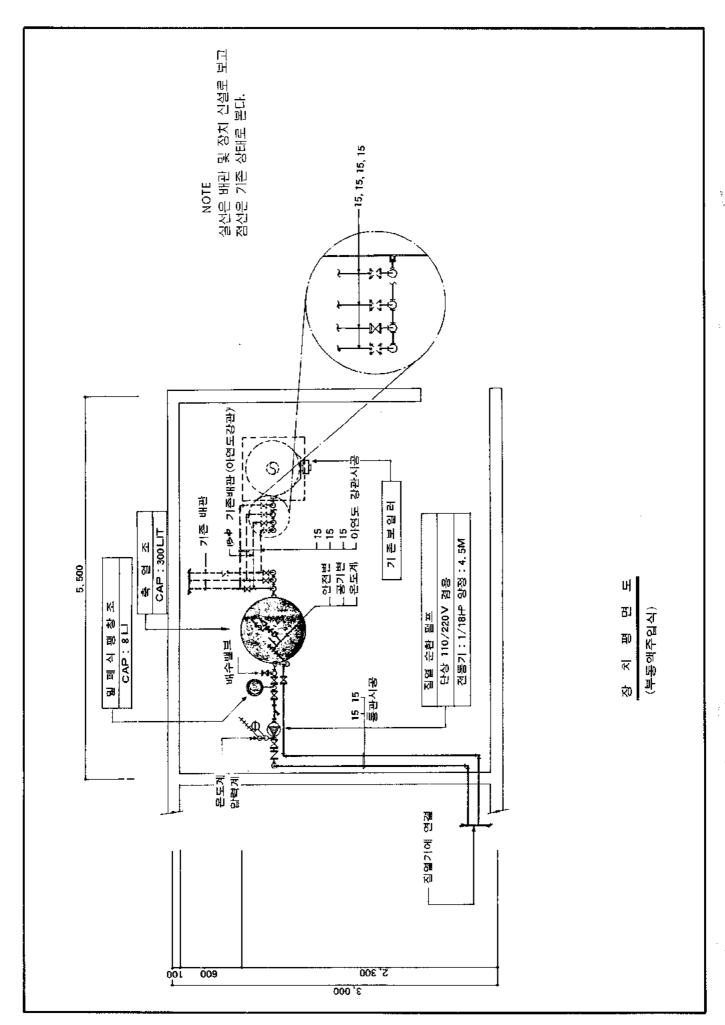
- 1. 하자보수 기간:시공완료후 2 년간 무료로 실시한다.
- 2. 하자보수 내용
  - 기. 자연고장 및 기타 설치미 비로 인한 고장
  - L. 시공 불량으로 인한 열매 채(부동액, 시수) 누출시 시 공자가 책임지고 주입해 준 다.
  - 리. 집열회로의 스트레이너가 꽉 막혔을 때
  - □. 집열회로의 밸브가 닫혀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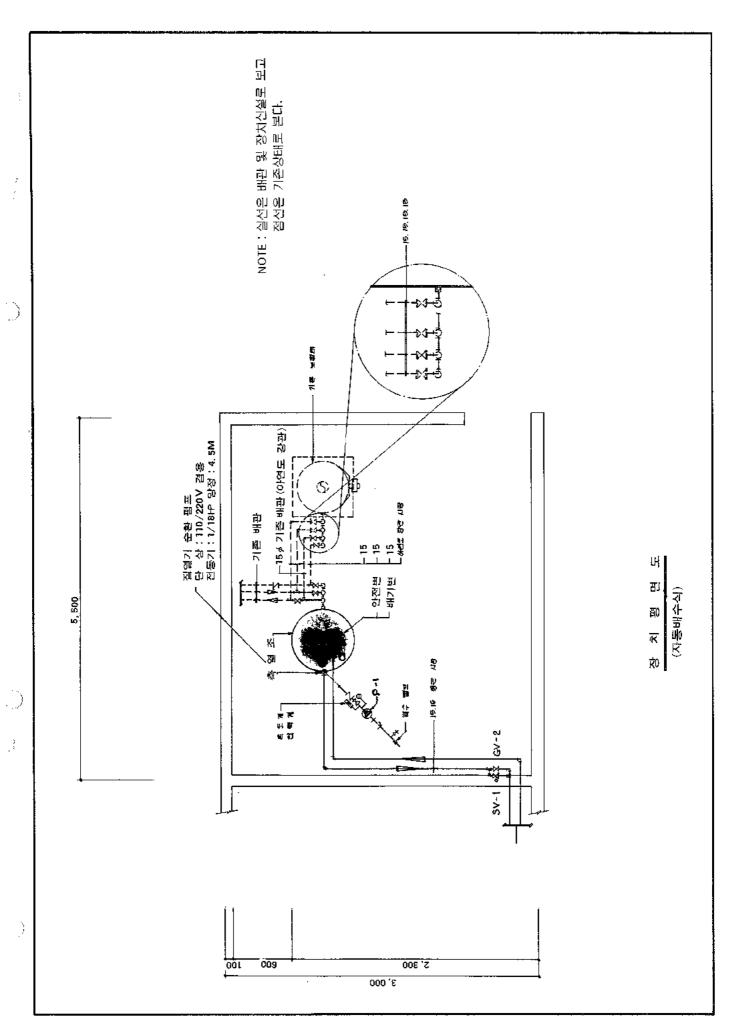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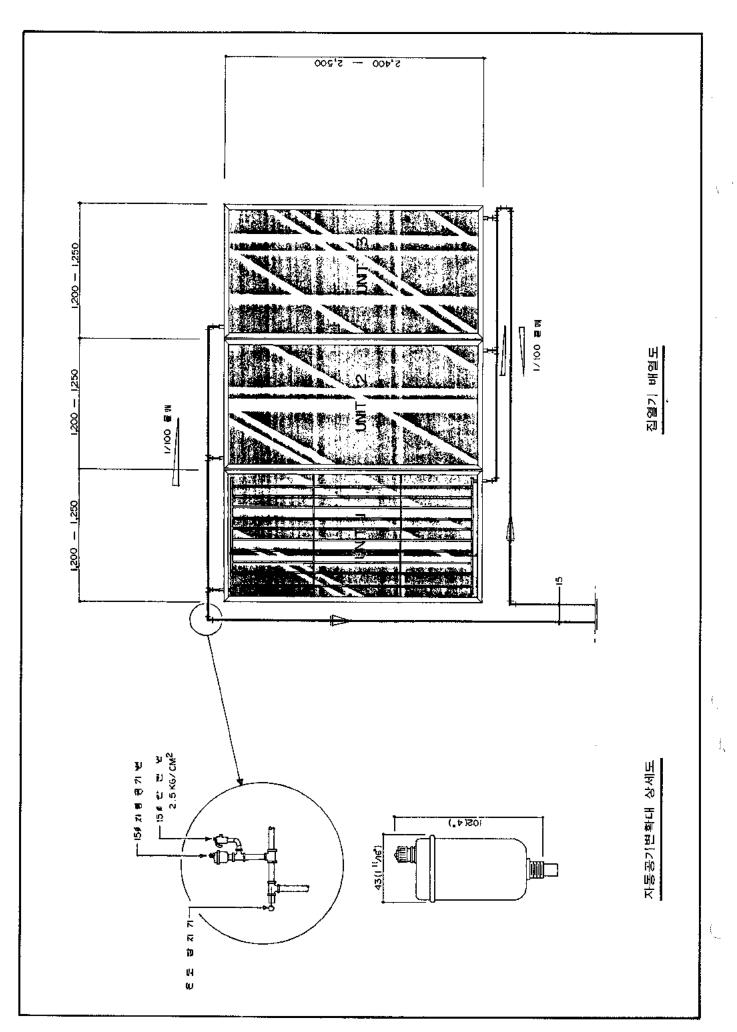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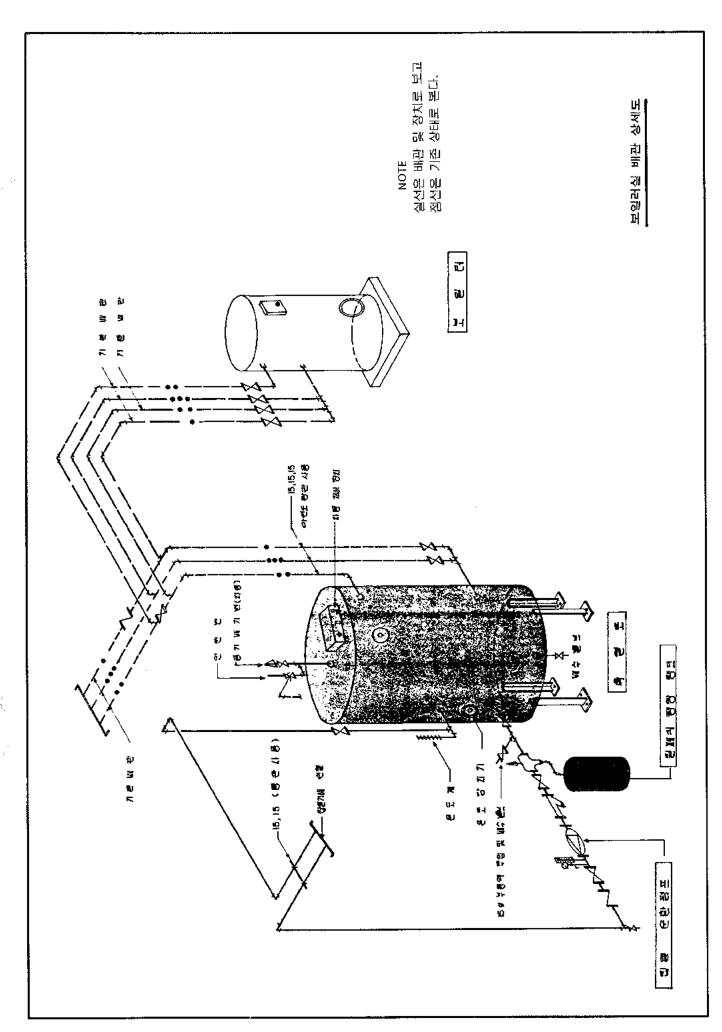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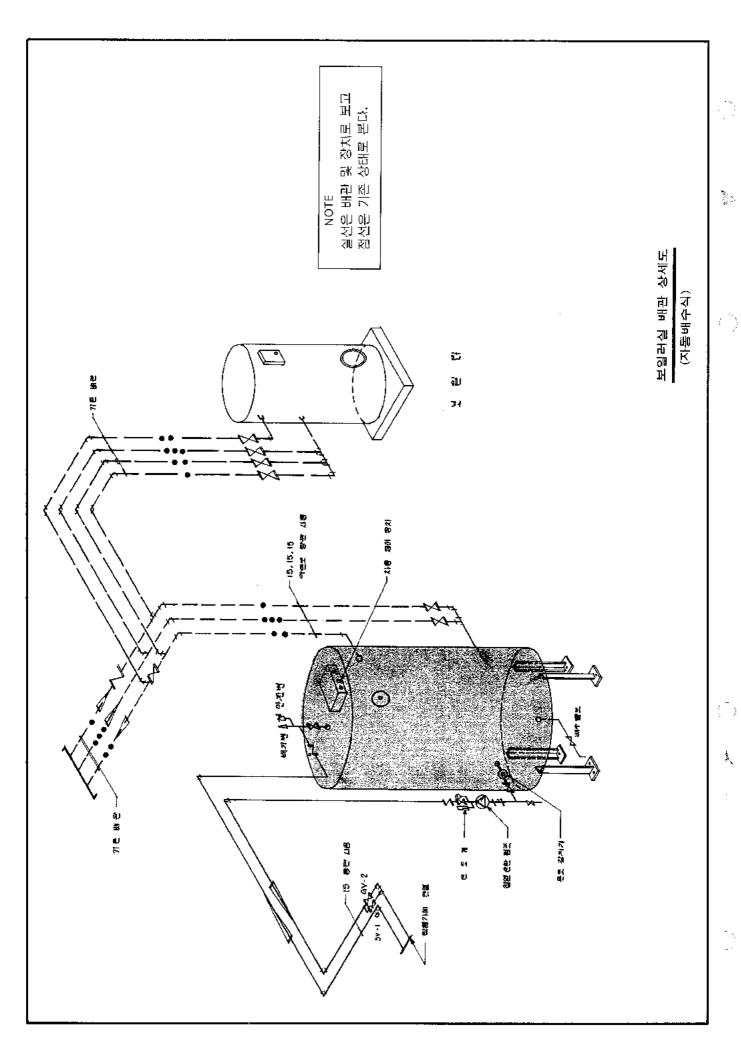












### 신입회원



□ **姜基秀** / 52, 3, 26 / 부산 /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건축과 / 세진건축설계사 / 부산시동구범 일동830 - 54 / 68 - 0358, 67-27 03



□李鍾允 / 48. 5. 12 / 경기 / 인하공대, 중남대학교대학원건 축공학과 / 신구건축사사무소 / 용산구한남동724 - 5 / 798 - 37 26



□孫斗樂 / 48. 11. 3 / 충남 / 경기개방대학건축공학과 / 태영 건축설계사무소 / 구로구구로 1 동461 - 3 / 864 ~ 7799



□河進廣 / 49. 1 20 / 경북공 업전문대학건축과 / 한국종합건 축사사무소 / 포항시죽도 2 동66 - 9 / 74 - 7373



□金鍾憲 / 51. 2. 5 / 서울 / 전주공업고등학교건축과 / 삼진 건축 / 강남구대치 I 동 941 - 26/ 568 - 8526



□李光好 / 51、11、26 / 전남 / 경희대학교건축공학과 / 무이건 축사사무소 / 강남구신사동561-17 / 546 - 4568



□朴有錫 / 52 1 25 / 서울 / 경기공업전문학교건축과 / 박유 석건축사사무소 / 경기도고양군 원당윱주교리114-10 / 62 - 53 52



□柳時洛 / 27 1 27 / 중남 / 대전공업학교 국학대학 / (주) 서한건축연구소 / 서울강남구청 담동 (134의20삼의 B. D413호) / 546 - 5381, 5382



□朴南根 / 27 8 26 / 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주식회사교우 건축 / 영등포구당산 6 가340-4 / 634 - 3961



□張準平 / 44. 2. 8 / 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평건축사사무소 / 서울강동구송파동84 - 4 / 415 - 3726



□鄭然晙 / 44. 7. 24 / 서울 / 한양공대건축과 / 재홍종합건축 사무소 / 서대문구북가좌동292 - 12 / 302 - 2415. 372 - 0794



□**朴喜攝 / 47** 1 23 / 경복 / 흥익대건축과 / 박희섭건축사사 무소 / 경기도수원시신풍동226-1 / 43 - 9359



□曹海植 / 47 3 19 / 대구 / 경북공업전문대학건축공학과 / 한국건축사사무소 / 경북포항시 축도 2 동66 - 9 / 74 - 7373



□鄭相哲 / 55. 12. 11 / 대구 / 영남대학교건축공학과 / 정우건 축사사무소 / 대구직할시남구대 명 5 동30 - 5 / 624 - 1500

### 건축허가 (도서신고) 면적변동추세

건설무 십계	/ 건축허기	ŀ현황										<b>(*85.</b> 3	월말 현재〉
단위 1 000 m²													
1, 000 m <sup>2</sup> 5,000 -													·*************************************
3,000					<i>_</i>							/	'81 '82
				1								j i	'83
4,000 -				2.	\		No. of		_			j	'84
			11				\ \.		<del>-</del>		, /	1	▼ 감소율
3, 000 -			1/	/	/ \				-\			7	
		,				\_					/		
4 000			,			į <b>–</b>			_	_	~		
2,000 -	_	ر اليكير							\\		 		ς
	=;;		ĺ									·	
1,000		مرسيس											
월변 면 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85	1, 138, 223	1,898,094	3, 006, 954										
'81	843, 447	1, 040, 968	1, 931, 949		2, 370, 273			1, 699, 811		1, 837, 442	1, 491, 485	1, 544, 362	20, 845, 880
'82	983, 925	1, 070, 383				2, 355, 757		2, 584, 815		2, 811, 085	2, 393, 414	3, 033, 610	29, 798, 374
'83	1, 418, 917		3, 469, 722			4, 049, 191		3, 421, 856		3, 369, 941	3, 145, 084	3, 177, 354	39, 693, 202
'84 =1:4=1010/ /	1, 461, 642	1,680,655	3, 637, 588	4, 177, 386	4, 625, 180	4, 384, 764	3, 595, 445	2, 886, 267	3,112,293	2,382,778	2,540,849	5, 077, 934	39, 562, 781
전년대비% <u>전월</u> 대비%													
,									/				
	<u> </u>	신고현황	·						·			⟨*85. ∶	3 월말 현지
/ 건축사협회 7 단위	집계 /도서	신고현황										⟨*85. ∶	3 월말 현지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집계 / 도서	신고현황	<u> </u>									⟨*85. ∶	
/ 건축사협회 7 단위	집계 / 도서	신고현황	<u> </u>		^							⟨*85. :	'85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집계 / 도서	신고현황	\\\\\\\\\\\\\\\\\\\\\\\\\\\\\\\\\\\\\\									<b>(*85.</b> )	'85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집계 /도서	신고현황	\\\\\\\\\\\\\\\\\\\\\\\\\\\\\\\\\\\\\\									<*85. :	'85 '81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m² 5,000 -	집계 / 도서	신고현황										<*85. :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5,000 - 4,000 -	집계 / 도서	<i>-</i>										<b>(*85.</b> )	'81 '81 '83 '84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집계 / 도서	<i>-</i>										<*85. :	'81 '81 '83 '84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5,000 - 4,000 -	실계 / 도서 /	<i>-</i>	1									⟨'85. :	'81 '81 '83 '84
건축사협회 7 단위 1,000㎡ 5,000 - 4,000 -	실계 / 도사	신고현황										⟨'85.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3,000 -	일계 / 도사	<i>-</i>										⟨*85. :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3,000 - 2,000 -	실계 / 도사	<i>-</i>	1									⟨*85.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3,000 -	집계 /도사	<i>-</i>	1									<b>(*85.</b> :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3,000 - 2,000 -	실계 / 도사	<i>-</i>	1									⟨*85.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 <sup>2</sup> 5,000 - 4,000 - 2,000 - 1,000 -					5		7	8					——'85 '81 '82 '83 '84 ▼감소울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 <sup>2</sup> 5,000 - 4,000 - 2,000 - 1,000 -	1	2	3	4	5	6	7	8	9	10	11	(*85.	'81 '81 '83 '84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 <sup>2</sup> 5,000 - 4,000 - 3,000 - 2,000 - 1,000 -	1 1,608,044	2 3, 688, 204	3 3, 400, 362								11	12	—— '85 '81 '83 '84 ▼ 감소울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2,000 - 1,000 - 9 또 '85 '81	1 1,608,044 888,005	2 3, 688, 204 1, 632, 724	3 3, 400, 362 2, 105, 445	2, 892, 064	2, 638, 891	2, 321, 439	2, 108, 109	2, 518, 279	2, 038, 653	1, 906, 504	11	12	— '85 '81 '83 '84 ▼ 삼士을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 <sup>2</sup> 5,000 - 4,000 - 3,000 - 2,000 - 1,000 -	1 1,608,044 888,005 947,131	2 3, 688, 204 1, 632, 724 2, 282, 755	3 3, 400, 362 2, 105, 445 2, 463, 391	2, 892, 064 2, 877, 177	2, 638, 891 2, 927, 031	2, 321, 439 2, 981, 380	2, 108, 109 2, 335, 943	2, 518, 279 3, 204, 068	2, 038, 653 3, 869, 449	1, 906, 504 2, 959, 962	11 1, 634, 919 2, 775, 811	12 1, 544, 874 2, 846, 970	—— '85 —— '81 —— '82 —— '84 ▼ 召士章
전축사협회 7 단위 1,000 m² 5,000 - 4,000 - 2,000 - 1,000 - 1,000 -	1 1,608,044 888,005 947,131 1,677,802	2 3, 688, 204 1, 632, 724	3 3, 400, 362 2, 105, 445 2, 463, 391 5, 617, 923	2, 892, 064	2, 638, 891	2, 321, 439 2, 981, 380 4, 409, 611	2, 108, 109 2, 335, 943	2,518,279 3,204,068 3,849,487	2, 038, 653	1, 906, 504 2, 959, 962 3, 807, 508	11 1, 634, 919 2, 775, 811	12	제 24, 229, 906